



9

198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3. 9호

(루게 431)



◆◆◆◆◆◆◆◆◆◆ 차 례 ◆◆◆◆◆◆◆◆◆◆

문학작품창작에서 우리 식의 특질을 더욱 살리자	4
사랑에 대한 생각	7
인민들의 행복속에 기쁨을 찾으시네	8
김일성주석은 인민의 수령	9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헌시	10
당신께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0
2월의 명절에 드리는 영광의 노래	12
삶	13
잊지 못할 나날을 회고하여	23
해와 별 빛나 젊어지는 내 나라	24
꽃을 키우는 마음	25
어머니조국에	28
나의 조국애가 시작된곳	29
내조국의 저녁은 좋아라	29
9월 찬가	30
밤나무 설레인다	31
내 집 창가의 정다운 불빛	34
우리 문학에 굽이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열정	35
그 땅, 그 흙을 안고	41
은정	42
교육테제 만세!	52

산촌의 가을날에	53
공화국기발	53
출발점	54
휴양소 5 호실	65
피끓는 세대여 청춘은 불타라.....	73
은혜로운 품속에서	74
락원의 명세를 안고	75
탐구되고 세련된 대사형상.....	76

문학작품창작에서 우리 식의 특질을 더욱 살리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 오늘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사상사업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 《월미도》, 《불타는 마음》의 주인공들을 따라 배우기 위한 영화실효투쟁이 광범히 벌어짐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용감하게 뚫고나가는 불굴의 투사로 더 잘 준비되어가고있다.

당사상사업이 보다 높은 단계으로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문학작품창작에서 당의 의도를 더욱 민감하게 반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최근 당사상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수행을 위한 방향과 방도 그리고 문학작품창작에서 나타날수 있는 편향을 미리 막고 그를 옹계 발전시키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문학은 당사상교양의 힘있는 수단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사람들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따라서 문학작품의 사상적내용은 언제나 당사상사업방향에 따라 세워져야 하며 당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철저히 복종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문학의 정치사상적수준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문학작품의 내용에서 우리 식의 특질을 잘 살리는 문제이다.

지금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을 중요한 사상사업방향으로 내세우고있다.

당의 이 사상사업방향에 따라 사상교양사업 옹계 진행되자면 모든 사상교양수단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 어버이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 가장 선진적인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남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앞당기기 위한 내용을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상교양사업에서 톡톡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내용상 특질이다.

이것은 문학작품창작에서도 결코 례외로 되지 않는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작품창작에서 무엇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당의 불패의 위력 그 령도의 현명성을 가장 중요한 사상주제적과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감명깊게 형상하여야 한다.

그래야 문학작품의 사상적내용을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선에서 대를 확고히 세워나갈수 있으며 우리 문학이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문학작품창작에서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요인을 밝혀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우리 문학은 이 분야의 주체사상적탐구에 응당한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작품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남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사람들을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내용들을 또한 여러 측면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담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 문학이 3대혁명의 기치높이 《80년대속도》 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며 조국을 통일하

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문학은 당사상사업의 이러한 근본요구들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만 내용에서 우리 식의 특질을 더욱 원만히 살려나갈수 있으며 당과 혁명에 복무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성을 강화하는데서 현시기 또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문학의 여러 형태들에서 나타날수 있는 편향을 미리 막고 소설, 시, 아동문학, 희곡 등 모든 문학형태들을 당이 요구하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 더욱 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오늘 우리 소설문학앞에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참된 전형을 진실하게 그려내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치고있는것도 다름아닌 그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 문학의 주인공들로 되어야 하는것은 응당하다.

여기서 로동자, 농민의 형상을 창조하는 문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것은 로동자, 농민이 우리 혁명의 기본부대이고 그들을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만 우리 사회의 주도적력량을 옹계 반영할수 있기때문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 지식인들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 문학에서 지식인의 형상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형상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우리 사회의 주도적력량에 대한 특질을 정당하게 형상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지식인들의 생활을 그려야 주인공들의 지성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할수 있는듯이 생각하면서 로동계급과 농민들의 생활을 등한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우리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이 관철되는 과정에 우리 로동계급과 농민들의 사상감정과 지성세계가 얼마나 풍부하여지며 그들의 정치사상적

및 윤리도덕적 특질이 어떻게 발견되었가는가를 옹계 보여주어야 한다.

소설문학에서는 또한 긍정적주인공의 형상문제를 높은 예술적수준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긍정적주인공은 작품의 종자를 밝혀내는데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인물이며 그 주제와 사상을 드러내는 직접적인 담당자이다.

그렇기때문에 소설의 읽음새조직에서도 긍정적주인공을 중심위치에 놓고 그에 의하여 사건이 발전하도록 하며 그에게 극성을 부여하여 형상의 여운이 그를 통하여 우리나라오도록 하는것은 주체적문예리론의 중요한 미학상요구의 하나이다.

만일 소설들에서 긍정적주인공보다 부정인물들에게 극성이 더 부여되어 거기에 형상의 여운이 쏠리게 된다면 그 작품은 대가 바로 선 작품이라고 말할수 없다. 긍정적주인공의 대를 바로 세우고 부정인물들의 생활선이 긍정적주인공의 생활선에 복종되도록 하여야 한다.

류사성과 도식주의를 극복하는것은 소설문학의 발전에서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생활은 비상이 풍부하고 다양하며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은 비반복적인 개성적인간들의 호상관계속에서 부단히 새롭게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설정이나 이야기줄거리조직에서 소설작품들이 서로 어슷비슷해져서 류사성을 발로시기거나 도식주의를 낳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가령 기사장이나 연구사는 일면적으로 다 부정인물로 설정하고 기타 인물들은 긍정인물로 설정하는것과 같은 경향이 일반적현상으로 되고있다면 이것 역시 하나의 유형으로 떨어지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도식주의는 주로 인간문제보다 생산기술적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것이 해결되는데 따라 인간문제도 동시에 해결되는 그런 이야기줄거리조직에서 흔히 나타난다. 우리 생활이 보람차고 다양해지는데 어찌 그것을 반영하는 소설작품들이 하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구성조직을 반복해야 하겠는가. 소설작품창작에서는 나타날수 있는 이와 같은 편향들을 제때에 극복함으로써만 금보다 값있고 귀중한 자기의 가치와

사명을 다할수 있을것이다.

시문학창작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문제리론과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 시들의 사상에 술적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우리는 시작품창작에서 산문화의 경향을 극복하고 운률을 살리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는 것과 함께 우리 인민들의 구체적인 생활감정을 노래하는데 시적열정을 바쳐야 한다.

일반 시사적이며 정론적인 시는 많으나 우리 시대 인간들의 지향과 구체적인 생활감정을 노래하는 시가 적다면 시문학이 인민대중의 참다운 벗이 될수 없다.

우리 시문학이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감정을 옹게 노래하자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열정을 시적으로 일반화하여야 한다.

레컨대 우리 나라 사회주의락원을 노래하는 시라면 허공에 뜬 화려한 문구들만을 라렬할것이 아니라 아버지수령님과 은혜로운 당의 품속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인민들,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노동생활을 즐기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열정이 무엇인가를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파고들어야 한다.

공장에 대한 시를 쓴다면 공장건물과 기계설비의 우람찬 동음에 취한 감탄만을 려거할것이 아니라 기계를 다루는 노동자들과 쇠물을 뽑는 노동자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고있는가를 미학정서적으로 읊어야 한다. 사회주의협동벌에 대한 시라면 황금이삭 물결치는 넓은 벌을 바라보며 흐뭇해지는 감정만을 토로할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만풍년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사색하는 시인의 감정과 씨를 뿌리고 김을 매며 가을을 하는 협동농민들의 지향과 요구가 무엇인가를 노래하여야 한다. 또한 남들이 다 자는 깊은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들과 밤을 새우면서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고있는 인민군장병들의 신념과 의지가 무엇인가를 노래하여야 한다. 아침출근길에 오른 우리 인민들의 씩씩한 발걸음을 보면서도 시대정신, 우리 시대 인간들의 호흡을 노래할수 있을것이다.

보람찬 노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근로자들의 이런 다양한 생활을 노래할 때 우리 시문학은 참으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길동무로 될것이다.

아동문학창작에서는 정치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아이들의 형상에 어른티가 나게 해서는 안되며 아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아동문학작품에서 동심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진지한 탐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 밑에 창조된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성과에서 귀중한 경험들을 본받아 새 시대의 요구에 맞는 희곡창작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사상선전사업에서 우리 식의 특질을 살릴데 대한 당의 방침은 주체의 혁명문학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우리 문학으로 하여금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들을 더욱 왕성하게 창작하여 주체의 혁명문학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사랑에 대한 생각

강창영

봄날의 꽃망울같이
그 언제 피었는지
이른새벽 꽃이슬같이
그 언제 내 가슴에 스몄는지

내 몰라라
다 큰 나이에도 자고깨나면
더 큰 기쁨이 나를 기다려
철없이 자라는 아이에게도
아름찬 행복이 마련돼있어
때없이 눈시울 젖어드는것

조용히 생각하면
민들레꽃 방긋 웃던 동쪽길우에
아이적 나비쫓던 꽃신자욱인가!
눈내린 뒤동산 솟는길우에
썰매타며 튕글던 털외투자린가!

그것은 바다가야영소
하얀 모래불우에서 바라보던 파아란 하늘!
밤이면 머리맡 어머니의 자장가인양
내 베개머리 다독여주던 밤파도소리!

나의 이 작은 심장으로부터
이 나라 천만 가슴가슴에
운명처럼 안겨져있는것
내 한가정의 좁은 프락으로부터
이 땅의 수백만 가정마다에
삶의 숨결처럼 젖어있는것.

그것은
얼음장에 떠밀리는 처녀에게도
다시 안아 생을 주는 새 생명!

심산속 누구도 알지 못한 꽃을
밭머리 이름없는 초막에서 찾아
숨은 영웅으로 내세운 보석같은 명예!

삶과 운명을 함께 하는것이어서
떼여놓을수 없어라 어느 한 순간도
그 님의 생이 끝나도 이어지며
뜨거이 뜨거이 안겨지는것

그것은 순간의 잘못으로
뒤떨어져 피곤했던 그 마음에
재생의 빛을 주어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는 그 이름!

생을 마친 전사의 그 아들의 가슴우에
조용히 빛나던 영웅의 금별!
열백번 다시 찾아 내세운
혁명전사의 아들딸
아버지를 꼭 닮은 맑은 그 눈동자!

죽어 이 땅에 묻혀도
고스란히 간직하고싶은것
천백번 쓰러져도
천만번 다시 태어나 안고싶은것

그 언제부터 품어왔던가!
그 어디서부터 안아왔던가!
찬바람 눈비속을 헤치고
피바다 불바다 넘고넘어...

그것은 백두설령의 우등불가
전사를 기다려 전사를 기다려
김오르는 주전자에 끓던 물소리!

락원의 이 강산 그 어디서나
4월의 봄에 설레는 꽃물결!
하늘가의 나의 집 밝은 창으로
조용히 흘러드는 붉은 노을빛!

그것은 요람가의 아기의 불우물!
꽃술에 묻힌 아이들의 푸른 꿈!

창문가에 열려져있는 활무대!
어머니들의 시름없이 개인 마음!
로인들의 왕성하는 청춘의 활력!
인생의 말년에도 다시 피어나는것...

이 땅에 태를 묻은 아들딸들
가슴가슴마다에 새겨져
천가지 만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
누구나 차별없이 안아주는
그 사랑!

아, 그 사상이 오만가지여서
내 미쳐 몰랐던가!
억만금을 안겨준들 내 바꾸랴
그것 없이는 그것 없이는
나도 잃고 이 세상도 영영 잃는것!

얼마나 행복한것이더냐
그 사랑의 품에 얼굴 묻고
만복을 노래하며 사는
우리 인민
나의 복된 삶은...

내가 안기고
우리 집이 안기고
우리 인민, 온 조국이 안겨사는
위대한 사랑의 바다!
아, 어버이수령님의 품
어머니당의 품이여!

가사

인민들의 행복속에 기쁨을 찾으시네

김봉운

은혜론 사랑의 해빛을 안고
행복의 창문들이 밝게 열리네
산에 들에 만풍년을 펼쳐주시며
수령님 발걸음 가버워지시네
아, 수령님 우리 수령님
인민들의 행복속에 기쁨을 찾으시네

따사론 그 품속에 락원이 솟아
창조의 노래소리 넘쳐흐르네
일터마다 자동화의 불빛 주시며

수령님 마음도 젊어지시네
아, 수령님 우리 수령님
인민들의 행복속에 기쁨을 찾으시네

들에는 만풍년의 노래 넘치고
일터엔 자동화의 불빛 밝아라
인민들의 행복속에 기쁨을 찾으시며
수령님 한평생을 바쳐가시네
아, 수령님 우리 수령님
인민들의 행복속에 기쁨을 찾으시네

김일성주석은 인민의 수령

륙폐화

김일성 주석은 인민의 수령

인민들속에서 나시여 인민을 위해 싸우셨네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그이 헤쳐오신 고난에 찬 광복의 길

그이령도따라

봄이 오면 산과 들에 새싹이 돋듯

공장과 농촌 그 어디에나

조국광복의 해불은 타올라

인민들에게 해방의 서광 안겨주었네

그이께서는 인민혁명군을 이끄시여

침략자 왜놈을 내쫓고

해방된 새 조국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셨네

김일성 주석은 인민의 수령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셨네

항일의 나날 간고한 싸움길에서도

대원들과 함께 풍찬로숙하시며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고 하시며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셨네

어머님의 사랑이 깃든 돈으로

아이들의 솜옷을 지어주시며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고

조국의 미래를 키워오셨네

김일성 주석은 인민의 수령

인민을 위해 모든것 바쳐오시네

조국개선의 그날에

공화국창건건설의 새로운 설계도 펼쳐주시고

전후의 재더미속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천리마대진군으로 인민들을 이끄시였네

주체사상의 찬란한 빛발따라

인민들은 사회주의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네

김일성 주석은 인민의 수령

언제나 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시네

그이께서는

인민들을 위해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시고

정권기관도 인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시고

당원들과 간부들도

인민의 심부름꾼이라고 교양하시네

그이께서는

인민들과 친절히 담화도 하시며

현지지도의 길에도 오르시여

인민을 위해 모든것 바쳐오시네

학교 가는 아이들의 옷차림도 보아주시고

공원관리원의 일손도 돌봐주시네

어로공들의 집에 오시여서는

식구들의 그리움도 생각해주시고

외딴 섬 아이들의 학교길을 넘려하시여

섬우에 다리도 놓아주셨네

인민에 대한 그이의 자애론 아버지사랑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네

그이에 대한

인민들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은

혁명과 건설을 떠미는 힘의 원천이 되네!

아! **김일성** 주석은 진정한 인민의 수령이시라네

그이의 거룩하신 존함은

동지들을 역경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우게 하고

생명의 마지막순간에도

궁지높은 그이를 노래하게 하네

그이의 영명한 령도따라

인민들은 조국통일의 실현을 위해

힘차게 달리고 또 달리네

천리마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위대한 인민의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우리는 삼가 축원합니다.

(필자는 중국 섬서성 노동자)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헌시

로빈 라발레스 도브루

우러러보시라 그이의 영상
심장에 새기시라
그이의 말씀 한마디한마디가
혁명의 진리이거니

그이의 발자욱따라 지켜보시라.
그이의 거룩하신 걸음걸음마다
건설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민족의 태양이신 그이께서
온 나라 방방곡곡에 찾으시여
인민을 통일로 부르시네

우러러 새겨보시라 그이의 영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습이거니
그이는 붉게 솟아오르는
찬란한 태양
밝게 비쳐주시네
혁명의 앞길을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
그이의 발자욱따라 지켜보시라
건설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그이는 조국의 심장
인민을 통일로 부르시네
그이께서는 언제나
근로자들속에 계시며
혁명을 령도하시는

우러러보시라 그이의 영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습이거니
심장에 새기시라 그이의 말씀

따르시라 그이의 발자욱
구감으로 삼으시라 그이의 성품
그이는 자애로운 아버지
그이는 투쟁의 기수

그이는 인민의 의지의 체현자
온 세상 인민들의 념원의 체현자
혁명과 건설과 통일로 인민을 부르시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인민의 태양
혁명투사들의 아버지
시대의 정신이시다
(필자는 수리남조선친선협회1위원장)

당신께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코 엠. 료빠르드

바로 당신께서 탄생하시여 영광의 성지 백두산
산은 더욱 빛나고
당신의 거룩하신 영상과 열정에 넘치시는 예
지로 하여
조선은 더욱 빛나거니
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당신께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체사상으로 무장되고
슬기롭고 억세고 전투적이며
꿈 많고 순결하고 각성된 인민
그 인민의 사랑을 받고계시기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당신께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는 노래많은 어린이들속에 계시고
 언젠는 씩씩한 청년들속에 계시며
 또 언젠는 대담하고 용감한 노동자, 농민들속에
 계시며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시거니
 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당신께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혁명의 충직한 아들 전형적인 애국자
 당신은 인자하고 구김새없는 동지
 당신은 만형과 돌도 없는 벼파도 같이
 티없이 맑고 빛나는 상징이시거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아, 당신께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창조적인 로작들을 집필하시고
 공장과 광산 협동농장과 군부대
 학교와 병원 대학과 연구기관들
 어촌을 찾으시여 제도를 주시거니
 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당신께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께서 인민의 행복 위해 바치시는 로고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념원하시여 바치시는 크나큰 노력
 그 무엇으로 다 채일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인민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계시는
 위대하신 **김일성** 동지의 령도력을 완벽하게 체현
 하시고
 그것을 훌륭히 구현해나아가시거니
 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당신께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생활에서 한없이 소박하시고
 3대혁명을 이끄시는 성업에서
 낮과 밤을 묵묵히 바치시며
 로고를 기울이시건만
 언제나 겸허하시거니
 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당신께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예술인들과 미학가들 건축가들과 기
 사들
 작곡가들과 조각가들을 이끄시여

영화와 연극 음악과 무용 창작에서
 진실하고 고유한 조선적인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진리를 심어주시거니
 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당신께 영원한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께서는 뜨거운 손에 주체의 화불을 드시고
 너그러우신 마음속에는 그것을 깊이 간직하셨습
 니다
 당신은 그 화불을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온 누리를 향해 《앞으로!》 웨치시거니-
 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당신께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혁명렬사들을 찾으실 때에도
 지난날과 현재의 로력적위훈이 깃들어있는
 기념비들을 찾으실 때에도
 주체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가르치시거니
 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당신께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무한한 힘과 열정의 샘이 되시여
 대중을 서사시적상상봉으로 이끄시고
 온 사회를 인테리화으로 부르시며
 생산자대중을 《80년대속도》 창조으로 이끄시거
 니

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당신께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체혁명은 아름다운 현실로 꽃피어나고
 먼 후날에 가서 태어나는 새세대들도
 언제나 언제나 축원할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시여
 당신께 영원한 축복을 드리웁니다.》라고

(필자는 꾸바시인)

2월의 명절에 드리는 영광의 노래

게오프레이 에부

넘치는 희망과 경모의 정을 가득 안고
적도의 열풍 휘몰아치는 아프리카
야자수 그늘 밑에 우리 섰노라
시민들도 병사들도 목소리를 합쳐
조선의 백두산을 향하여
2월의 명절을 노래하노라

얼마나 고대하던 그날이었는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날이었는가
바로 그날 그 경사스러운 날에
공산주의 태양이 찬연히 솟았어라

그이는 인류를 향도할 천품을 지니신분
그이는 인자하신분 탁월하신분
그이는 위대한 사상가 이론의 대가
그이는 인류의 헌신적인 령도자

그이의 령도로 조선은 번영하나니
그이는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위대한 수령님의 후계자
그이가 바로 **김정일**동지이시여라

그이는 젊으신분 세계가 다 아는분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유럽
그 어디서나 그이의 탁월한 슬기와 예지를 찬양
하노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춧돌을 고여선
조선의 미래는 얼마나 찬란한가
언제나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시며

어버이사랑으로 인민을 보살피시는분
그이는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이시여라

아. 친애하는 지도자
그이께서 계시어 세계에 기쁨이 있고
그이께서 계시어 조선은 혁명의 참모부로 되었고
암흑세계를 밝혀주는 찬란한 해발처럼
지구의 구석구석을 환히 비치나니
그이는 정녕 탁월한 **김일성**주의자의 귀감이시여라

그이의 현명한 령도로
조선에서 혁명과 건설의 담은 높이 쌓아지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로
행복의 락원 조선땅에 펼쳐졌나니
그이의 탁월한 령도로
조선은 반드시 통일의 위업을 안아오리라

영광의 땅 조선을 향한 우리의 심장은
2월의 명절과 더불어
영원히 모시고 따를 향도의 별을 우러러
부풀어오르는 가슴안고 목청껏 웨치노라
《백두의 정기가 온 세상에 서린다》고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간절한 념원을 담아
주체혁명위업의 충직한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께 우리모두 경건한 마음 가다듬고
영광 영광 영광을 드리노라
그이의 만년장수를 축원하노라

(필자는 우간다 장교후보생)

삶

안동춘

경호는 음악소리에 잠을 깨었다.
깨어나고도 한동안 눈을 감은채 움짱하지 않았다.

스피카에서 울리는 노래의 마지막소절까지를
듣고서야 천천히 일어나앉았다.

푸릿하게 밝아오는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엷게 뿌려진 은빛 성에의 아롱아롱한 무늬사이
로 철다리의 란간살이 확확 지나갔다.

(다 왔구나.)

광석배낭을 내려놓기 바쁘게 덜정거리는 《경
생》을 타고 자그마한 간이역에 도착하여 낮도
모르는 사람의 안내로 이 연석간에 오르기가까지의
일들이 꿈결처럼 밝혀졌다.

흙물이 튀고 돌가루가 발리고 기운 자리까지
있는 작업복을 갈아입을 사이도 없이 산에서 곧
추 예까지 오지 않으면 안된 사유가 무엇이겠는
가.

밤새 궁싯거리며 풀어보려던 이 숙제에 다시
부딪치자 경호는 우울해졌다.

작업복차림으로 시내를 꺾질러간다는것도 문제
였다.

세수를 하고난 그는 창가에 다가가 우두커니
선채 밖을 내다보았다.

회색 세멘트담벽이 천천히 흘러갔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결정 관철에로!》

판에 흰색 글로 쓴 구호판이 얼핏 보였다가 사
라졌다.

(아버지때문일까?)

그 어느날부터인가 전률없이느낄수 없었던
예감이 다시금 그를 무섭게 옥죄인다.

경호는 추운듯 몸을 떨었다.

아버지로부터 《배은망덕한녀석》의 락인을 받
고 쫓겨난 자식이였다.

경호는 외아들이였다. 부모들의 사랑을 독점하
게 되는 《특전》을 아름답게 맛보며 자라난 경호
였다. 어린시절에는 살뜰한 애무의 련속으로 커
서는 관심어린 시선과 타이름으로 나타나는 극진
한 사랑이였다. 다른 집과 달랐다면 청년기의 경
호에게 아버지의 사랑은 높은 요구와 엄격성으로
표현된것이라고 할지.

경호는 아버지를 몹시 따랐었다.

그는 매사에서 아버지의 평가와 지적을 사회적
평가처럼 아니 그보다 더 중시하기도 하였다.

그는 자기의 전공도 아버지의 희망을 좇아 지
질학을 택했다.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는 아버지의 축복어린
미소속에 정무원 배치장을 미개발광석인 ㅂ광을
탐사하는 조사단파견장과 바꾸었다.

ㅂ광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바를뿐아니라 현대
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는것으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꼭 있었으면 하고 바라시는
몇가지 광물중의 하나였다.

아버지처럼 청년시절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
고 항일대전마당에는 못나섰을망정 나라에서 긴
절히 요구하는 ㅂ광을 찾아 하나의 빛나는 결실
물을 마련하리라 결심한 경호였다.

1년나마 그는 산줄기를 훑는데 바쳤다. 그러나
ㅂ광은 없었다. 얻은것이란 랑비한 시간과 로력
에 대한 애석함과 래일에 대한 불안과 초조였다.
이름없는 탐사원으로 일생을 보낼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출발시의 고결한 리상과 꿈이 희미해져갔
다.

고민끝에 그는 직무이동을 청원하고말았다. 한
때 경멸했던《우리 나라의 지질계통에는 ㅂ광이
없다》는 주장앞에 슬프게도 머리를 끄덕이는 사
람으로 되고만것이다.

거기서 그는 패배감과 굴욕감을 그동안의 자연
탐사경험에 기초하여 하나의 론문을 집필하는것
으로 상사시켜버리리라 마음먹었다.

희망대로 지질연구소로 소환되게 된 그가 해별
에 탄 얼굴로 집에 나타났을 때 누구보다 기뻐한
것은 아버지였다.

《그래, 일이 잘되냐?》

아버지는 자기를 닮아 뼈대 굵고 틀지게 생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보며 여느때없이 오후 출근
시간까지 미루고 마주앉았다.

경호는 심중한 태도로 ㅂ광을 포기하지 않을수
없는 리유와 새로운 결심과 구상을 이야기했다.

《그럼 물려선단말이나.》

아들의 어깨에 얹혀있던 아버지의 손은 맥없이
떨어졌다.

《도망쳐온셈이구나. 응?!》

경호는 아버지의 심기변화를 눈치챘으나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할수도 없었다.

《어쩔수 없었습니다. 자연은 저희들의 의지와
희망에 따라 이루어진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땅에 없다고들 한 말이 우연한것이 아닙
니다.》

《허튼소리!》

아버지는 웅접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쯔해
보지 못한 격분이었다.

언젠가 종파들의 죄행을 말하다가 이처럼 웅접
탁을 내리치던것을 기억하는 경호는 몸을 움송그
려뜨렸다.

《그래 넌 우리 땅을 몇평이나 뚜져보구 그 타
령이나.》

경호는 기가 죽어들었으나 《도주자》로 보일

수는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 량심의 깨끗함만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아버지인 광석존재의 특수성을 아십니까? 사회법칙과 자연계의 법칙은 다릅니다. 아버지인 사회과학과 혁명은 알아도 자연과학은 모릅니다. 오묘한 지질계통의-》

《그만뒤라!》

아버지는 노엽에 차 부르짖으며 일어섰다.

《그래, 난 지질계통의 오묘함은 잘 모른다. 그러나 광석이란건 학문으로보다 마음을 바로 가져야 찾는다는것을 알고있다. 땅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가슴속 비밀을 헤쳐보인 단말이다. 옛날에 삼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은 미리 목욕제제를 하였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찾는다고 생각했던것이다. 예익, 이렇게 중도에서 물러선단말이나.

너는 찾겠다고, 찾을수 있다고 믿고 애쓰는 사람들앞에서 그리고 국가앞에서 배신자가 되었다.》

《아버지, 그건, 그건 너무합니다.

저도 나라에 뭔가 해놓으려고... 제나이 벌써 스물다섯이 아닙니까.》

《스물다섯?!》

아버지의 입술이 푸들푸들 떨렸다.

《나이가 아깝다. 네 나이때의 우리가 어떻게 길을 걸었는지 너는 모르지 않겠지... 제 이름 제 공명...?!

쓸개빠진너석! 그런 골통에서 나와야 빛이 나오며 그런 손에서 무슨 값진것이 찾아지겠니.

당장 돌아가라. 찾기전에는 아예 돌아오지 말라.》

아버지는 차를 타고 나가고말았다.

그날밤 경호는 아버지의 사무실에 갔다가 만다지 못하고 다시 그 먼 산골로 눈물을 머금고 떠났다. 어머니의 위안과 격려도 그 눈물을 잦아들게 할수 없었다. 걸음걸음에 고통이, 슬픔과 억울함이 있었다.

그는 이를 사려물고 ㅂ광을 찾아 산과 골짜기를 헤매었다. 때로 산벼랑을 뚫다가 굴러떨어졌을 때, 마치가 무드러지게 깨여본 돌이 막돌일 때는 원망에 차 부르짖었다.

《어데 있단말입니까? 어데? - 아버지는 너무합니다.》

그러다가도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간다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남못보는 단풍진 숲속에나 바위통에서 아버지가 넘려되어 울기도 하였다.

동무들은 그를 《땅크》라고 불렀다.

억척같은 그의 일본새를 두고 감탄했다. 허나 동무들은 그의 내심에서 울리고있는 눈물젖은 소리를 들을수 없었다.

《아버지, 난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산을 오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고 또 갈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혹시 어느 시각에라도 찾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어느날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위중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경호가 한달음에 집으로 가니 수심에 잠겨있던 어머니는 더없이 반겨주었다.

《네가... 잘 왔다. 글썄 아버지가 요 며칠전 퇴원해온 날에 네 사진첩을 놓고 보는것이 아니겠니. 내가 들어가니 슬며시 치우기는 하더라만, 내가 그리웠던게다. 이제 만나면 못찾는다는 소린 말고... 기분 상치 않게 잘 말씀드리거라.》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는 저으기 활기에 넘쳐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경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서성거리며 이제나 저체나 기다렸다. 그런데 자기를 찾는 소리는 없었다. 기리다못해 그는 아버지의 책상에 놓인 탁상일지를 뒤적거렸다. 집에서 얹으면서도 거의 매일 빠짐없이 한두줄씩 쓴 기록이 있었다. 기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월 ×일 기온 급행

수령님 초군 현지도... 령하 20도 이하시농어촌에 나가시는걸 금하도록 건의할것.

아버지의 방에서 갑자기 큰소리가 터져나왔다. 경호는 흠칫하며 체풀에 일어섰다. 조금 있어 어머니가 들어왔다. 애써 미소를 띠운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잠드셨다. ... 동성동누나네 집에 가서 며칠 ...쉬다 ...내려가려무나》

《어머니, 솔직히 말하십시오.》

경호는 엄숙한 기색으로 일어서며 어머니에게 마주갔다. 어머니는 자기보다 머리 한기장은 더 큰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서글프게 보았을뿐 아들을 응석반이로 만들었다고 개탄하며 더 시라소니가 되지 않게 돌려보내라고 한 아버지의 추상같은 말들을 옮길수 없었다.

눈물이 그렇그렇해지는 어머니를 보며 모든것을 알아차린 경호는 어금이를 지그시 깨물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숨가빠 말했다.

《어머니, 내 다신... 찾을 때까지 오지 않으렵니다.》

어머니는 경호의 단호한 결심을 말리지 못했다.

그대신 초조한 기색으로 아버지가 이즈음 경호의 책들을 본다는 이야기며 군수산업을 책임진 아버지로서 경호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을 루루이했다. 그러면서도 엄한 선고를 내린 아버지가 자식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할가봐 번민한다는것만은 차마 말하지 못했다.

경호는 조용히 돌아섰다. 동무들에게 주라고 꾸려주는 간식배낭을 둘러멘 그는 어머니를 문전에서 돌려세우고 홀로 마당으로 걸어나갔다. 차고의 대문빛장에 가랑잎 하나가 달라붙어있는것이 유난히도 눈을 찔렀다.

(차를 쓰지 않는구나. 출퇴근을 못하는지가 오

래다고 했지.)

울타리까지 이른 그는 그 어떤 충격에 걸음을 멈추며 얼핏 뒤돌아보았다. 순간 그는 아버지방의 창가림이 흔들리는것을 눈피여보았다. 푸른색 창가림뒤에는 장대한 그림자가 석상처럼 움직임 없이 서있었다. 그 그림자의 손이 창가림을 말아친채 창문을 의지하듯, 아니 창문을 밀어제낄 듯 뻗쳐있었다.

그러나 창문은 열리지 않았다.

경호는 찌르는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는 황황히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눈앞에서 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묻는듯한 질책하는듯한 피로운 눈길이 자기의 전체를 그려잡았다.

그러자 어린시절의 한 기억이 번개치듯한다.

인민반 2학년때던가. 아침에 깨어보니 마당엔 흰눈이 가득했지. 그날 학교마당청소는 경호네반에서 하게 되었다. 어른들이 쓰는 커다란 눈가래를 둘러멘 경호가 자랑스럽게 걸어나갈 때 바로 아버지는 저 방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소리쳤다.

《우리 경호가 제일이다.》

경호는 머리를 떨구고 걸음을 채우쳤다. 담장 밖을 나섰다.

이제는 보이지 않으리라.

한결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러나 쓸쓸함은, 아픔은 짜거운 눈물을 자아낸다. 제발 동네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데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다.

경호는 기다렸던듯 멈춰서며 돌아섰다. 헤엄치듯이 달려오는 흥분한 어머니였다.

그 빛나는 눈과 흥조비긴 어머니를 놀랍게 보며 경호는 가슴을 두근거렸다.

《저...》

어머니는 말을 떼고 숨을 토틀다가 빨간 비로도 천에 싼것을 두손받쳐 내밀었다.

《아버지가... 너더러 쓰라고 하더라.》

그것을 본 경호는 감전된듯 몸을 흠칫했다. 그것은 손전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아버지가 받은 선물이었다. 그 누구도 다칠념을 못하게 하던, 지어 전승기념관에서 찾아와 사적물로 낼수 없겠는가 하는 청도 거절하며 소중히 간직하던 전지였다. 경호는 아버지의 옷칠한 훈장통속에 있는 저 전지의 매력을 잘 아니مان치 선뜻 받아들일수 없었다.

저것은 단순한 전지가 아닌것이기때문이었다.

하나 경호는 전지를 받았다. 천근무게런듯 그 전지를 받아드는 순간 그는 끝내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그 전지를 가슴에 품고 차에 올라 멀어져가는 수도의 거리와 검누르게 피어오르는 화력발전소 굴뚝의 전한 연기를 바라볼 때 그는 이제 가면 다시 아버지를 못볼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불길한 생각에 소스라쳤다. 불호스러운 생각이라고

도리를 저었으나 그것은 짐질졌다. 번민어린 고뇌가 찾아왔다. 어린시절 아버지의 애무며 대학에 입학했을 때 기뻐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오직 선량하고 다정하기만 하던 모습이었다.

가방에 넣어진 대학교과서들을 일일이 펼쳐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미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나라의 지하자원개발에 대한 구상을 하셨다고 흥분하여 이야기하던것이 떠올랐다.

우리 나라는 어디나 은금보화의 땅이니 빈구석이 없이 다 찾아봐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의 말씀을 회고하며 본때있게 앞장서 해내라던 간절한 부탁은 생생한 기억속에 눈물을 자아냈다. 그러자 탐광을 포기하고 올라왔을 때 매질하듯하던 추상같은 질책도 따뜻한 충고로 되어 의미심장히 음미되었다.

경호는 언제나 전지를 가슴에 품고다녔다. 열화비닐로 꼼꼼 싼 전지를 언제 한번 켜든적은 없으나 그것이 감축될 때면 그는 갑절의 힘과 용기를 얻곤했다. 그리고 그 충격은 항시 깊은 가책과 잇닿아있었다. 그리고 가책이 너무 늦었다고 통탄했다.

얼마전 아버지의 병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어머니의 편지가 또 왔을 때 그는 찾아가지는 못해도 사죄의 긴 편지를 올릴가도 생각했다. 하나 그것으로 아버지의 노역을 풀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는 노역을 풀어주는데만 급급한 자식을 기대하는것이 아님을 알고있었다.

바로 이때에 경호네는 새로운 광상과 맞닥들었다.

비광을 손에 쥔 희망이 생겼던것이다.

그날을 앞당기려 그는 하루도 산에서 뜨지 않았다.

허나 그는 지금 비광을 손에 쥐지 못한채 급한 부름을 받고 떠나오는것이다.

무엇때문에?...

경호는 창박을 내다보며 이제 역에서 어머니의 수심어린 얼굴만 보여도 좋은 곳든 사태는 명백하리라고 생각했다.

차가 구내에 들어서자 경호는 창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웃음어린 근심없는 얼굴들이 얼얼얼얼 지나갔다. 아직 어머니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긴 이 많은 사람속에 있다 해도 어찌 찾으랴.

검은색 고급승용차가 멈춰서있는데서 기차가 멎었다.

경호는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문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문손잡이를 잡기도전에 손기척이 나고 문이 열렸다.

진회색 봄외투를 단정하게 입은 40대의 남자가 나타났다.

《김경호동무지요?》

매우 다급한 기색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갑시다.》

그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일하는 일군임을 밝혔

다.

경호는 어리뻑해 서있었다.

《짐은 없습니까?》

《없는데요.》

《그럼 됐습니다. 빨리 갑시다.》

그 서두르는 품에 끌려 경호는 사연을 물어볼 엄도 못하고 따라나갔다.

검은색 승용차는 그를 위해 와있었다.

경호가 얼떨떨한 상태에서 권하는대로 올라 폭신한 의자에 앉기 바쁘게 차는 총알처럼 내달렸다.

그때야 당중앙의 일군은 저우기 여유있는 표정을 짓고 가볍게 한숨을 지었다.

《저... 어디로 갑니까?》

경호의 물음에 고개를 돌린 그 일군의 얼굴은 무척 심란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무를 부르시었소.》

《네?!》

경호는 저도 모르게 일어서려다가 차안이라는 것을 알고 물러앉고말았다.

심장이 화드득 뛰었다. 엄청난 놀라움이 한동안 그의 사고를 마비시켰다.

그다음 몸차림을 살폈다.

온몸의 땀구멍이 다 열린듯 땀이 흘렀다.

《그런데 이 차림으로 어찌...》

고개를 돌린 일군의 눈빛도 그의 말을 긍정하는 듯 싶었다.

그러나 그 일군은 얼굴색을 흐린채 경호의 말을 막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무의 일차림 그대로 보고싶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수령님께서 분초를 재여가며 동무를 기다리고계시오... 어제밤...》 일군의 말소리는 갑자기 잦아들며 가늘게 떨렸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그대로 돌아서시여 온밤 주무시지 않고계시오.》

경호는 목구멍이 타드는것을 느꼈다.

(무엇때문일까, 수령님께서 주무시지 못하시다니!)

어릴적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환희에 차 들어서던 낮익은 정원을 알아보게 된 순간까지 이 생각은 집요하게 그의 의식을 괴롭혔다.

차는 저택 왼쪽 서리꽃이 하얗게 불린 정원초입에서 멈춰섰다.

정원등의 불빛이 희어져가는 새벽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키높은 은백양나무 밑에 두손을 뽕외투주머니에 깊숙이 찌르신채 서계셨다.

그 주변에는 무수한 발자국들이 찍혀져있었다. 같은 크기의 그 발자국은 멀리 직선으로 나가다가 되돌아오기도 하고 정원수들의 둘레를 따라 빙빙 원을 그리기도 하였다.

하많은 사색과 상념이 그 자국들에 고인듯싶었다.

경호는 차에서 내린 다음에도 인차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를 보실 때 그는 모든것을 잊고 내달았다. 사고와 감정의 전부로 되고있는 한없는 흥모의 정에 반들려 달려갔다.

《수령님 안녕하십니까.》

머리 숙인 경호를 바라보시는 수령님의 안색은 흐려들었다.

《네가!... 경호란말이지.》

조용히 뇌이시었다.

《네, 제가...》

수령님께서 그의 어깨를 두손으로 잡으시었다.

《몰라보게... 장사가 됐구나.》

경호의 억센 근육을 감촉하시며 수령님께서 칠월의 폭양과 엄동의 설한에 타고 거칠어진 청년의 얼굴을 대견스레 보시었다.

《장하다.》

밝은 미소가 순간이나마 수령님의 얼굴에 어리시었다.

《네가 이렇게 구리빛 얼굴이 되어 나타난걸 보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

《수령님! ... 제가 무엇이라고... 이런 새벽에...》

경호는 말끝을 잊지 못하였다.

수령님께서 피로운 빛으로 조용히 물으시었다.

《아버지 소식은 알고있느냐?》

《네-?》

경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온밤 자기를 괴롭히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된것만 같아 전신이 얼어들었다.

수령님께서 그의 어깨를 힘주어 끌어안으셨다.

《...아직은 일없다. 아직은...》

그럼 다음에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기에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신 수령님이시었다.

그이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전사인 김석의 삶은 서서히 꺼져가고있다. 아니 지금의 그의 생명은 분과 초로 계산되고있다.

어제밤 제철소구내의 사무실에서 그 보고를 받으셨을 때 놀라움은 얼마나 크셨던가. 밤중 수백리를 달려오서 주치의사의 상세한 설명속에 튀어나오던 불치의 병명을, 《악성이요》, 《급격팽창》이요라는 단어들을 얼마나 저주하셨던가.

어찌하여 생은 창조하되 죽음은 막을수 없단말인가. 어찌하여 인간의 의지는 이런 자연의 철리앞에 무력하단말인가. 의사는 죄송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령님, 환자의 생명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전투를 벌리고있습니다.》

《어느정도 얼마나 가능하오?》

수령님께서 간절한 기대를 안고 물어보시었다.

은발의 로의사는 머리를 숙이며 소독수에 너

무 썰겨 말갭게 보이는 손가락들을 맞잡아 비틀었다.

《이제 10~14시간을...》

《열네시간?!》

수령님께서서는 절절하게 뇌이시였다.

그 열네시간이 이제는 서너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매 초와 분이 수십년과 맞먹으면서도 또한 섬광처럼 지나가버릴듯싶은 시간이였다.

한초바빠 전사에게로 가고싶으시였다. 얼굴을 보고싶으셨다. 목소리도 듣고 손도 잡아보고싶으시였다.

하지만 참으시였다. 참으시면서 경호를 기다리셨다. 그 안타깝고 지루한 시간의 분초를 힘겹게 헤이시며 기다리셨다.

수령님께서서는 어깨가 후줄근히 처진채 울먹거리는 경호를 아픈 눈길로 보시며 천천히 말씀을 제시였다.

《난 지난밤 돌아오는길로 너의 아버지를 만나려다가... 그만두었다.

만나서 옛날이야기도 하고 일만 시킨데 대해서 랑해도 구하고싶었다. 그런데 내가 없다는것을, 네가 왜 오지 못했는지를 알았다.》

《수령님!》

경호는 어깨를 떨며 터져나오는 흐느낌을 참으려고 혀를 깨물었다.

그의 어깨를 쓰다듬는 수령님의 손길이 알릴듯 말듯 떨리시였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나. 100만 관동군을 이기고 미국놈들을 쳐부신 사람이 아니냐. 종파를 쳐놓힌 사람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지금 혁명이 한창 꽃을 피울 때에 자식때문에, 바로 너때문에 마음에 그들을 안고있다는것이 될말이나.》

《수령님!》

경호는 그만 흑-하고 울음을 터치며 수령님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새벽추위에 언 단추가 이마전에 선뜩하게 닿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기로 하여 이 새벽 정원에 이토록 오래 나와 계셨던것이다.

《수령님! 절 용서해주십시오. 저때문에... 그렇지만 수령님! 이제 꼭 찾겠습니다. 두달만, 아니 한달이면... 찾을수 있습니다. 그때면 아버지도 용서할것입니다.》

《한달?!》

수령님께서서는 나직이 뇌이시였다.

그러시고는 묵묵히 차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한달이라-》

다시 뇌이실 때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시였다. 고통어린 시선으로 경호를 보시였다.

《우리엔 그럴 여유시간이 없다. 그때면 늦는다.》

수령님께서서는 갈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광석이 꼭 기본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지금의 네 마음을 알면 기뻐하며 받아들이

것이다. 나랑 함께 어서... 가자》

경호는 수령님의 팔소매를 더욱 꼭 부여잡았다.

그것을 놓치면 영원한 파멸의 나락에 떨어질것.

수령님께서서는 차에 이르시자 경호를 신중한 눈길로 보시였다.

《경호야, ... 혹시 아버지를 원망하지야 않았겠지?》

《수령님.》

목구멍이 타드는듯한 속에서 경호는 수령님의 팔소매를 더욱 꼭 잡았다.

원망했던가, 안했던가 괴롭다.

문제는 늙으신 아버지를 노엽힌 그것으로 하여 수령님께 더욱 걱정을 끼쳐드렸다는것이다.

《처음엔...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랑일처럼 말라드는 혀를 느끼며 초조히, 안타까이 말씀올렸다.

《수령님, 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를 단순한 자식으로가 아니라 혁명가의 큰 사랑, 큰믿음으로 대한 아버지의 웅심깊은 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수령님의 안색은 심각하셨다.

수령님께서서는 차가 떠나 가루개를 넘어설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우의탑아래 아빠트마당에서 백발의 건장한 로인이 분명 손자인듯한 대여섯살난 아이를 목마하고 달리는것을 띄여보시고 혼자말씀으로 뇌이시였다.

《너희 아버지는 힘이 장사였지...》

동안을 두었다가 계속하시였다.

《한손으로 경기관총을 쏘았다.》

뛰여달리는 추억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두눈을 지그시 감으시였다. 애정속에 긍지속에 자신의 마음이 즐거이 가닿던 그 광막한 벌판과 수림을 그리시며 김석이와의 일들을 회억하시였다.

차는 고속도로 질주한다.

소음은 없다.

부드럽고 담담한 수령님의 음성이 차안을 가득 채우신다.

《의지 강하구... 자신에 대한 요구성이 높고... 항일무장투쟁에도 그랬지만 나는 1950년도 겨울 밤의 일을 잊을수 없다.

맥아더가 압록강에서 크리스마스를 맞겠다고 떠들 때였다. 사단을 끌고 연연 수백리의 포위진을 헤쳐 나를 찾아온 너희 아버지에게 나는 XX계선 방어를 맡기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때 너희 아버지가 오른팔에 파편 관통상을 입었다는것을 알았다. 동요하면서 나는 그를 불렀다. 한데 방에 들어온 그는 옷옷을 새것으로 갈아입었더라. 피배인 봉대감은 팔을 감춘것이다. 그 팔을 쳐들어 경례를 하였다. 혈로를 뚫고온 과정을 보고하는것이였다. 나는 그대로 보고를 받았다.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다. 부상을 아는척 할수 없었다. 너희 아버지가 바라는것이였기에...

나는 동요함이 없이 그를 ××계선 방어사령관으로 보냈다. 그런데 줄것이 없었다. 그나마 따라보낸 사령부담당 군의와 호위병들을 나에게 도로 돌려보냈다. 그대로 가지고 간것은 내가 준 손전지뿐이었지. 밤길이었으니까.》

《수령님!》

경호는 가슴이 격해져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지금 웃웃 안주머니에 품고있는 전지가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더 말을 할수 없었다.

수령님께서는 피로움에 휩싸여 계속 말씀하시였다.

《그때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어도 이처럼 빨리 건강을 상하지 않았겠는데… 하긴 전쟁이 끝나서 오늘까지도 제대로 쉬우지 못했지.》

《수령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처럼 수령님의 사랑과 배려를 많은 사람이 어데 있습니까.》

경호는 북받치는 격동을 주체못하였다. 수령님께서는 그의 무릎밖에 손을 얹으시였다.

《네가 나를 위안하는구나. 하긴 너도 다 자랐지…》

그 말씨는 오히려 경호에게 더 쓰린 아픔으로 받아들여졌다.

경호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다가 고개를 들었다.

《수령님,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은 수령님께서 찾아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건 <민생단> 얘기겠구나.》

《네, 저는 그 이야길 소년단에 입단하는 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혁명 박물관에 갔다오면서 이제 너두 어린 혁명가이니 알아야 할 사연이라고 얘기해주었습니다.》

《다우재언덕이었지.》

수령님께서는 나직이 뇌이시고는 차창가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반쯤 열어놓은 차창가로 밀려드는 찬바람을 받으며 그이께서는 그때의 고통과 기쁨을 다시금 체휼하시였다.

말라드는 행전에서 피여오르는 김발, 탁탁 소리내며 타는 화로불, 뚜껑이 펴터덕거리는 물주전자가 보이는듯싶었다.

그 화로불앞에서 피투성이 된 사람이 땅바닥을 치며 《장군님! 김석동지는 죽습니다.》라고 호곡같은 웨침을 터뜨리였다.

김석이가 《민생만》으로 체포되어 사형장에 끌려나가게 되었다는것이다.

그때 김석은 수령님의 반일민족통일전선방침을 받들고 별동대대장으로 사업하고있었다.

그가 《민생단》으로 된 리유인죽은 한 독립군부대의 요구에 따라 로획해두었던 몇자루의 총을 넘겨준때문이었다. 그 무기를 가지고 간 몇몇의 타락한 독립군대원들이 일본놈들에게 투항했던것이다.

김석은 공모자로 되었고 분석끝에 《민생단》으로 몰렸다. 그 감투를 씌운 혁명의 이색분자들은 장군님께서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시는것을 알고

한시바삐 사형하기로 결정했다. 김석은 자기와 함께 체포되어 사형장에 나가게 된 대원의 포승줄을 이발로 끊어 탈출시키고 자기는 그대로 남았다.

《나는 도망치지 않겠소. 나까지 없으면 놈들은 더욱 험한 소리들을 할것ियो. 난 죽어도 통일전선방침에 해를 미쳐선 안되오. 장군님을 만나 뵈오면 김석이가 일을 쓰게 못하고 죽어 죄송스럽다는것을 전해주오.》

탈출해온 대원은 김석이의 이 말까지 뇌이며

《장군님, 이를 어찌합니까?》하며 눈물을 콧속 쏟아냈다.

아, 그때의 수령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고 황급하셨던가.

차는 고개마루를 넘어서자 속도를 높였다.

차창으로 밀려드는 바람은 마치 그때 마상에 올라 질주하실 때 부딪치던 그 눈바람을 연상시켰었다.

그이께서는 눈벌판을 곧추 질러 말을 짓쳐몰으셨다. 칼날같은 바람이 뿜뿜 울부짖으며 이마를 치고 숨이 막혀드시게 하였다. 고삐를 잡아쥔 두 손은 열다못해 감각조차 없으시였다. 앞에는 40리길이 있었다.

《그는 죽는다.》

《그는 죽는다.》

바람소리, 말발굽소리는 부단히 그이를 재촉하였다.

수령님께서는 길을 질러 눈덮인 강우로 말을 모시였다. 간신히 뒤따라오는 경위대원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하는 간절한 목소리에도 아랑곳않으시고 그대로 말을 달리셨다.

말은 얼음강판에서 두번이나 넘어졌다. 그러나 그때마다 수령님께서는 기세차게 일어나시였다.

수령님께서 다우재언덕의 황철나무밑에 이르시였을 때는 김석이를 결박하고 보총수 다섯이 총대를 꼬나든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수령님께서는 다섯정의 보총과 김석의 사이를 가로질러 말을 모시였다.

은빛 성애가 어린 보총의 조성파 조문으로 김석이를 노려보던 보총수들은 이 뜻밖의 사태에 아연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동그란 흑점같은 그 총구들을 보시였다.

(몇분 아니 몇초만 늦어도…)

말이 앞발을 쳐들며 포효성을 울리자 구름같은 눈발이 일었다.

사형을 조직한 장본인들이 수령님께 다가와 열을 올려 김석의 죄명을 렴거했다. 하나 수령님께서는 그 소리들에 귀기울이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김석동무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아오. 내가 보증하겠소.》

수령님께서는 말에서 내리시여 천천히 황철나무로 다가가시였다.

김석은 거머게 변한 입술로 그저 《사령관동지!

사령관동지!》 하고 얼없이 뇌이며 울었다.

수령님께서도 김석이가 신발도 없이 벌건 맨발로 눈속에 서있는것을 보시고 주먹을 짝 부르짖었다.

번개가 이는 눈길로 사형리들을 쏘보시던 수령님께서도 손칼을 꺼내시여 김석의 포승줄을 단번에 잘라버리시었다.

그러시고는 분함을 참지 못하시여 웨치시었다.

《비겁하단말이야 김석이! 그래 어떻게 자기 이름을 그렇게 더럽히는가. 그래 <민생단>의 이름으로 과연 순순히 죽을수 있단말인가 웅!》

《… !…》

《어째서?... 어째서 내 지시라고 하지 않았소, 그랬으면 이렇게 가슴태우는 일까진 없었을것이 아니요.》

《사령관동지! 그건... 그건 안됩니다. 그건 사령관동지의 성함에 루를 입히는것입니다. 죽어도 열번 죽어도 전... 그럴수 없습니다. 우리 혁명군의 인간도리를 제가 어찌 어길수 있습니까.》

장대한 체구의 사내는 온몸을 떨며 소리쳤다.

수령님의 눈빛은 흐려지었다.

《김석이! 동무네가 있어야 내가 있는것이야. 동무네가 없으면 내가 무엇이고 동무네의 죽음으로 내 이름이 빛나 쫄하는가 웅?!》

《사령관동지!》

연물같은 눈물이 수령님의 언손에 푹푹 떨어졌다,

그때 김석이를 품에 껴안으신 수령님께서도 온 세계를 얻은듯한 기쁨에 취하시었다. 그때의 그 바위같은 어깨, 청춘의 힘과 재생의 환희로 세차던 근육의 드센 파동은 지금도 생생하다.

《동지들은 나를, 나는 전사들을 위해!- 이래서 우리 혁명이 굳건한것이지.》

수령님께서 조용히 혼자말씀으로 뇌이실 때 경호 역시 그런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를 회상하며 매번 말하곤하던, 수령님이 아니시면 우리 혁명이 없었을것이라고 한 말을 소리높이 웨치고싶었다. 가슴이 벅찼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도 앞창밑에 붙은 시계에 눈길을 주시고 한참이나 보고계시었다. 시계의 초침은 파들과들 떨며 분주스럽게 초조히 돌아갔다.

그이께서는 그 시계를 외면하시더니 문득 경호를 향해 심각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우리 혁명은 혈연적의리로 맺어진 그 일심단결의 힘으로 승리하는것이다. 그것은 위업수행에 대한 충실성에서 오는것이다. 한 전사가 쓰러지면 다른 전사가, 그 전사가 쓰러지면 또 다른 전사가, 이렇게 우리의 전선은 죽지 않는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거기서 자기의 위치를 빛나게 지켰다. 그는 의무를 수행했으며 남에게 요구할수있는 권리를 자기의 피로써 얻었다. 한생을 혁명을 위해, 너희를 위해 싸운 사람이 제자식이 혁명의 대를 이어받을 계승자로 떳떳이 준비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 참된 위업, 참된 녀은 응당 대를 이어 심어지고 꽃이

피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네가 그 녀을 이어받지 못한다면 김석은 아버지라는 의미에서는 비극을 느낄것이다.

공산주의자는 개인적인 죽음은 두려워 안하지만 이것은 두려워한다.

바로 그때문에 아버지는 요구하며 성을 내며 쫓아내기까지 한것이다. 늘그막에 자식은 지팽이요, 삶의 빛이라고 한단다.

아버지가 너에게서 바라는것이 무엇이나. 그것은 네가 아버지처럼 되는것이다.

거기에 너희 아버지의 영생이 있다.

이것은 또한 혁명의 대를 잇는 계승성문제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색깊은 안광에는 열정어린 위엄과 타올르는 흥분이 담겨있었다.

그이께서는 강개한 어조로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또 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없으면 안되는것이야.》

《수령님!》

경호는 승엄한 충격속에 몸가짐을 바로하였다.

웃웃 안주머니에 손을 밀어넣었다. 기거에는 수령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전지가 있는것이다. 자기로도 무엇때문인지 의식못하며 비닐로 뽁뽁싼 그 전지를 꺼내었다. 두손에 받쳐들고 울먹거리며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 아버지에게 선물하셨던 그 전지입니다. 이 귀중한 전지를 아버지는... 저에게 주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담긴 이 전지를!

그 뜻을 그때는 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수령님! 저는 지금 똑바로 깨달았습니다.》

수령님께서 아무런 말씀없이 전지를 받아드렸다. 놀람어린 표정이시었다.

손수 비닐을 벗기시고 비로도천을 푸시었다.

파란색 세루로이드로 만든 전지, 메뚜기등처럼 도드라진 밀개를 미시자 엷은 빛이 방긋 비껴나왔다.

수령님의 얼굴에 감회어린 미소가 순간적으로 비껴다가 사라졌다. 묵묵히 전지를 보고만 계셨다.

그러다가 비로도천으로 다시 감으시며 경호에게 내어미시었다.

갈린 음성으로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아버지를 뵈거든 도루... 드리거라.》

하얀 붓나무며 대곶은 수삼나무들이 총총히 어울려선속에 초록색지붕이 드러나고 붉은 카텐을 내린 창문이며 둥근 대리석기둥이 보였다.

그러나 그 색깔과 형태는 경호에게서 한동안만 존재하였다. 뿌연 안개의 막이 눈앞을 가리웠다.

한달전에 받은 어머니의 편지구절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수령님께서도 우리 인민들이 수령님께서 한 시라도 편히 쉬시기를 위하여 지어드린 집을 너

희 아버지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나도 이 별장에 와있단다. …》

…수행원이 문을 열어드리려 하자 수령님께서 한손을 들어 제지하시였다.

빠끔히 열린 문틈으로 다급한 소삭임들이 튀어나왔다.

《산소호흡기는 그만두시오. 캄파! … 아니 왜그럽니까?》

《필요없소… 난 정신도 맑고… 다 좋소. 빨리 일켜주소.》

이 목소리에 이제껏 수령님의 뒤를 주춤주춤 따라오던 경호는 몸을 흠칫하였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과연 저렇게 가냘프게 들린단말인가.

《아니 일어나면 안됩니다.》

《일켜달라는데두. 자, 응?!》

경호는 입술이 타다는것만 같았다.

이 순간 수령님께서 문손잡이를 잡으시고 문을 당기시였다.

경호는 저도 모르게 한 장령의 뒤에 몸을 숨기였다. 가슴이 왈랑거렸다. 죄진 눈길로 문손잡이와 근복팔소매사이로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보라빛 휘장을 드리운 벽가에 놓인 커다란 침대, 그 침대에서 두 위생복의 부족을 받으며 눈이 그대로 등불처럼 환해진 사람이 온몸을 떨며 일어나고있었다.

두드러진 팽대뼈, 눈섭오리, 눈가에 빗살처럼 뻗어간 주름살, 종이장처럼 하얀 얼굴.

《아버지.》

마음속으로 소리쳐부르며 경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찰나의 이 시각, 아버지의 눈섭오리가 떨며 등불같은 눈이 그늘진 런곳처럼 변하고 조갈든 입술이 반쯤 벌려지는것을 두려움게 보았다.

《수령님!》

벽찬 환희와 슬픔이, 커다란 감격과 애절함이 함께 담긴 목소리가 실날같이 흘러나왔다.

경호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이런 흥분이 이제 울음으로 폭발될가봐 고개를 떨구었다.

숨막힐듯한 몇초의 정적.

《김석이, 일어나려면 혼자 일어나야지…》

방안이 찌렁찌렁 울렸다.

격한 발자국소리.

《수령님께서 권하시는 의자를 밀어놓으시고 김석의 침대에 앉으시며 환자의 어깨를 잡으시였다.

김석의 얼굴에 떠돌던 눈물의 구름장은 가셔졌다. 침침히 흐려들던 눈이 생기롭게 빛나고 익살 어린 웃음까지 비겼다. 수령님께서 그의 어깨를 그대로 껴안으시여 바로눌려주시였다.

그리고는 마치 어린애를 다루듯 두손을 잡아 가슴우에 포개엿어주시였다.

《일어나면 처벌을 주겠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만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일어나려고 하느라 전신의 마지막 힘까지 다

소비해버린 김석은 수령님의 손을 더듬어잡아 자기의 가슴우에 당겨놓고 마치 어린애같은 천진스런 미소를 띠우며 수령님을 우러러보았다.

《수령님!… 글썸… 다른 뎡 저혼자도 일어났는데… 이동무들이 괜히 돕는 수고를 했습니다. 하긴…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려면… 좀 말쑤 때가 있습니다. 스무살적하고는 다릅니다.》

《웁소. 젊을 때와는 좀 다르지.》

수령님께서 김석의 변명을 그대로 믿으시는 듯 혼연히 말씀하시였다.

경호는 흐느낌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손수건으로 입을 막은 어머니가 눈에 띄였다. 경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 하니 자기의 입에서 터져나오려던 흐느낌을 참을수 있었다.

《…들어가…인사를… 하-렴.》

경호의 의지에 힘을 얻은 어머니가 목잠긴 소리로 속삭였다.

하나 경호는 그소리에 소스라치듯 고개를 저었다.

수령님과 전사와 마지막 상봉, 가장 숭고하고 고결한 애정이 흘러가는 공간속에 자기의 그림자가 끼여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그는 이 순간에 자기를 타매하는 새로운 가책의 표식물들을 띠여보았다.

침대 맞은편벽에 그전날 자기의 방에 걸어두었던 광물분포도가 걸려있었고 침대옆상탁에는 《광물편람》, 《광상학》, 《지사학》, 《광물사전》 등이 쌓여있었다.

림종직전에 이른 아버지가 광물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사회과학과 혁명은 알라도 자연과학은 모릅니다.》라고 한 아들의 공격앞에 방조의 길을 찾으려 모색하며 자식을 용서할 시각이 빨리 오기를 바라서 모지름 쓴것이다. 그로 하여 병이 더 심해지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하랴.

(나는 죄인이다. 아버지앞에서만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 앞에서 죄를 진 사람이다.)

여전히 아버지의 손을 잡으신채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피곳 광물분포도와 책들에 시선을 주시였다. 하염없는 기쁨에 취해 수령님만을 우러러 보던 아버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었다가 사라졌다.

순간이었다.

경호는 공포를 가지고 그 광경을 보았다. 문득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궁색스런 미소를 지으며 수령님을 살폈다.

《수령님, 제가 요즘 편안하다보니 책도 좀 봅니다. 그리고 지나온 날을 두고 총화도 좀 지어봤습니다.》

《동무가 만든 제의서를 보았소.》

《그동안 제가 못한 일들을 적었을뿐입니다.》

《고맙게 보았소. 동무는 오늘이 아니라 먼 래일의 사업까지 생각했더구만.》

《수령님!》

아버지의 목소리는 고요히 떨리며 울었다. 그는 수령님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사무치게 애틋한 정이 굽이치는 눈길로 수령님을 우러러보았다.

눈곱에 고이는 이슬사이로 비쳐나오는 행복한 웃음을 수령님께서서는 아프게 보시었다. 슬며시 눈길을 돌리시고 손만을 마주 꼭 잡으시었다. 그 손을 통해 수령님께서서는 언어로는 다 못전하는 심장의 속삭임을, 어제와 오늘과 래일의 공간속에 차고 넘치는 친위전사의 뜨거운 속삭임을 들으셨다. 이미 열과 힘을 잃은 손이었지만 수령님께서 그 거칠고 찬 피부밑에서 뿜어내는 기쁨과 함께 삶의 보람에 대한 희열을 느끼시었다.

그런데 갑자기 김석의 손이 바르르 떨렸다. 수령님께서서는 놀람에 차 그의 얼굴을 보시니 김석은 예리한 칼날에 찔리운듯 얼굴을 이지러뜨렸다. 황황히 타는 눈이 문쪽을 엄하게 보고있었다. 그 커다랗게 뜬 눈에서는 원망과 노염의 불꽃이 튀었다. 숨결마저 거칠어졌다.

《웬일이요? 김석이.》

《수령님. 제가 가정교육을 잘못해서 자식 하나 툭바로 못키웠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아, 경호때문이지?》

《수령님, 면목이 없습니다.》

두번째의 타격이 경호를 얼굴 때 엄하나 부드러운 목소리가 고막을 울렸다.

《경호는 내가 데려왔소.》

경호는 숨을 멈추었다. 모든 움직임이 멎어버리고 팽팽한 공기를 짓누르며 정적이 무겁게 사리였다.

《경호!》

수령님께서서는 부르셨다. 경호는 어머니가 밀어주고 사람들이 길을 터워주는것을 보며 그 어떤 힘에 끌리듯 주춤주춤 나갔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얼굴도 들지 못한채 문가에 우두커니 섰다.

《왜 그러고만 섰느냐, 와서 인사를 해야지.》

근엄하면서도 명쾌한 말썬에 부축되어 몇발자국 더 나갔으나 아버지가 자기의 시선을 피하는것을 보고 더 다가가지 못했다.

수령님의 안색이 신중하게 변하시었다.

《김석이!》

격하게 부르시었다.

그리고 단호하신 태도로 말썬을 이으시었다.

《경호는 ㅂㅈ을 찾았소!》

방안의 공기가 일시에 변하는듯, 경호는 놀람에 차 꿈속인양 수령님을 우러러보았다.

우렁우렁한 음성이 심장의 박동을 높이며 울렸다.

《경호는 ㅂㅈ을 찾는 길이 단순히 광석만을 찾는 길이 아님을 잘 알고있었소. 혁명적량심을 갖고 아버지의 대를 잇는것이 무엇임을 잘 아는 경

호요. 그는 오늘 동무를 걱정하여, 나를 걱정하여 울었소.

경호는 혁명의 피줄을 믿음직하게 이어갈 계승자로 튼튼히 자랐소.》

경호를 떳떳한 후계자로 아버지앞에 내세워주시는것이다. 경호의 볼로는 소리없이 눈물이 줄져내렸다. 팔소매로 닦았다. 부끄러움도 잊었다.

경호는 누군가 어깨를 다치는것을 느끼며 한걸음 두걸음 걸어나갔다. 그는 아버지의 곁 침대옆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

경호는 조용히 불렀다.

아버지의 눈이 처음으로 그의 모습을 찬찬히 어루쓰다듬었다.

고산지대의 차디찬 눈바람에 트고 거칠어진 얼굴, 산마루의 화톳불과 덩불과 돌가루에 남아버린 누런 작업복을 더없는 긍지와 사랑으로 보았다.

《않지는 않았니?》

《네- 아버지!》

폭풍우는 멎었다.

무서운 해일을 일으켜 방파제를 무너뜨리고 산더미같은 파도와 폭음으로 세차던 폭풍우가 사라지면 그 나머지 잔파도와 소음은 멀리 수평선으로 사라지고 물속에 잠긴 바위는 영원한 안정을 즐긴다 경호가 그 바위였다.

몇초동안을 김석은 줄곧 아들만 보았다.

그의 사색과 감정의 길가에는 언제나 아들이 있었다. 배덕한 모습이 거기에 비길 때면 가슴엔 노도가 일고 방파제를 두드리는 파도처럼 심장을 아프게, 아프게 울려주곤했다. 하여 때로 아들을 잊려고도 해보았으나 해빛이 비쳐드는 물속의 바위같은 아들을 잊을래야 잊을길 없었다.

《아버지!》

경호가 떨리는 음성으로 불렀다. 그의 손에는 비로도천을 벗긴 전지가 들려있었다.

김석은 어찌된 일인가 하는듯 아들을 보다가 경호의 시선을 따라 수령님의 안색을 살폈다.

수령님께서서는 미소를 띠우시었다.

《내 생각에도 이젠 동무가 그걸 전사했으면 하오.》

《수령님!》

김석은 크게 숨을 들이그으며 눈을 감았다. 눈꺼풀이 떨리며 꺼진 눈확에서 맑은 구슬같은것이 하나둘 굴러내렸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손에 쥐인 전지를 접도록 보다가 입술을 움직였다. 《수령님께서 아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격동으로 떨리는 입술은 자기 마음을 그대로 정확한 음절로 만들수 없었다.

그 입술과 눈빛은 강렬히 웨쳤다.

수령님의 사상이 아들을 바른 길로 이끌었고

수령님의 사랑이 것처럼 바라고 기대하던 《아들》을 찾아주신 것이다. 이제는 조그마한 여한도 유감도 없다.

나예겐 당당한 아들이, 제2의 김석이가 있는 것이다.

나래치는 상념은 김석이를 환희의 극점으로 이끌었다.

이때 수령님께서 창밖을 보시었다. 김석이의 눈물을 제대로 보시기 힘겨우셨던 것이다.

두마리의 새매가 나무숲우를 빙빙 돌아갔다. 방금까지 아침맞이 노래를 부르던 메새들이 간곳 없이 사라졌다.

수령님께서 그 새매를 보시면서 동시에 김석의 심중을, 그 흐려진 눈과 떨리는 입술을 생생히 느끼고계셨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운명적인 화해장면을 그대로 보기 기쁘시면서도 피로움기도 하시었다. 행복한 피로움이라고 할지, 아니 고통어린 기쁨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수령님께서 자신께서 이제 돌아서시면 꼭 눈물을 보이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는 그대로 서있기도 힘겨우셨다.

《김석이, 총을 쏠수 있소?》

《총알입니까? 총을? … 쏘겠습니다. 쏠수 있습니다.》

김석은 갑자기 신접한 사람처럼 활기에 넘쳤다.

《저 밖에 매를 쏘맞힐수 있소?》

《쏠수 있습니다.》

경호는 어리뻑해 아버지를 보았다.

《애 가서 령총을 가져오너라.》

김석은 갱소년한듯한 기세였다.

경호는 아연하였다. 아버지가 제일 즐기는 것이 사격임을 잘 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상태에서 총을 쏠수 있단말인가.

과연 아버지를 림종직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어서!》

거듭되는 재촉에 당황한 경호는 수령님을 보았다. 수령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이 순간 경호의 뇌리에는 어린시절 아버지가 낚시질에 데려가겠다는바람에 낚시대며 미끼통을 들고 뛰어다니던 일이 선히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수령님께서 그때의 기쁨을 재생시키려 총에 대한 말씀을 꺼내신듯만싶었다.

경호는 발이 땅에 닿는지마는 모르며 문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짹짹한 눈물을 입으로 삼키며 중얼거렸다.

《수령님께서 계시는데 아버지가 왜 죽어. 안죽어! 안죽어!》

경호의 어머니가 쌍신림총을 걸레로 문대며 마주왔다. 경호의 어머니의 얼굴에도 자기의 생

각과 같은 빛이 넘쳐흐름을 보았다.

수령님께서 경호에게서 총을 받아드시고 격발기를 열고 총을 들여다보시었다.

《한번도 안짜봤구만.》

《예. 수령님을 모시고 함께 사냥을 했으면...》

《그래-》

수령님께서 총을 보시는데만 전념하신듯하시었다.

《이대로는 쏠수 없군. 기름은 안벗겼구 녹두있구. 그러니 이걸 다 닦은 다음... 후에 가야지.》

그이께서는 태연한 빛을 띠우려 애쓰시며 경호에게 총을 넘겨주셨다.

그러나 더는 자신을 건잡지 못하시며 김석의 손목을 꼭 잡으시고 마디마디 정에 꿰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늘 바쁘다고 내가 동무를 변변히 못쉬웠어. 이제 병이 쑥 나오면 나하고... 물오리사냥을 가자구 응?》

《수령님, 정말입니까?!...》

김석은 환희에 차 뇌이고 계속했다.

《가셔야 합니다. 수령님은 꼭 가셔야 합니다.》

우린 자주 쉬는데 수령님께서 언제 한번 쉬셨습니다. 물오리사냥을 가서 꼭 쉬십시오. 간절한 부탁드립니다.》

《김석이!》

천만산악이 허물어져도 끄떡않는 그의 태연이 사라졌다.

김석은 한없는 감사의 념에 사무친 눈길로 수령님을 우르르다가 보물진 입술을 혀로 감빨고 마다마디 떼며 속삭였다.

《수령님, 전 지금 다우재언덕을 생각합니다.》

《다우재! ... 나도 오늘새벽 그 언덕을 보았소. 경호도 그 말을 했소.》

《그때 사령관동지께서 1분만 늦으셨어도 전 죽었습니다.》

《김석이!》

《수령님, 전 죽지 않습니다. 수령님께서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왜 죽겠습니까. 전... 절대 안죽습니다.》

그렇다, 죽지 않는다.

이 순간 경호는 현실이런듯 다우재언덕을 보았다.

결박당한 아버지와 함께 서서 눈고개를 일쿠며 달려오시는 수령님을 보았다. 눈물속에서 재생의 삶을 안고오시는 말발굽소리를, 수령님의 땀 흐르시는 얼굴을 보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빛내주시는 귀한 삶을 축복하라.

잊지 못할 나날을 회고하여

박세영

가없이 맑고푸른 9월의 하늘에 람홍색공화국기 발이 휘날리고 보통강기슭 유보도로 사람들의 꽃물결이 흘러가는것을 보는 나의 가슴은 한없는 격동으로 하여 높인다.

머리에 백발이 없히고 이제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한없이 따사로운 은정속에 여생의 나날을 창작적열정속에 살고있는 몸이지만 창건 35돐을 맞는 주체조국의 뜨거운 숨결속에 나의 젊음도 간직되어있다.

생각하면 내가 살아온 세월의 갈피마다엔 어제런듯 눈에 삼삼한 잊지 못할 추억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암흑의 땅 남조선에서 사선을 헤치고 넘어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던 그 순간이 가장 인상깊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내가 처음 만나뵈운 것은 1946년 6월 27일이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의 부름심을 받고 그이께서 계시는 청사로 갔었다.

내가 어느 한 방에 들어가 기다리고있는데 잠시후 문이 열리면서 키가 후리후리한 젊은분이 나오셨다.

나는 그이께서 누구인지 몰라 다만 경건한 자세를 가졌을뿐이였다.

그런데 그분은 내앞으로 오시더니 《**김일성**이올시다.》 하고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이분이 바로 **김일성** 장군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천리길을 주름잡으시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일제침략자들의 머리에 불벼락을 안긴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 장군님이시구나!

일제교형리들의 횡포무도한 박해와 천대속에서도 오직 그분을 기동처럼 믿고 살아오지 않았던가!)

나는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수령님께 인사를 정중히 드렸다.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나의 눈앞에는 지난날 나라잃은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원한의 피눈물을 씻던 그 나날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것을 말없이 삼키였다.

지금도 뼈에 사무쳐 잊을래야 잊을길이 없는 원한의 그날!

강도 일제침략자들에게 우리 나라가 완전히 식

민지로 먹히웠던 치욕의 그날을 어찌 잊을수가 있으랴!

리완용을 비롯한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을 강압하여 《한일합병》의 조약문건이 조인되였을 때 서울장안을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은 울음 바다로 변하였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시일야 방성대곡》이였다.

나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그날의 뼈와 살을 굽어내리던 그 설음, 그 원한을 풀어줄 위인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우리 민족의 천추에 사무친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광복된 조국을 안고오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태양을 우러르는 나의 가슴속은 무한한 행복과 긍지로 하여 한없이 부풀어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멀리에서 오기에 고생을 했겠다고 하시면서 생활형편을 차근차근 물어주시였다.

나는 남조선에서 체험한 일들과 나의 생활형편을 빠짐없이 말씀드리였다.

내가 올리는 말씀을 듣고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시 조성된 조국의 정세와 우리 민족문화예술 발전전망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처럼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품속에 안겨 귀중한 가르침을 받는 영광을 지닌 나의 머리속에는 어제날 암흑속에서 피의 절구속에 모대기며 불려보던 조국이란 바로 사람들에게 참된 삶을 안겨주는 은혜로운 태양의 품이라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

태양이 없이 참된 삶이 있을수 없듯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떠나 조국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의 창건으로 조선인민은 쓰라린 망국노의 운명에서 영원히 벗어나 떳떳한 독립국가의 기치밑에 새로운 력사무대에 등장하였으며 오래동안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은 세계의 대소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진정 어버이수령님의 품, 근로인민대중의 행복이 꽃피어나는 사랑의 해빛아래서만 나의 창작적열정은 마음껏 나래 펼수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나와 가족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었으며 온갖 육친적사랑을 다 안겨주시었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은정을 받아안으며 감격에 목메이던 그 나날 우리들이 글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친히 가르쳐주시었고 창작과정에서 걸린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었다.

1946년 가을이었다고 생각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또다시 받은 나와 다른 작가들은 그이를 만나뵈우러 갔었다.

우리들이 도착한것을 보시고 반가이 맞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이 부를 노래에 대하여 의논해보려고 불렀다 하시면서 속히 애국가를 지어 불러야겠다고 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침략자들로부터 해방된 우리 인민들은 나라의 주인이되어 자유롭게 일하고있으며 자기 손으로 정권을 세우고 민족문화를 건설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나라를 찾은 인민이 부를 애국가를 곧 써야겠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는 애국가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상세히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를 받아안고 돌아온 나의 다른 작가들은 흥분된 마음으로 붓을 들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노래를 쓰기에 힘썼으나 막상 써놓고 보면 그이의 교대한 뜻이 담기지 못하고 박력이 없어 애를 태우곤하였다.

어어간 반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나 나는 세상에 노래를 내놓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수많은 항일혁명투쟁참가자들을 찾아가 이야기도 들었고 조국의 숨결을 더듬

기 위하여 불꽃튀는 건설장과 전야에도 달려갔다.

이렇게 고심하여 애국가의 가사를 만들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오늘 부르는 기사로 되기까지는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지도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졌던것이다.

1947년 6월 북조선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애국가가 심의되었다.

그때 그이께서는 가사 한구절한구절을 짚어가시며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그리고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이란 시행부터 그아래는 반복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르면 선률로 보아서도 더 효과적이고 음악상 조화도 잘될뿐아니라 노래도 한결 장중해지고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궁지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고 교시하시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어느 작가, 작곡가들도 미처 생각지 못하였던 그런 점마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오늘 세계 만방에 주체조국의 찬란한 빛발을 뿌리며 장중히 울려퍼지는 애국가는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아래서 태여날수가 있었다.

9월의 맑은 하늘아래 펄럭이는 람홍색공화국기발과 함께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는 애국가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의 가슴은 30여년 전 그날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따라 나아가는 주체조국의 공민된 영예로 마음은 한없이 설레인다.

나에게 이런 행복, 이런 영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우러러 영원히 노래하고싶은 심정이 언제나 내 가슴속에 고이여 마를줄 모른다.

가사

해와 별 빛나 젊어지는 내 나라

박미성

따사론 해빛을 안고서 빛나는 이 강산은
찬란한 별빛이 넘치여 희망찬 나의 조국
은혜론 해와 별 조선에 높이 솟아
산천도 사람들도 청춘을 노래하네

계절을 따르던 꽃들도 사시절 피어나고
뗏었던 심장도 고동쳐 새살을 노래하네
은혜론 해와 별 조선에 높이 솟아
젊어지는 내 나라 천만년 살고싶네

꽃을 키우는 마음

배미옥

해가 솟았다.

싱그러운 물안개를 싣고 산기슭을 에돌아 유유히 흐르던 자옥한 젖빛안개는 실실히 늘어진 수양버들숲속에 잦아드고 쉬임없이 조잘대던 산개울물의 속삭임도 산새들의 경쾌한 지저귐에 어울려 아름다운 경음악을 연주하는듯 산골의 그윽한 정취를 자아낸다.

달콤한 새벽잠에 취한 어린것들을 깨울세라 조용히 문을 닫고나와 상쾌한 아침공기를 마음껏 들이킨 나는 반짝이는 아침이슬에 치마자락을 적시며 한적한 산길을 거닐었다. 귀국한후에 처음 찾아온 묘향산의 이 아침을 깊은 잠속에 흘려보내기 아쉬워...

가을의 풍취를 한껏 돋구어 활짝 들국화꽃잎마다에 소복이 담긴 진주같은 이슬에서 조국의 푸른 하늘을 안아보고싶어도 그 진귀한 수정구슬을 깨뜨릴가봐 발걸음을 멈추고 고기떼 노니는 잔잔한 산개울물에 자기의 모습을 비쳐보며 청신한 그 물결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싶어도 티없이 맑은 물을 흐리울가봐 아쉬워하는 마음, 철없는 망아지처럼 노란꽃 다복다복 핀 잔디밭우를 맨발로 힘껏 달려보고싶어도 사랑스런 풀잎들을 밟을가봐 저어하며 발걸음도 가벼이 오고가는 묘향산기슭의 오솔길.

아! 얼마나 그림던 조국의 아침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우리 조국처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는 드문것입니다. 산천은 아름답고 땅은 기름져 오곡백과 무르익고 땅속에 금은보화 가득찬 나라, 슬기롭고 용감하고 문명한 인민이 사는 나라,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중한 조국입니까!》

머리를 들고보니 걷혀지는 안개속에 두둥실 떠서 웅장화려한 그 자태를 자랑하는 국제친선전람관이 망망대해에 솟아오르는 신기루마냥 황홀경을 자아내는데 향기로운 미풍에 실리어 은은히 들리는 보현사 13층돌탑의 청아한 방울소리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 옛이야기를 련상케 하는가?

해질무렵 마을앞 늙은 백양나무그늘밑에서 모기불냄새에 끄울은 할머니의 치마자락에 머리를 묻고 들어오던 신기로운 옛이야기, 묘향산이 너무 아름다와 수정궁의 어머니를 하직하고 목동을 찾아와 만폭동 팔담못가에 초가삼간 집을 짓

고 백년해로하였다던 전설속의 룡녀가 만자천홍으로 단풍든 산골짜기속에서 안개를 타고 걸어 나오듯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어린시절부터 귀에 익게 들어오던 묘향산의 모습이건만 실로 놀라움과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착잡한 생각에 잠기어 걸음을 재촉하다보니 어느덧 상원암으로 뻗은 갈림길에 이르렀다. 머리를 들고보니 하늘을 가리운 나무들사이로 손바닥만큼한 쪽빛하늘이 보이는데 《조르롱, 빗쭉, 조르롱.》하고 노래하며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포롱포롱 넘나드는 이름모를 산새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들인다.

(오늘은 내가 제일 먼저 왔을거야. 한시간이나 일찍 나왔으니까...)

머칠동안 아침산책의 길에서 만나곤하던 체육단복을 입은 대학생들과 비겨보며 나는 빙긋 웃었다. 울긋불긋 혈기편 얼굴마다에 청춘의 희열이 넘쳐흐르는 서글픈 청춘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나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부질없는 생각을 털어버리려고 가슴을 쭉 펴고 긴숨을 들이그었다. 천태만상을 이룬 기묘한 산천, 맑고 싱그러운 공기, 유쾌한 산새들의 지저귐소리... 바로 이 모든것들이 나의 끝없는 행복을 축복해주는듯싶어 마음은 벅차올랐다.

《영애, 인젠 돌아가지. 학교에 가야지.》

《음, 자, 물통...》

돌연 아침정적을 깨뜨리는 쟁쟁한 말소리에 나는 문득 생각에서 깨어나 걸음을 멈췄다.

(아니, 누가 벌써 나왔을가? 그것도 처녀애들이... 아니, 그럴수 없어.)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소리의 임자를 찾아 여기저기 눈길을 둘러살피던 나는 국화꽃속에 몸을 감춘 자그마한 처녀애들을 발견했다.

《아니, 이 산천에 선녀들이 내린다더니...》

두 애는 순식간에 눈앞에 다가왔다.

까만 머리는 아침이슬에 함초롬히 젖어있었고 눈이 부시게 흰 적삼에 파란 치마를 받쳐입은 두 처녀애는 열뉘서너살쯤 됴죽한데 앞가슴에 팔랑이는 붉은넥타이가 류달리 눈에 띄었다.

《애들아, 이 새벽에 여기서 뭘하니?》

《우린 꽃을 가꾸요.》

앞에 선 깜장눈 처녀애가 길옆에 핀 국화꽃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레 말했다. 그제야 나는 그들의 손에 쥐여진 자그마한 비닐물통과 귀가 토

끼귀처럼 삐죽 나온 작은 호미를 알아보았다.
《아니, 그까짓 국화야 제절로 피지 않으리...》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 시답지 않게 말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꽃은 정성껏 가꾸야 곱게 핀대요. 언젠가 여기에 오셨던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이 길에 핀 국화꽃을 보시고 것처럼 기뻐하셨대요. 이제 이 꽃들이 더 곱게 더 많이 피면 아버지 원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말을 마친 귀여운 처녀애는 앵두같은 두 입술을 방긋 벌리고 생긋 웃는 것이었다.

(아, 국화꽃, 산길에 저절로 핀 꽃인줄만 알고 무심히 지나쳤던 그 꽃송이에 이처럼 지극한 정성들이 깃들어 있었구나!)

나의 가슴은 삼시에 거세찬 전류에 닿은 듯 찌르르해났다. 뚫어오르는 격정을 한가슴에 안고 복스럽게 피어나 방실방실 웃는 꽃송이들을 흥분속에서 지켜보는 나의 귀전에는 어머니가 들려주던 잊지 못할 그날의 그 사연이 조용히 되살아났다.

국화꽃! 어디서나 볼수 있는 아름다운 꽃! 땅에 뿌리를 내리고 태양을 향해 망울을 터치며 피어나는 삶의 그 웃음, 그러나 얼마나 기나긴 세월 그 꽃은 시름 많던 인간들의 쓸쓸한 한숨만 자아냈더냐! 황막한 들판에 외롭게 피어 찬바람속에 모태기다가 처량히 스러져버리는 그 이름없는 꽃에 그 누가 그 웃음 그 환희를 주었던가? ...

일제침략자들에게 제나라 제땅을 빼앗긴 우리 민족이 그리운 고향산천을 등지고 천리타향의 마른 갈대숲에 피눈물을 뿌려가던 그 세월, 1927년의 가을도 질어가는 어느날, 길림을 중심으로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길림소년회회원들을 거느리시고 룡담산에 오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즐거운 답사의 길에 오른 소년회회원들은 웃고 떠들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살길 찾아 떠다니던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쥐고 오랑캐령을 넘을 땐 대룡대룡 눈물속에 서글프게만 보이던 산과 들이었지만 그날만은 실로 모든것이 아름답게만 보였다. 단풍들이 붉게 물든 가독나무며 들판에 드문드문 핀 가을국화꽃의 향기...

어느덧 산등성이에 오르자 길림시가 한눈에 안겨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을바람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들국화 핀 산비탈에 눈길을 주시더니 멀리 조국이 있는 남쪽 하늘가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언제 보아도 변함없는 가을의 풍치입니다.

우리가 조선의 평양 만경대나 모란봉, 대성산에서 가을의 조국산천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조국의 아름답고 풍요한 가을은 실로 그어디에도 비길수 없습니다.

낮설은 이역땅의 산등성이에 제홀로 피어나 소슬한 가을바람에 하느적이는 국화꽃을 보시고도 만경봉의 정가로운 언덕에 만발할 조국의 국화꽃을 그리시는 어버이수령님!

그이의 열화처럼 뜨거운 마음속 깊이를 헤아려본 나 어린 소년회회원들은 일시에 웃음을 거두고 위대한 수령님의 눈길을 따라 멀리 푸른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년회회원들의 자그마한 손을 하나하나 꼭 잡아 이끼오른 바위터에 둘러앉히시고는 것처럼 정열에 넘치시여 이야기를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명심해듣고있는 소년회회원들의 눈앞엔 흰눈덮인 조종의 산 백두의 련봉들이 우뚝이 안겨왔고 유구한 역사를 담고 흐르는 압록강과 수려하고 아름다운 금강산, 웅장하고 기묘한 묘향산을 비롯한 해솔는 아침의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이 한폭의 그림처럼 보여왔다.

따스한 가을햇빛이 발그스레한 얼굴들을 쓰다듬어주고있는 산등성에서 떨기떨기 핀 들국화를 밟아 어버이수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그날의 그 감격! 그 행복!

황홀한 꿈속에 잠긴듯 감탄을 금치못해하는 소년회회원들의 《야, 야!》하는 웨침소리는 단풍은 밀림과 아득한 들을 지나 멀리멀리 울려 퍼졌다.

소년회회원들이 한번도 가보지 못한 조국산천, 위대한 수령님께서 첫자욱을 손잡아 떼어주시며 애어린 가슴속에 삶의 꽃송이로 피여주신 조국의 참모습, 강산이 이처럼 수려하기에 인민들은 그 땅을 지켜 침략자들과 피어린 싸움을 수천년동안 계속해왔으며 귀중한 생명도 청춘도 다 바치지 않았는가? 리순신장군, 울지문덕장군...

그런데 이 아름다운 조국산천이 오늘은 또 일제놈들의 총칼밑에서 피바다로 변하지 않았는가? 분노의 빗발이 번쩍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팎에는 기어이 조국을 광복하리라는 굳은 맹세가 어리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때 소년회 회원이었던 나의 어머니와 동무들은 말없이 울었다.

아니, 산천초목도 붉는 맹세로 들먹이였다 한나.

소년회회원들은 이렇게 피끓는 녀를 이어받았

고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꽃피워나갈 무거운 임무를 받아안았던 것이다. 하기에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뜻이 천만송이 꽃으로 피어 인민의 행복으로 만발할 조국의 희망찬 래일을 마음껏 그려보며 서로서로 보충보충한 주먹들을 굳게 잡고 그날을 앞당겨오리라 맹세다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맹세를 다지는 소년회 회원들을 둘러보시며 밝은 웃음을 띠우시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그때 다같이 모여 오늘의 일을 옛말로 하며 평양의 모란봉에도 올라가보고 금강산과 묘향산에도 가봅시다.

그러시고는 청석바위에 뿌리박은 한그루의 소나무아래에 서시여 《사향가》를 조용히 부르시였다.

백화만발할 조국의 래일을 그리시며...

아, 그날에 그려보시던 꽃이 피었다.

그날의 그 노래가 울려퍼지는 조국강산에 세계를 경탄시키는 기적의 년대가 흘러 수십년!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옅백백과 주렁지는 풍년 가을이 왔다.

만경대고향집의 정가로운 프락에도, 주체사상탑의 두리에도, 개선문의 꽃밭에도 묘향산의 산기슭에도 아니 이 땅의 산과 들,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도 행복의 꽃이 폈다. 정녕 온 나라가 꽃속에 열매속에 묻히였다.

이 꽃피는 계절 묘향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산기슭에 핀 국화꽃을 보시고 그 무엇을 생각하셨으랴!

그이께서는 준엄했던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룡담산에 오르시여 나아린 소년회회원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의 붉은씨앗을 심어주시고 가꾸어주시던 잊지 못할 그날을 생각하셨을것이며 눈보라 휘몰아치는 백두밀림에서 무르익혀오신 광복된 조국의 오늘을 보시고 기뻐하셨으리라!

이 땅에 피어나 인민의 행복을 노래하며 주체조국의 티없이 맑은 웃음을 그대로 말해주는 천만송이 꽃들은 정녕 피어린 항일의 나날 인민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안으시고 그려보신 만경봉의 꽃송이에 뿌리를 두고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살건 이 땅의 꽃들을 것처럼 귀중히 여기며 정성껏 가꾸는것이 아닌가!

나는 언젠가 조국방문차로 왔다가 한 식물학연구사가 한 말이 생각한다. 그의 말을 적으면 《조

국엔 신기한 일이 많고많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신비로운것은 자연계에서 종류도 같고 이름도 같은 꽃이지만 유독 조국에서 피어나면 것처럼 아름답고 것처럼 소담하며 것처럼 오래오래 피어나는것입니다.》

그 식물학자에게 오늘 내가 본 국화꽃을 키우는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는 무어라 할것인가? 추측하건대 그는 필경 《아, 그것입니다. 그것, 그 티없이 맑고 깨끗한 녀이 깃들었기에...》 하며 감탄을 금치 못할것이다.

어찌 그뿐이라.

비바람도 두려움없이 령길을 오르내리며 무분화를 키우는 묘향산의 할아버지, 높이 솟은. 주체사상탑두리의 꽃밭에 물을 주려고 야밤삼정에 찾아왔던 이름모를 가정부인들...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로 합치여 내 조국은 세계에 빛을 뿌리고있는것이 아닌가!

진정 조국의 아침은 아름답다.

꽃속에 묻혔기때문일가, 아니,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 마음들이 꽃을 키우기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나의 조국,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따르는 우리 인민이다.

사람들은 누구라없이 조국에 대하여 말한다. 래를 묻은 땅, 잊지 못할 어린시절의 추억이 깃든 모든것, 책장을 번지며 공부하던 키낮은 책상, 어스름저녁 어머니가 나와 마중하던 징검다리...

나의 어린시절은 이역만리에서 흘러갔다. 청춘시절의 랑만도 그곳에 두고왔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가 준 뽕는 피 방울방울속에서 떨어져 못살 조국의 숨결을 받아안았다.

나는 조국을 사랑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 어머니의 심장속에 심어 주신 혁명의 붉은씨앗이 오늘은 나의 행복과 리상으로 활짝 피어난 이 땅, 이 하늘이기에!

나는 설레이는 가슴을 달래이며 젖어오는 두볼을 꽃송이에 살며시 대이고 속삭이었다.

《꽃송이야, 더 아름답게 활짝 피려무나. 내 너를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려니...》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채 의식하지 못한채 끝없이 되뇌이는 나의 이 심정...

아, 꽃을 키우는 마음! 꽃을 키우는 마음! 그것은 정녕 자기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조국을 영원히 받드는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충성의 자세이다!

-묘향산에서-

어머니조국에

장문필

조국이며
그대에 바치는 사랑의 노래
어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붓을 드는 가슴속 깊은곳에서
그 노래의 첫 가락은 울리는구나

울리는구나
그대 품에 어리광치며
뛰노는 내 심장의 박동을 거쳐
나서자란 고향의 산천
거기 흰 바위들 스쳐내리는 맑은 물소리와
꿈마저 즐겁던 행복의 요람가에
조용히 비껴가던 정다운 노래소리...

그 요람 그 노래소리
나의 집 햇 이영이 폭풍에 흩날릴제
나를 안아주고 전선으로 떠나간 아버지
학원으로 가는 이 아들을 바래주며
점도록 동구밖에 서있던 어머니
아 내 가슴속에
조국에 대한 사랑의 첫싹을 키워준것 아닌가

폭탄자리 방금 메꾼 학원의 트랙에서
나를 반가이 맞아주고
철따라 새 교복을 겨웁도록 안겨줄 때
조국이며 나는 보았노라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어
아직은 미처 다 가지지 못했던
그대 전화의 상처자욱을...

손풍금에 맞추어
세상에 부럼없어라 노래부르다
목메여 눈물짓던 밤들이여
마음은 언제나 고마움에 젖어있어

푸른꿈 망울지던 청춘시절에
피여난 첫사랑은 조국애거니

노래를 불렀노라
학원의 품에서 행복의 나날을 보낼 때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를 그리던 마음
부모들도 줄수 없는 조국의 은덕에 목메이며
내 가슴에 솟구치는 불같은 걱정이
그대에 바치는 노래로 울렸노라

안겨주는 그 은혜 끝이 없어서
불러도 다함없는 행복의 노래
바쳐가는 내 사랑 나날이 더해
엮어도 다 못맺는 충성의 노래
언제나 설익은 그 노래마저
그대는 내 삶의 향기로 꽃피워주었나니

고마와라
수령님 사랑속에 내 자라나고
수령님 손길아래 나의 꿈 꽃피여난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조국이며!
그대 있어 내 작은 삶 누리에 당당하고
부르는 나의 노래 열정에 넘치나니
그대를 가졌음은 나의 더없는 영광.
그대를 노래함은 나의 끝없는 행복.
조국이며, 그대 준 심장 다할 때까지
내 그대를 받들어 그대를 노래하리라

아, 불타는 심장이 시작한 노래
심장이 불탈수록 멎을수 없어
끝없이 끝없이 부르는 노래
조국이며 그때문에 내 바치는 사랑의 노래
언제나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어라!
아아, 어머니조국이며!

나의 조국애가 시작된곳

최준경

살구꽃 핀 시대가 저 멀리
내 나서 첫걸음마 익히던
고향의 정든 집 프락아
물오른 버들가지를 두드려
처음 배운 애국가를 조용히 불러보던
고향의 잔디 푸른 뒤동산아
내 오늘 다 자란 몸에 군복을 펼쳐입고
너를 떠나 너를 떠나 초소로 가노라

어제날 아버지가
이 땅을 지켜 전선길 떠날 땐
어머니 등에 업혀 철없이
내 작은 손을 저었던 한줄기 동구길이어
오늘은 키높은 가로수 휘휘 술렁이는 길이어
너는 또 얼마나 하많은 생각
이 가슴에 못건디게 불러내는가

그날 검은 머리 비껴엮고
이 길에서 어린 나와 함께
아버지를 바랬던 젊은 어머니
오늘은 흰 수건속에 백발을 감추고
초소로 떠나는 이 아들을
그날처럼 오래도록 손저어 바래누나

오 해빛의 따뜻함을 안고
내 해종일 장난질에 취해 놀 땐
미치 다는 몰랐던 어머니 그 품
애뜻하고 소중한 고향의 모든것
오늘은 초소로 떠나는 이 가슴에
지켜야 할 조국의 모습으로 자리잡았노라

소중해라!
수령님 주신 땅이 하도 고마와
아버지가 피로 지킨 고향 산천이어
어린시절 나의 발자욱이 어려있고
정든 어머니가 서있는 요람의 품이어
너는 내 가슴에 깃든 조국애의 푸른싹을
이 몸의 잔뼈와 함께
나도 몰래 나도 몰래 키워줬구나

잘 있으라! 잘 있으라!
나의 조국애가 시작된 고향아
이 한몸 멀리 초소로 가도
어머니 품같이 소중한 네 모습
총잡은 내 가슴에 고이 간직했기에
그 누구도 허물고 빼앗지 못하리라

내조국의 저녁은 좋아라

리광선

아이들은 즐거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하루계획 넘쳐한 공장은 설레네
현지의 먼길을 다녀오신 수령님
끝없는 행복속에 맑은 미소 보내시네
아 수령님께 기쁨드리는
정다운 내 조국의 저녁은 좋아라

수령님 문 여시고 환한 웃음 지으시니
저 하늘의 별들도 기뻐서 속삭이고
당중앙 창문이 밝게 빛나니

거리의 불빛도 행복에 젖어라
아 수령님께 기쁨드리는
정다운 내 조국의 저녁은 좋아라

세상엔 기쁜 일 많이 있어도
수령님께서 기뻐하실때가 제일로 좋아
수령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
수령님의 기쁨은 조선의 행복
아 수령님께 기쁨드리는
정다운 내 조국의 저녁은 좋아라

9월 찬가

정호수

해마다 9월의 이날에
우리 기쁨에 겨워
노래부르노라

9월에 부르는 노래-
여기 이국땅에서
더더욱 흐뭇한 9월의 노래

주권을 잃고 하늘도 잃고
망국노의 한숨만 고인 가슴 찢지도 못하고
이국의 땅속에 파묻혀야 했던
탄광의 그 마을에
오늘은
해빛이 넘쳐나는
우리의 학교 높이 세워놓고
본때있게 살며 부르는 우리의 노래

자연의 재해도 망국의타이라고
조선사람된 한가지 이름에
비수에 찢리여 숨을 거두어야 했던
관동대진재 원한의 기억이 맺힌 이역땅에
오늘은
아담한 우리 회관 높이도 세워놓고
그 회관 더욱 높은곳에 공화국기 날리며
어엿이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류량의 무거운 발걸음을 디디던
이국의 눈물의 항구도
오늘은 조국에 안기는

조국이 있어 누리는 이 9월
세기를 두고 갈망하던
인민의 주권속에 살아가는 기쁨
가슴가득 안고 우리 노래부르노라
바로 환희의 항구
조선사람이라
하늘 못보고 거닐던 이국의 거리를
조선사람이란
더없는 자랑에 넘치며
활보하는 오늘의 우리 이기에...

간히였던 이 나라에서
오늘은 하늘로 바다로
온 세계를 다녀오는
우리이기에...

9월엔 노래도 많아라
자랑으로 부르는 우리 노래
9월이 올 때마다 뜨거워지노라

공화국이 걸어온 서른다섯해의 걸음 걸음따라
높아만 온 우리의 마음
아, 9월이여
수령님 세워주신
인민의 주권!
우리 영원히 영원히
그대 품속에 안겨살리라!

밤나무 설레이다

-어은혁명사적지를 찾아서-

문성락

우리 당의 군사활동력사에 불멸의 사적으로 빛나는 영광의 땅 어은동!

밤나무숲이 우거진 골짜기마다에 수정같이 맑은물이 흐르는 어은동골안은 그 생김새로 보아 이나라 그 어디서나 흔히 보게 되는 그런 고장이다.

다른곳과 구별된다면 류달리 밤나무가 많은것이다.

하지만 이 평범한 고장의 밤나무숲이 백두의 밀림과 더불어 만사람들의 가슴속에 설레이며 못잇을 추억을 불러 그처럼 높이 솟아 빛을 뿌린것은 무엇때문인가!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여기 어은동골안에 위대한 향도의 자욱이 아로새겨졌었다.

하기에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풀에도 야영생들을 이끌어 주체의 혁명무력건설의 넓은 길위에 불멸의 사적을 새긴 우리 당중앙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성스러운 발자취가 어려있어 찾아오는 사람들의 가슴을 그처럼 뜨겁게 불태워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의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 다.》

뜻깊은 력사의 그 나날들을 더듬으며 우리가 어은혁명사적지에 이른 때는 한낮이였다.

푸른 숲이 우거진 룡골산의 두 골짜기사이에서 끼운 골안에는 끝없이 찾아오는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 청년학생들로 붐비는데 산기슭의 밤나무숲은 잊을수 없는 그날의 하많은 이야기를 전하며 설레이고있었다.

불빛

영광의 땅에서 옮기는 걸음조차 조심스러워지는듯 한없이 경건해지는 마음을 안고 령군봉기슭에 세운 사적비를 돌아보고나서 어은동골안의 양지바른곳에 자리잡은 어은혁명사적관의 참관을 끝마친 우리는 한채의 길다란 벽돌집앞에 멈춰섰다.

붉은 색의 벽돌로 쌓은 벽이며 푸른 창문, 하

얀 해가루로 두드러지게 칠한 문모서리들이며 춤추는 지붕의 기와들...

어느 모로 보나 옛모습 그대로 느끼게 하는 력사의 집이다.

우리는 강사로부터 이 집에 깃든 깊은 뜻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밤새도록 창가에 향도의 불빛이 흐르던 방안을 주의깊게 보았다.

흔히 보는 모포와 훈련용 배낭이며 검소한 학생용책상과 학습자료들, 그리고 등근 다반우에 놓여진 물주전자와 사기고뿌...구름노전이 깔린 참으로 소박한 방이다.

바로 이방에서 밤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 전법들을 깊이 탐구하는 열정의 심장이 불타올라 꺼질줄 모르는 불빛으로 비졌으며 군사야영생들의 사업과 생활, 훈련을 따듯이 보살피는 한없이 뜨거운 사랑이 넘치군했었다.

어찌 그뿐이라!

1962년 9월 15일,

어은동밤나무골에서는 뜻깊은 당세포총회가 열렸다.

회의에 참가한 당원들은 한평생 당원의 영예를 빛내어나가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심오한 뜻을 새겨안게 되였다.

사상의지의 통일과 혁명적단결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생기발랄한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수령이 제시한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되어야 한다.

당적사상체계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체계이며 당성은 곧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이다라고 밝혀준 심오한 진리! 진정 력사의 그날 당원들은 자기의 당생활에서 위대한 전환의 길을 열어준 향도의 해발을 우러러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안고 얼마나 가슴 설레이며 열광적인 환호를 올렸던가!

참말로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력사적문헌이 집필되던 그 나날들에 이 창가에 흐르던 불빛, 그것은 당원들을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

로 살도록 이끌어준 향도의 빛발이었다.

예지로 빛나는 그 빛발이 오늘은 당중앙의 창가에서 꺼질줄 모르는 불빛으로 이어져 우리 인민의 앞길을 밝게 비추고있기에 우리 당이 생기발랄하고 인민군대가 불패의 위력을 떨치는것이 아닌가!

《어은금》아 울려라

향도의 자욱파라 걷는 우리의 걸음마다 생각이 깊어졌다.

이 골안의 그 어느 숲을 보아도 대오앞에서 길을 열어간 흔적이 있고 샘물가의 조약들을 보아도 동지들을 위한 뜨거운 마음이 어려있어 무심히 지날수 없는 이땅.

우리는 골안을 따라 올라가던중 공지에 세운 표식판앞에서 강사의 해설을 들었다.

《여기가 바로 악기 만든곳입니다.》

강사는 훈련생들이 이렇게 자체의 힘으로 악기를 만들었는가를 이야기해주었다.

보람찬 군사야영훈련이 시작된 어느날이었다. 병실앞 밤나무밑의 샘터에서는 예술소조운영과 관련한 초급지휘원들의 협의회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악기제작사업을 중단없이 계속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가 토론되었다.

사실 훈련생들은 군사야영훈련에 나오게 된 조건에서 악기제작사업은 할수 없는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훌륭한 악기를 만들어 생활을 락천적으로 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청년들이 야영생활을 하는데 저녁마다 적적하게 지내서야 되겠는가, 이 어은동굴안이 떠들썩하게 악기소리를 울려보자.

이리하여 훈련생들은 훈련의 짬시간을 타서 쇠붙이를 얻어다가 자귀와 끌, 도끼를 베풀으며 부엌아궁에 쇠꼬챙이를 달구어가지고 참대와 갈대에 구멍을 뚫어 악기를 만들어나갔다. 이렇게 첫걸음으로 10여개의 단소와 피리와 같은 단순한 악기들을 제작하였다.

향도의 손길아래 크나큰 힘과 용기를 얻은 훈련생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이번에는 대담하게 현악기를 만드는 일에 달라붙었다.

가파로운 산벼랑을 뚫아오르면서 악기재료를 찾아준 위대한 그 풍모에 고무된 훈련생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모두가 떨쳐나 오동나무며 박달나무, 홍송을 구해다가 톱으로 켜서 바로 이 공지에 널어말리 우군 했다.

그런데 현악기의 줄을 해결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나섰다. 그러자 일부 훈련생들은 줄만은 악기공장에서 구해오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바로 이때 훈련생들은 이번 군사야영훈련기간에 악기를 만들자고 결심한것은 결코 악기가 없어서 그런것이 아니다. 공장에서 만든 악기를 하나씩 가져다줄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자체의 힘으로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는 맑고 우아하고 부드러운 선율을 담은 새로운 악기를 만들어내자는것이다라는 승엄한 뜻을 받아안게 된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그들은 악기를 제손으로 만들도록 한데는 문화적소양을 높이며 생활을 락천적으로 하자는데도 목적이 있었지만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던 항일혁명투사들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이 적탄이 우박치는 고지에서 화선악기를 만들어 쓴 그 혁명적락관주의를 본받게 하자는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나서 강사는 우리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대피호로 쓰인 갱도로 안내하였다.

오랜 이끼가 덮여있고 석수가 질벽하니 흐르는 갱도.

차디찬 랭기가 서려있는 거치른 이 굴안에 향도의 해발이 비쳐들던 그날에도 썩은 동발과 바위틈으로 석수가 쏟아져내리고있었다.

하지만 끝내 굴천정에 늘어진 통신선을 발견하였고 드디어 학생들은 현악기의 줄을 만들 한통구리의 통신선을 받아안게 되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슴마다에 높뛰게 하려는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 훈련생들은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며 악기제작사업을 다그쳐나갔다.

이렇듯 고심어린 나날을 거쳐 마침내 우리 식의 새 현악기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맑고 류창하면서도 민족적정서가 그윽히 풍기는 이 악기를 《어은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자는 뜻은 모두의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훈련생들은 《어은금》에 깃든 이야기를 길이가 전하고싶은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어은금아 높이 울려라》의 노래를 지어 힘있게 불렀다.

우리는 이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며 인민과 인민군인들로 하여금 혁명적량만이 넘쳐흐르는 락천적인 생활을 하도록 갖가지 악기들과 문화기재들을 아낌없이 보내주는 당중앙의 그 사랑에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총성의 메아리

답사의 로정따라 우리는 무기소제장이며 식당, 훈련기재고, 대대정치부, 세수터 등 불멸의 사적이 깃든곳에서 뜻깊은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전법을 배울 숭고한 뜻으로 뜨겁게 고동친 심장의 열정은 얼마나 값높은 것이었던가.

사적들 그 하나하나에 깃든 이야기를 더듬는 사이에 우리는 실탄사격장에 이르렀다.

이곳에는 뜻깊은 그날에 백발백중의 비범한 사격술을 보여준 사격좌지와 목표판이 그대로 보존되어있다.

바로 이 잊을수 없는 실탄사격장에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신묘한 일당백의 사격술을 과시한 총성이 높이 울렸다.

1962년 9월 22일

이날을 어찌 우리 인민이 잊을수 있으랴. 이날은 김정숙어머님께서 돌아가신지 열세해 되는 날이다.

온 나라의 마음이 녀사의 령전에 화환을 안고 찾아오는 이날 어은동사격장에서는 실탄사격이 있었다.

바로 이날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 달려오는 사격장에서 녀사의 뜻을 받들어 조국의 아들답게 살며 싸울 불같은 맹세가 울려 훈련생들의 가슴을 뜨겁게 감쌌다.

불타는 그 맹세를 안고 첫 총성이 울리자련이 어 명중하는 총성의 메아리가 어은동끝안에 울려 퍼졌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우리는 사격훈련의 나날에 있었던 일들을 그려보았다.

원쑤의 심장을 꿰뚫지 못한 총알은 명중이 아니다.

혁명의 무기를 잡은 병사는 언제나 명중을 해도 원쑤의 심장만을 명중하여야 한다고 훈련생들을 이끌어준 그 숭고한 뜻! 진정 인류력사에 그 어느 명장이 이런 사격술의 높이로 대원들을 부르며 이끌어간적이 있었던가.

이렇듯 높은 목표를 정했기에 어은동밤나무골안에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기적같은 사격술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깃들고 그날에 울린 백발백중의 멸적의 총성의 메아리는 오늘도 울려 퍼지고있다.

우리는 실탄사격장에서 명장의 슬기와 무적의 힘은 탁월한 군사리론과 더불어 백전백승의 주체전법을 익히는 훈련의 나날에 더욱 불패의것으로 공고히 다져진다는것을 느꼈다.

령군봉에 올라

이땅에 뿌리깊이 내리고 수많은 메부리를 거느린 력사의 봉우리 《령군봉》!

해발고를 표시하는 이름이나 지리학적개념의 명칭이 아니라 후세에 길이 빛날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있고 조국을 빛내이려는 원대한 뜻이 수놓아진 봉우리라 하여 그 이름도 영광스러운 《령군봉》!

뜻깊은 이 봉우리에 오른 우리는 《령군봉》의 시비앞에 섰다.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

총창을 비껴들고 산정에 오르니
멸적의 장수힘 온몸에 넘친다
미래를 꽃피울 피끓는 가슴에
달려갈 앞길이 파도쳐 밀려온다
천만대군 이끌고 험산준령 넘고넘어
백두의 행군길을 곧바로 이어가리

침략자 미제를 이 땅에서 내몰고
통일된 조국을 한품에 안으리라
삼천리강산을 락원으로 꽃피워
조선의 영광을 온 누리에 펼치리
그 어떤 원쑤도 다치지 못하게
내 조국 영원히 지켜가리라

이 시는 전술훈련의 어느날 령군봉마루의 이끼 푸른 바위우에서 격조높이 울린 즉흥시다.

이 나라의 북변에 거연히 솟은 백두산과 혁명의 수도 대동강변에 뿌리박은 룡남산에서 울린 그 맹세 여기 성스러운 사적지에 그 불멸의 노래로 새겨졌는가!

《시의 구절구절에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 그 어떤 준엄한 폭풍우도 과감히 뚫고 헤쳐나갈 강철의 의지가 맥박치고있습니다.》

우리의 옆에 사색깊은 안색을 하고 섰던 한 시인이 뉘게라없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말이였다.

우리는 뚫어오르는 걱정을 안고 이 령군봉에 새겨진 향도의 자욱을 더듬어보았다.

전술훈련을 하는 날이였다. 비상소집훈련으로부터 시작된 전술훈련은 처음부터 실전을 방불케 했었다.

소대의 임무는 급히 방어로 넘어간 《적》을 소멸하고 놈들의 증원부대가 도착하기전에 교지를 점령하는것이였다.

소대의 대원들은 향도의 손길따라 훈련하게 되었다.

훈련에서는 기묘한 전술과 비범한 군사적지략을 보여주어 훈련생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탁월한 령군술은 《적》진을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뜨리고 고지우에 승리의 개가를 울리게 하였다.

이윽하여 고지에는 휴식구령이 내렸다.

전술훈련을 빛나게 결속짓고 휴식의 한때를 보내게 된 훈련생들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한껏 부풀어올랐다.

훈련생들은 고지정점에서 수천만 대군을 부르는 한편의 즉흥시를 받아안게 되었다.

우리는 강사의 이야기를 듣고나서 고지에서 내려면서 저멀리 끝없이 파도쳐간 산발들을 바라보았다.

령군봉을 웅위하고 따르듯이 줄줄이 뻗어간 산발들, 높낮은 퇴부리들, 그것은 마치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따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해 대오를 짓고 달려나가는 천만군사의 모습으로 보였다.

우리는 저 이름없는 못봉우리처럼 영원히 당중앙을 받들어 드림없을 결의를 다지였다.

어은동의 밤나무숲이여 설레이라! 만대에 길이 전할 우리 당의 불멸의 사적을 노래하며 천만 가슴에 푸르려 설레이여라!

내 집 창가의 정다운 불빛

한기운

저 멀리 보여오네
정다운 불빛
부르는듯 속삭이는듯
가까와질수록
더더욱 빛나네

탄부도시 밤하늘에
별들은 흐르며 정답게 속삭여도
나는 몰라라
내집 창가
저 불빛보다 더 정다운줄

내 사는 집
언제나 내 손길 닿아있는 창문이건만
이 밤도
설레는 마음 안고 바라보는
정다운 불빛이여!

저 불빛아래
나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안해가 있고
어머니품에 안겨
잠들어있을 어린것때문만이던가

아니더라
우리 수령님
눈길 천리
먼길 찾아오시여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이 저 집에 깃들어있고

여기가 나라의 생명선이라고
들끓는 탄전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창가에 서계시던
그날의 어버이수령님
이 밤도 저 창가에 서계시는듯

그 사랑, 그 믿음을
온 세상에 이야기하고싶어
밤하늘에 별들이 떴다 사라져도
꺼질줄 모르는 저 불빛

탄부의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면
내 어찌 한순간이라도
탄부의 성실한 걸음 아니라면
웃으며 저 불빛을 바라볼수 있으랴.
탄부의 성실한 걸음이 아니라면
웃으며 저 창가에 설수 있으랴

내 한생
막장길 걸어온 발자국
지나온 고굴들에 다 묻히여도
나의 삶 저 불빛속에
꽃피고있거니

아, 땅우에서 천만리를 가도
바라보는 내 집 불빛은 하나!
땅밑에서 천만리를 가도
따르는 내 마음은 하나!

내 언제나 가리
내 어디서나 빛내리
이 밤도 나를 안아주는
정다운 저 불빛속에
그날의 소중한 당부를
받아안고 또 받아안으며...

우리 문학에 굶이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열정

강능수

우리들은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5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이 경사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우리 작가들은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조국을 것처럼 강력하고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이끌어주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다함없는 영광과 최대의 감사를 드리며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경도를 받들고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일하는 남다른 특전과 감격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은 물론 대를 이어 몸바쳐 충성다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공화국이 창건된후 35년, 그것은 반만년을 헤아리는 우리 나라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승리와 거대한 전변의 년대들로 가득차있으며 세계만방에 그 이름 찬연히 떨친 민족대번영과 룡성의 거창한 영웅서사시로 수놓아져있다.

긴긴세월 자리잡고있던 락후와 빈공은 영원히 청산되고 세상에서 가장 선진적이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마련된 이 땅우에 오늘은 우리당의 총로선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힘차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는 먼 앞날의 숙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로 력사의 일정에 오른 문제로 되었다.

사람들은 사람마다 자기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노래하고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존대받고있는 나라, 사람들은 서로 화목한 친형제가되고 천만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의탁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친근하고 미더운 어버이로 부르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조국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공화국의 창건과 그 룡성발전은 해방후 우리 문학의 찬란한 개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한 위력한 지반으로 되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문학의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모체로 풍요한 지반으로 되었으며 억년 마를줄 모르는 창조의 샘으로, 그 발전을 위한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작가들이 공화국의 기치밑에 투사-작가로 성장한 자신과 함께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발전된 우리 문학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돌이켜보면서 우리 문학에 이처럼 팽배하고 우리작가들의 심장을 이처럼 불태운 사회주의적애

국주의열정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1

우리 문학에 세차게 굶이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기초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낳게 하는 모체이며 지반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낳게 하는 모체이며 지반일뿐 그자체는 아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하는것은 한 나라의 문학의 성격 및 사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그를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서는 애국주의의 최고표현인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관련된 원칙적인 문제들을 옳게 해명하여야 한다.

일찌기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주체문학건설의 중요내용으로 규정하여주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관련한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완벽한 해명을 주심으로써 우리 문학을 가장 혁명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애국주의적인 문학으로 강화발전할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문학작품에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구현함에 있어서 나서는 관건적인 문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본질을 정확하게 해명하는것이다. 그를 옳게 해명하여야 애국주의의 최고표현으로서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지난 시기의 애국주의와의 차이를 옳게 식별할수 있으며 그의 요구에 맞게 교양사업을 강화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킵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자기 조국, 즉 로동계급의 정권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찬란한 민족문화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이다.

여기에 바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지난날의 애국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으며 그것이 애국주의의 최고표현으로 되는 근기가 있다. 지난날의 애국주의는 이러저러하게 인민의 진정한 리익과 지향을 반영함에 있어서 제한적이며 불철저한것이였다. 인민들의 리익과 지향은 사회

주의조국에서 비로소 실현되게 되며 로동계급의 지향과 밀접한 결합을 보게 되는것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또한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에 기초하고있으며 또 그 발현으로 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혁명적이며 선진적이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자기 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는 사회주의제도와 그 발전에 대하여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한다. 따라서 그것은 이미 세워진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잘살기만 바라며 자기 제도의 발전에 대하여 무관심한 현상들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것이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제도를 견결히 옹호고수하려는 혁명정신이며 그에 머무르지 않고 그를 빛나게 발전시키려는 진취적인 정신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이미 세워진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그를 옹호고수하며 조국땅위에 인류리상사회인 공산주의를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높은 지향을 반영한 애국주의로 되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또한 로동계급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임무를 옳게 결합하게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열렬한 애국자이면서 동시에 견결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전사로 되게 한다. 나라들 사이에 국경이 있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은 곧 세계혁명에 이바지하는것으로 되며 세계혁명에 참담게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자기나라 혁명에 충실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본질에 대하여 고전적인 정식화를 주신데 기초하시여 그 구현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또한 명철하신 해명을 주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구현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애국심의 표현을 정확하게 해명하는것이다. 애국심의 표현을 정확하게 해명하여야 그 존재방식과 특성을 파악할수 있으며 실천적으로는 그에 맞게 교양사업대책을 세울수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애국심은 그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인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강토와 력사와 문화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그것은 또한 자기 고향과 고향사람들에 대한 애착심, 자기의 부모처자에 대한 애정에서도 표현되는것입니다. 애국심은 인간의 감정에서 구체적으로 살고있으며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보게 됩니다.》

애국심의 표현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애국심의 본성과 그것이 다른 사회의식과의 차이점을 깊이 헤아리신데 기초하여 주신 가장 과학적인 정식화이다.

애국심이란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서 결코 추상적으로 존재할수 없으며 사람들의 감정에서 구체적으로 살고있으며 또 구체적으로 표현되는것이

다.

애국심의 고유한 존재방식과 표현에서의 특성은 교양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성적으로 진행할것을 요구한다.

더우기 자기의 고유한 형상적형태를 가지고 혁명에 복무하는 문학작품인 경우에는 그 형상적기능을 높임으로써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더욱 실속있게 진행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과 리론의 진수가 예술적화폭으로 빛나게 집대성되고있는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불멸의 고전적인 작품들과 친히 지도하여 완성하여주신 명작들이다.

아침해빛과 같이 밝고도 아름다운 서정을 수정과 같이 맑은 음향에 담아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더없는 자랑을 노래한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의 불멸의 의의는 력사가 그처럼 기다리던 조국이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한 완벽한 해명을 주었으며 하나의 특출한 예술작품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애국의 감정을 각성시켜 주고 사람들을 애국자로 내세워주는 참된 혁명의 교과서로 된다는데 있다. 그렇기때문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는 비록 작품의 제명 그대로 소박한 이름을 달았지만 그 사상적내용과 예술적완벽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또한 그것으로 하여 이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우리 문학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본보기작품으로 되고있기도 하다.

우리 문학에 높이 나래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탁월한 사상과 현명하고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더욱 심화되고 풍부화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조국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인 해명에 기초하여 조국은 수령이며 수령은 곧 조국이라는 탁월한 사상을 밝혀주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조국이라는 성스러운 이름과 련결된 당과 인민정권 그리고 자립적 민족경제는 그 어느 하나 로동계급의 수령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가 있음으로하여 그것들은 태어나고 빛을 뿌리게 되는것이다. 한민족의 권위와 존엄은 곧 로동계급의 수령의 권위와 존엄이다.

반만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우러러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피바다에 잠겼던 우리민족을 구원하여주신 위대한 구성이시며 우리인민을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태양이시다. 위대한 수령님 계시여 오늘의 행복과 존엄이 있고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가 있다. 주체조국의 위대성과 권위는 곧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과 높은 권위이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자신의 남다른 체험과 생활적신념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 인민은 가장 기쁠 때에는 그이께 기쁨의 보고를 드릴수 있게 되었다는 행복으로 하여, 가장 어려울 때에는 용기백배하는 힘을 얻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가슴속에 외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혀준 이 탁월한 사상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핵을 새롭게 밝혀준 사상으로서 그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하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무엇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하여야 하는가 하는데 대하여 가르쳐준 사상이다. 핵을 쥐어야 모든 사업의 성과가 담보되는 것처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도 당중앙에서 밝혀준 탁월한 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갈 때에만 보다 큰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원칙적인 문제로 나서는것은 또한 그 본질에 맞게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할뿐아니라 그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다.

당중앙에서는 사회주의애국주의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해명을 주었을뿐아니라 사회주의애국주의에서 높은 계급의식을 강조할데 대한 사상을 밝힘으로써 그를 강화함에 있어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명철한 해명을 주었다.

높은 계급의식은 무엇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은 무엇이며 사람들에게 참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혁명적인 인생관, 생활관을 가지도록 한다.

사회주의사회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자주성과 창조성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게 하는 사회적 및 물질적 조건이 마련된 사회이다. 그렇다고 하여 인간의 행복과 삶의 의의를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것으로 그 어떤 물질적조건과만 결부된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참된 행복과 삶이라고 할수 없는것이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참된 삶은 개인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과 련결되어있으며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높은 자각에 있다.

당중앙에서는 높은 계급의식과 관련하여 특히 혁명적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청년들에게 우리 당에 의하여 이룩된 백전백승의 승리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인식시킬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었다.

백전백승은 아무런 희생도 없이 이룩되는것이 아니라 간고한 투쟁속에서 이룩되며 때로는 값높은 희생도 동반하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청년들에게 백전백승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하나의 승리가 어떻게 이룩되었는가 하는데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그들로 하여금 높은 혁명적각오를 가지게 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어떤 역경속에서도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맞받아 싸워나갈수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서, 계급의식은 사람들에게 계급적자각을 높여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신을 가지게 한다.

조국에 대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탁월하고 심오한 사상이 집중적으로 표현된것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갈과 가장 따사로운 온기가 한데 어울려 사람들의 가슴속깊이 간직된 금선을 타고 은은히 울리는 조국의 품에 대한 노래는 이 땅위에 삶을 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심장의 노래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의 불멸의 의의는 그것이 사람들의 가슴속깊이 간직된 심장의 노래-조국의 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며 위대한 수령님은 곧 조국이라는 우리 시대의 철학을 예술적완벽성을 가지고 해명한데 있으며 우리의 혁명문학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더욱 심화발전시킬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데 있다.

**바다위에 동실 솟는 아침헐가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인가요
해빛처럼 밝고밝은 조국의 품은
아버지장군님 품이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노래이기전에 우리 시대의 철학이며 우리 시대의 철학이면서 동시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장엄한 노래이다. 이처럼 노래와 철학이 하나로 융합되고 통일되어 태어난것이 바로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이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당중앙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본질과 그를 구현하는데서 제기되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명하여주시었다.

2

우리 문학에 반영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중요특징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충실성과 하나로 통일되어있는데 있다.

이것은 우리 생활자체가 그런것처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인민은 사랑하는 조국을 생각할 때 위대한 수령님을 생각하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조국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로 생각한다. 이러한 관계는 당에 대한 생각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된다.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애국주의의 이러한 특징은 그의 남다른 뜨거운 열도와 강렬성을 규정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문학의 주제가 조국에 대한 노래이건 아니건간에 관계없이 조국과 수령, 당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지 않은것이 없으며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전면적으

로 노래한 작품들이 많을뿐만아니라 그 철학적심도와 문제성에 있어서 비상이 높은 경지를 이루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조국을 직접 노래한 작품들가운데서 우리 문학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일찌기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탁월한 사상과 빛나는 예지로써 그 앞길을 개척한 우리의 조국은 수령님이시며 수령님은 곧 조국이라는 우리 시대의 철학을 각이한 개성과 다양한 생활을 통하여 노래한데 있다.

노래라기보다 조국에 대한 시인의 주장과 같으며 흔히 말하는 서정의 흐름이라기보다 시인의 사색의 분출과 같은 김상오의 서정시 《나의 조국》이 조국에 대한 몇권의 책이나 장편소설에도 담을수 없는 커다란 격동과 심오한 사상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다른 예술형태와 달리 서정시는 어떤 계기, 생활적 또는 그 어떤 사상적충동에 의하여 창작되며 그 기초에는 시인의 생활적인 체험의 축적이 놓여있다. 깊은 생활적인 체험은 작품의 성과를 담보하는 전제이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바로 그 사실자체는 전개하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지난날 망국노의 쓰라린 눈물을 체험하였고 오늘의 조국의 고마움도 절실히 체험한 한 인간의 수난과 영광에 찬 일생의 체험이 놓여있다.

그리고 서정시 《나의 조국》에서는 조국의 고마움에 대한 소박하고 감성적인 느낌만이 아니라 조국에 대한 시인의 사색을 노래하고있으며 그에 시인의 고유한 높은 지성과 분석적인 정서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있다.

지난날의 쓰라린 생활과 심각한 체험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조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조국의 품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절실히 체험한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뜨거운 심장 없이 안을수 없고
진실한 사랑 없이 부를수 없는
위대하고 신성한 이름...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조국에 그대의 심장을 주기전에는!

지난날에는 피눈물을 뿌리며 조국땅을 하직하면서 돌아보고 돌아보던곳이었고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죽어서도 다시 돌아오길 소원하던 조국일진대 과연 조국이란 무엇이기에 자기의 심장파 자기를 바치기전에는 조국이라 부를수도 안길수도없는 품으로 되었던것인가.

이에 대하여 시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조국이며, 너는
세기의 하늘높이 내려쳐오르는
세찬 퍼덕임
그 아득한 높이의 빛발
찬란한 우리의 미래

.....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궁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 품이여라!
조국이며 나의 조국이며

바로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피바다를 헤치시여 찾아주신것이었고 한생을 바치시여 세워주시고 빛내주신 한없이 고귀한것이였다. 즉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이시며 수령님은 곧 조국이었던 것이기때문이다.

서정시는 이처럼 수사학적질문과 서정적인 강조의 방법을 대담하게 배합하면서 조국에 대한 철학적사색을 심화시키고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월미도의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형상한 예술영화 《월미도》가 우리를 그처럼 격동시키면서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는것도 그 어떤 흥미있는 전투이야기나 일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작품이 다름아닌 조국에 대한 이야기로 되고있는데 있다.

영화에는 력사적사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오직 4문의 포를 가진 조선인민군의 한개 해안포중대가 5만의 병력과 수백척의 각종함선을 거느린 미 제침략자와 대결하여 원수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고 3일동안이나 섬을 지켜 영웅적으로 싸운 이야기가 담겨져있다.

그것은 군사적건지에서나 보통 상식으로 보나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

영화의 혁신적성과는 그 비결을 군사적건지에서가 아니라 침략무력에 대한 조선인민군전사들의 정치도덕적우월성, 대중적영웅주의와 높은 계급적자각에서 찾았으며 그와 같은 불패의 정치도덕적우월성을 가지게 한 조국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대하여 철학적해명을 준데 있다.

영화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조국이란 선조들이 살아왔고 부모의 뼈가 묻힌 고향산천과 종달새 우짖는 고향 그자체가 아니며 사람들에게 참답게 살수 있는 권리와 행복을 안겨준 품이 조국의 품이며 그러한 조국의 품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 심오한 문제성을 제기하고있다.

영화는 주인공들의 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있다.

《우리 선조들도 아득한 옛적부터 이 땅에서 살았고 그때도 종달새는 울었소. 하지만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기전에야 그게 무슨 의의가 있었단말이요? 난 그 종달새가 우짖는곳에서 왜놈의 채찍밑에 뼈가 휘도록 고역살이를 했소. 동무도 그랬지? 그러니 우리에게 조국이란 무엇이겠소? 조국이란 바로 우리의 장군님이시오...》

조국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그 어떤 즉흥적인

느낌에서 나온것이 아니다. 그것은 9살때부터 왜놈의 채찍을 맞아가며 짐수레를 끌었고 14살때부터는 소년화부로 기관차화구앞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중대장 리태운의 쓰라린 운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겨우 17살 밖에 되지 않으며 군사동원부에 가서 폐를 써서 가가스로 전선에 나오게 된 영옥의 체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물들의 그리 길지는 않으나 심각한 체험의 총화로서 신념에서 우러나온것이다.

또 그것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혁명적인 인생관에서 우러나온것이기도 하다. 그것을 대변이라도 하듯 중대장 리태운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아바이, 전 생을 떠난다고 해도 아쉬운것이 없습니다. 행복을 누리는것보다 그 행복을 이룩하는데 바쳐진 생이 더 아름답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리태운의 이 말은 조국이란 무엇인가 하는것을 깨닫고 그에 기초하여 자기의 인생관, 혁명관을 세운 사람의 신념의 목소리이며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데서 참다운 행복을 찾는 고상한 혁명정신의 표현이다.

이와 같이 것처럼 심오한 사상이 월미도용사들의 심각한 운명의 총화와 주체의 인생관에 기초하고있기때문에 처음에는 애어린 영옥에게서부터 울려나온 조국의 노래 《나는 알았네》가 각이한 인생행로를 거쳐온 월미도용사들의 심장을 대뜸 그러치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렁찬 대합창이 되어 감동깊게 울려퍼지게 되었던것이다.

봄이면 사과꽃이 하얗게 피어나고
가을엔 황금이삭 물결치는곳
아 내 고향 푸른 들 한줌의 흙이
목숨보다 귀중한줄 나는 나는 알았네
.....

살아도 그 품속에 죽어도 그 품속에
언제나 사무치게 불리보는곳
아 어머니라 부르는 나의 조국이
장군님의 그 품인줄 나는 나는 알았네

따라서 예술영화 《월미도》는 조국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신념과 그 신념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로 되고있으며 또한 그 신념으로 하여 비록 월미도의 용사들은 장렬한 최후를 마치지만 그것은 영생하는 이야기로 되고있는것이다.

우리 문학에 반영된 조국에 대한 노래가 또한 계급의 예지이며 의지이며 신념이며 혁명의 향도성인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노래와 하나로 결합되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고유한 생활감정을 정확하게 반영한데 있다. 우리 인민은 자신의 계급적 신념과 절실한 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조국을 어머니라고 부르는것처럼 우리 당

을 어머니라고 부른다.

그것은 어머니조국이 사람들에게 삶을 주고 세상에서 다정한것, 슬기로운것, 아름다운 모든것이 깃든 따뜻한 품이라고 하면 당은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주고 그것을 키워주고 지켜주는 어머니품이기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한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송구스러워라 이 어머니를
나에게 젖조차 변변히 먹여줄수 없었던
한 시골아낙네의 이름과 나란히 한다는것은
그러나 어이하리
당이며 조선로동당이며
어머니란 이 말보다
그대에게 더 어울리는 뜨거운 말을
이 세상 어느 어머니도
나한테 가르쳐주지 못했거니
(김철 《어머니》)

박운의 가사 《내 삶이 꽃피난곳》과 리덕조의 가사 《당중앙의 불빛》이 짧은 가사이면서 하나의 거창한 진폭과 깊이를 가지고 대중속에 널리 애송되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이러한 고유한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하였기때문이다.

당중앙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다음의 구절은 얼마나 매력있고 뜻깊은것인가!

귀여운 아기의 요람을 지켜
잠 못드는 어머니 마음이런가
.....

(리덕조 《당중앙의 불빛》)

이외에도 우리 문학은 어머니당을 조국의 영광으로 승리의 기치로, 찬란한 조국의 미래로 언제나 조국과 결부하여 노래하였다.

다음으로 우리 문학에 반영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서 중요특징을 이루고있는것은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과 결부되어 표현되고있는데 있다.

애국심이란 원래 자기 조국의 귀중한것, 력사와 문화, 지리풍토 등 민족의 우수한것에 대한 자랑을 떠나서 생겨날수 없다.

우리 인민은 조국에 대한 끝없는 자랑과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우리 문학에 애국주의가 나래치게 하는 원천이며 생활적기초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발기하시고 그에 담을 내용과 창작방향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그 완성을 지도하여주시으로써 태어난 《애국가》는 그 대표적작품이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승엄하고 장엄한 감정과 함께 뜨거운 애국의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는것은 모두 아름다운 강산과 풍부한 자원, 반만년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남다른 민족의 긍지를 느끼기때문이며 그러한 빛나는 조국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위업을 한생을 바쳐 완수할 결의를 다짐게 하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서 본질을 이루고있으며 그 기본으로 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살며 일한다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고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다.

김우철의 가사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와 같이 전체 우리 인민의 절절한 숙망과 념원의 결실인 통일적이며 합법적인 정권의 창립과 같은 전인민적의의를 가지는 경사스러운 일은 더 말할것도 없고 물오리떼 떠날줄 모르는 이 나라의 푸른 강줄기와 창가에 웃는 티없이 맑은 어린이의 웃음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남다른 자랑과 기쁨을 느낀다.

그것은 그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련결되어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반영이기때문이다.

가사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남녀로소 가림이없이 누구나 다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는 조국에 대한 송가로, 세상에 대고 자랑하는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로 되고있는것은 거기에 전인민적인 경사나 환희를 불러일으킬만한 사건적인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다. 반대로 우리 인민에게는 너무도 친숙하여 평범한 일로 되어버린 일상적인 생활감정이 놓여있는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민에게는 너무도 친숙하고 보편적인 일로 되어버린 그 생활감정속에 얼마나 귀중하고 위대한것이 깃들어있는것인가!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아버지로 높이 우리더모시고 당의 두리에 친형제로 뭉친 우리의 행복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도 바꿀수도 없는 가장 귀중한것이다.

따라서 가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혁신적의의는 가장 보편적인것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것을 발견한데 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가운데서도 핵을 이루는 그 진수를 노래한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살며 강력한 사회주의조국을 가진 우리 인민의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은 국내인민들뿐아니라 우리 동포가 살고있는곳이라면 이국땅 그 어디에서나 자랑높이 울

리고있다.

가사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고》(한덕수)를 비롯한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쓴 작품들이 그 주제와 내용은 서로 달라도 공통적인 감정은 우리 인민의 남다른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다.

여기에서 특히 이국땅에서 사는 한 녀성의 기구한 운명의 극적인 변천을 통하여 사회주의조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며 그 품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인간도 행복도 태어난다는것을 폭넓게 그린 리호인의 중편소설 《배고동소리》는 시사깊다.

×

오늘 우리앞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더 많이 더 잘 창작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유일사상교양과 함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또한 기본으로 삼아야 할 문제는 우리인민의 애국주의의 핵, 즉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이시며 수령님은 곧 조국이라는 심오한 주제를 철학적깊이와 문제성이 흘러나오게 다양한 생활과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해결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어머니조국의 품은 당의 품이라는 뜻깊은 주제를 정열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요구이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자기의 중요구성내용으로 하는 우리의 주체문학의 생리적요구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애국심은 저절로 흘러나오는것이 아니라 자기민족의 우수한것, 귀중한것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것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 계시여 위대한 우리 조국이 있고 조국의 위대성은 다름아닌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높은 권위에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야 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에 의하여 펼쳐지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령도따라 이루어진 그 모든 귀중한 혁명의 전취물들을 끝없는 사랑과 자랑을 가지고 노래하는것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또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새세대청년들에게 우리 혁명의 전취물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려주고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여기서 특히 백전백승은 저절로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간고한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길에는 값높은 희생도 있었다는것을 알려줌으로써 청년들로 하여금 철저한 계급의식과 혁명적 각오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인 동시에 원수들에 대해서는 증오의 서리발이다.

우리 인민은 자기 조국을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미제원수들을 것처럼 증오하는것이다.

바로 그 침략자 원수 미제가 해방된지 38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공화국남반부에 틀고앉았을뿐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공공연히 벌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 문학은 응당히 미제원수에게는 증오와 규탄의 총칼이 되고 우리 인민에게는 조국

통일위업으로 힘차게 부르는 우렁찬 나팔소리로 되여야 한다.

이상의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성과적으로 해결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작가들의 높은 책임성과 사상적각오에 달려있다.

우리들은 열렬한 애국자 작가만이 애국주의적인 작품을 쓸수 있으며 또한 위대한 작가는 레외없이 위대한 애국자였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더 많이 더 잘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그 땅, 그 흙을 안고

김정철

파도는 출렁거리고
제방우에 우등불은 타오른다
어디선가 울려오는 월미도의 노래
내 마음 진정할수 없구나
개포막이전투를 앞둔 이 밤에

땅이여, 가없는 간석지여
나는 너에게 무엇을 바쳤던가
불탄 한줌의 흙을 위해
영웅들은 심장을 바쳤는데
나는 너에게 바친것이 적구나

아 가만히 쓸어보면
살결처럼 부드러운 땅
두손에 고이 받쳐들면
영웅들의 숨결이 어려오는 땅
태일이면 여기에 백리벌이 펼쳐지리

싸움의 그날 한줌흙에서
그들이 그려보면 내 조국
자애로운 수령님품엔
두고 온 고향과 함께
태여날 나의 행복도 있었거니

그들의 지켜낸 한줌흙에서
사과꽃은 피어나
나의 요람가에 향기로 풍기였고
이삭은 무르익어
내가는 학교길에 휘늘어졌다

내 행복의 터전엔
그들이 안겨준 한줌흙을
천만배로 넓히려
나는 횡포한 자연과 싸운다
그들처럼 그들처럼 후손들을 위하여

뜨거운 사랑이 없이야
내 어찌 격랑과 마주서랴
영웅들의 그 심장 지니지 않고서야
내 어찌 날바다를 밀어
기름진 옥답을 안아오랴

폭풍이여 비바람, 몰아와도 좋다
사나운 바다의 갈기를 놀리
나는 격랑속에 뛰어들리라
영웅들과 같은 피끓는 나이에
내가 설 월미도는 바로 여기

아, 월미도
그것은 조국의 한 지명이더냐
아니다, 그것은 이 땅우에
우리의 새생활을 창조하는
성스러운 결전장

나는 가리라
그들의 조국땅 작은 섬에
피로 쓴 영웅서사시를
서해 천리벌에 써내리며
조국의 새 해안선우에 펼쳐가며

은정

한태갑

때; 해방후 민주건설시기 어느해 봄

곳; 평양

나오는 사람들

채금; (산업간부학교 학생)

숙정; (당중앙위원회에서 파견된 당조직원)

원기; (직업동맹부장)

진규; (산업간부학교 교무부장)

연옥; (산업간부학교 학생)

미용사

녀학생 1, 2

제 1 장

무대; 아름답리 버드나무아래에 자리잡은 산업간부학교 교직원청사. (단층건물이다.)

오른쪽은 교무부장실이고 왼쪽은 대기실이다. 긴 복도가 뒤무대쪽으로 흘렀는데 복도벽면은 모두 창유리로 되어있다.

잘 정돈된 교무부장실의 정면벽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가 모셔져있다. 방에는 책상, 의자, 교구함 등이 적당히 배치

되고 《교무부장실》이라는 표찰이 걸려있는 나들문을 나서면 대기실이다. 대기실중심에 원탁이 있고 그 두리에 몇개의 의자가 있다.

원탁우에는 화분이 놓였다. 복도창유리너머로 거리의 일각이 바라보인다.

△주제선물의 음악이 흐르는 속에 막이 열리면 어느 일요일 한낮.

△진규 복도창유리너머로 밖을 살피며 그 누구인가를 기다리고있다

진규; (손목시계를 보며 혼자말로) 차 이런, 당조직원동지가 또 올텐데 채금동문 어딜 갔을가?

△이때 숙정이 대기실에 들어선다.

숙정; 교무부장선생님 또 왔습니다.

진규; (반색하며) 아, 당조직원동지시군요. 그

러지 않아도 지금...

숙정; 그래 박채금동무를 찾았는가요?

진규; 저 아직...

숙정; 아직도요?

진규; 교내 있을만한데는 다 찾아봤는데 통...

숙정; 그래요? 혹시 몸이라도 편치 않아 그러는게 아닐가요.

진규; 네, 그래서 합숙으로 사람을 띄웠습니다.

곧 올겁니다. 안으로 들어갈가요?

숙정; 여기가 좋습니다. 오래 지체할건 없으니까요.

진규; (다소 저어하며) 저 그런데 무슨 일로 채금학생을...

숙정; 호호호, 걱정되시는가요?

진규; 네, 그저 좀... 무슨 가까운 사이라도...

숙정; 아니요. 나도 처음 만나는 동무예요. 여기 학교에 오기전에 그 동문 매해 년간계획을 두배씩이나 넘쳐수행한 그런 소문난 로력혁신자였던가보더군요. 그래서 당에서는 큰 회의 로동자대표로 그 동무를 참가시키라는...

진규; 큰 회의 로동자대표로요?

숙정; 네, 회의의 정치적의의를 고려해서 채금동무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료해하러구 왔어요.

진규; 네 그렇습니다.

△이때 연옥이 옷보자기를 들고 바깥복도 쪽에서 대기실로 들어선다.

진규; (연옥을 발견하자) 아, 마침 연옥학생이 왔군. 채금학생은 안오우?

연옥; 채금언니 합숙에도 없습니다.

진규; 뭐 합숙에도 없대구?

연옥; 네, 사감아바이의 말에 의하면 엿저녁 학교에서 돌아오자바람으로 부랴부랴 저녁술을 놓구 나가는걸 보았는데 여태 돌아오질 않았답니다.

진규; 이런 규률들이 없대구야. 보고도 없이 외박을 하다니?

숙정; 제가 알기엔 근처에 일가친척도 없는 동무인가 보던데요.

진규; 그러니 더욱. 문제지요. 또 조건이 없는데

합숙에도 없다니... 이거 또 도망을 친게 나 아닌지?

숙정; 도망을 치다니요?

진규; 그럴수도 있지요. 원래 기초가 약한데다가 학습을 하늘의 별따기만치나 어려워하겠으니까요.

숙정; 학습에 취미를 붙이도록 잘 도와줘야지요.

진규;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동무에게 학습호조 책임을 지우구 늘 붙어서 도와주도록 했었는데 그참...(꾸짖듯) 연옥학생이 좀더 책임적으로 도와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게 아니겠소.

연옥; (공손히)제가 잘못했어요. 전 채금언니가 저녁마다 어디 나갔다가 밤늦게야 합숙으로 돌아오군한다는걸 이미부터 알고있으면서도 설마 이렇게까지 될줄은...

진규; 뭐 밤마다? 아니 그게 사실이요?

연옥; 네.

진규; 언제부터?

연옥; 한달 가까이...

진규; 한달 가까이? 아니 그걸 왜 이제사 말하오. 한심한 동무구만! 호조책임자라는게...

숙정; 교부부장선생, 그 동물 탓할거야 없지 않아요.

진규; 네, 그야 물론 직접적책임이야 저희들께...

숙정; 전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예요.

×

진규; (덤덤히) 네?

숙정; 여기야 로동계급의 핵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학교인데 설마 도망까지야...

연옥; (공감하며) 옳아요. 이 동무의 말이 옳아요. 채금언니 절대로 도망치진 않아요.

진규; (정색하여) 연옥학생!

연옥; 네?

진규; 이 동무가 뭐요. 이 동무가?... (숙정에게) 이거 안됐습니다. 인사소개부터 시키는건데 그만...

숙정; (너그럽게) 호호호, 참 그렇군요. (악수를 청하며) 알고 지내자요. 난 오숙정이에요.

연옥; 오숙정이요? 아이 어찌문. 성이 다를뿐이네 우리 할머니이름과 똑같네! 난 심연옥이에요.

진규; (난처한듯) 차, 이 동무가 점점... 이분은 당중앙위원회에서 파견된 당조직원동지시란말이요.

연옥; (그제사) 네?! 아이 어찌나 그런줄도 모르고 난...

△일동 가볍게 웃는다.

연옥; (굽신 허리굽혀 인사하며) 당조직원동지, 미안합니다.

숙정; 호호호, 재미있는 동무군요. 어느 공장에서 왔어요?

연옥; 전 제사공장에서 실을 뽑구요, 채금언니 동해방직공장에서 천을 짰대요.

숙정; 그래요. 펍 가까운 사인가보군요.

연옥; 그럼요. 우리 합숙 한호실에서 살거든요. 그리구 제가 학습호조책임자구요. 그런데 정말 속상해죽겠어요.

언니 늘 남들이 자는 밤에도 방해될가봐 홀로 복도에 나가 몰래 공부를 하군해요. 그런 언니를 보면 어쩐지 전 눈물이 막 나군해요. 하지만. 이제 채금언니를 만나거든 좀 따끔하게 말해주세요. 호조책임자를 우습게 알거든요. 보고도 없이...

숙정; 그래 동문 채금동무가 꼭 돌아오리라구 생각해요.

연옥; 돌아오지 않구요. 꼭 돌아와요.

숙정; 뭘로 그걸 담보할수 있어요.

연옥; (옷보자기를 내보이며) 그건 이 옷이 합숙에 그냥 있는걸 봐서... 교부부장선생님이 아까부터 자꾸 걱정하길래 가져왔어요.

숙정; 무슨 옷이길래?

연옥; 군복이에요. 보실래요. (보자기를 풀어헤치며)언니 참 별래요. 밤에 잘 때면 늘 이 옷을 품에 안구 자군하거든요.

숙정; 아니 이건 유격대군복이 아니예요?

진규; (의혹에 찬 어조로) 채금학생이 이걸 어디서?

연옥; 그러게말이에요.

숙정; (군복을 자세히 뒤적여보며) 어딘가 이 유격대군복이 펍 낮익군요. 어쩌면 바느질숨씨까지도 이처럼 신통히...

진규; 바느질숨씨요? 이름이 적혀있는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하하...

숙정; 아니예요. 우리 유격대재봉대원들은 그걸 잘 알아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아니고서는 이 혼술이라든가 옷깃을 이렇게는 마무리지 못해요.

진규; 존경하는 너사께서요?

숙정; 참, 채금동무가 동해방직공장에서 왔다지요?

연옥; 네, 채금언니 고생도 많이 하구 정말 불쌍하게 살아왔어요. 학교란 문전에도 못가보

구요.

진규; 참 들어보니 그 동무의 운명이 기구하더군요.

숙정; 그래요. 고향에도 일가친척들이 없는가요?

연옥; 아무도 없어요. 언니 열살때 량부모를 다 잃구 빗값에 지주집아이보개로 끌려갔다가 스물두살에야 겨우 놓여나와 시집을 갔는데 며칠 살아보지도 못하고 남편마저 정용에 끌려가 죽었다지 않아요.

숙정; 그래요? 그런 동무였군요. 그 동무를 꼭 만난 봐야겠어요. 이 군복에는 꼭 무슨 사연이 있는것 같애요. 어서 좀 찾아봐 주세요.

진규; 네. 연옥학생, 함숙엘 다시 한번 가보우. 그새 돌아왔는지 알겠소. 나도 찾아볼테니.

연옥; 네 알겠어요.

△연옥이 진규 각기 찾아떠나려는데 채금이 사색이 되어나온다. 람루한 작업복차림이다.

연옥; (채금을 발견하자) 아, 언니! 어디 갔댔어요? 언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채금; (굳어진채 말이 없다.)...

연옥; (심상치 않은 채금을 보자) 왜 그러세요. 어디 편치 않으세요?

채금; (여전히 말이 없다.)

연옥; 언니, 왜 그러세요. 실신한 사람처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채금; (가슴을 조이는 소리로)난 난 어찌문 좋니.

연옥; 무슨 일인지 말해야 알게 아니예요.

진규; (심상치 않으므로) 좌우간 무슨 일인지 여기 와 좀 앉소. 우에서 손님두 오셨는데...

△연옥이 쏘파쪽으로 채금의 손을 잡아 이끈다.

△이때 채금이 원탁우에 놓인 군복을 발견한다.

채금; (문득 걸음을 멈추고는 정신없이 군복을 품에 꼭 껴안는다.) 아니 이 군복이...이 군복이 어떻게 여기 와있어요?

연옥; 아니 그럼 이 군복때문에?...

채금; (애무하듯 군복을 불에 비비며) 이 군복을 찾느라구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몰라요. 잃은줄만 알구...

연옥; (사과하듯) 언니, 미안해요. 내가 그만...

채금; 됐어요. 인젠 됐어요. 난 연옥이가 꼭 진사했으리라구 믿었어요.

진규; (기분이 돌변한 채금을 보자) 허허허, 원 별것도 아닌걸 가지구...

채금; 허지만 전 이 군복만 품고있으면 온갖 시름을 잊구 힘이 솟군해요.

진규; 시름을 잊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채금; 이 군복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저에게 주신거예요.

일동; 김정숙동지께서?!

채금; 사실은 전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 군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구 생각했었어요. 허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피로와지구 뜻대로...

연옥; 언니, 혼자서 속에 품고만 있지 말고 어서 말해요.

진규; 무슨 사연이 있는 군복같은데 어서 말하오

채금; (회억에 잠기며 천천히 입을 뗀다.) 1945년 나라가 해방되던 해 초겨울이였어요. 그때까지만 하여도 전 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 빌어 먹고있었어요.

진규; 아니 나라가 해방을 맞았는데도 빌어먹고있었던말이요.

채금; 그러니 어찌겠나요. 병신된 몸이다보니 일 자리를 주는 사람도 없구... 왜놈때 정용으로 끌려가는 남편의 옷자락에 매달리는 저를 순사놈이 총탁으로 사정없이 내리쳐서 그만 갈비뼈가 두대씩이나 으스러졌었거던요. 그바람에 일자리에서도 쫓겨나구 거지신세가 되구말았어요. 그런데 설명절을 앞둔 어느날이였어요. 그때까지도 전 나라가 해방된줄도 모르고 《거지촌》이라고 불리우는데서 의지가지없이 살아가고있는 한 할머니와 함께 한집에서 근근히 살고있었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앓아눕게 되였어요. 그래서 앓고있는 그 할머니에게 색다른 음식이나마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방읍거리에 있는 2층집에 들렀었는데 글썽 그 2층집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계실줄이야 누가 알았겠나요. 후에 안 일이지만 그때, 녀사께서는 그곳 녀맹사업을 지도하고 계셨던거예요. 그러니 그때 녀사의 마음이 어찌했겠나요. 나라가 해방되었는데도 아직 거지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으니...그래서 녀사께서는 저에게 몸소 이 군복을 입혀주시면서 가난이 원썩가 아니라 지주, 자본가놈들이 원썩라구 말씀하시고는 바로 이런놈들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릴 때까지 언제나 총을 든 마음으로 억세게 싸워야 한다고 하셨어

요.

진규; (숙연한 어조로) 흐음! 그런 군복이었었구만!

숙정; (얼굴색이 빛나며) 아니 그럼... 혹시 동무가 47년 초가을에 그곳 휴양소에 머물렀던 일은 없었어요?

채금; 있었어요. 그때 존경하는 너사께서는 현지 지도의 그 바쁘신 틈에도 저의 신병을 고쳐주시고 휴양까지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숙정; 채금동무! 나를 모르겠어요? 그때 존경하는 너사를 모시고 함께 따라갔던...

채금; 네?! 아니 그럼 그때 오셨던... 아이 어찌나 제가 그만 미처 몰라봤군요. 그때 군복을 입으셨던것 같은데...

숙정; 호호호, 동무도 그간 펍 몰라보게 됐군요. 몸도 그때보다 펍 좋아지구. 그래 건강은 괜찮아요.

채금; 인젠 아무 일도 없어요. 무슨 일이든 척척...

숙정; 정말 다행이군요. 참 그때 우린 너사를 모시고 사진을 찍었었는데 어딜 갔었어요. 너사께서 동무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채금; 사실은 그날 저도 그 장소에 있었어요.

숙정; 뭐 있었다구? 원 모를 소리... 그때 찍은 사진에는...가만 그렇지! (품안의 수첩갈피에서 사진 한장을 꺼내어보이며)이게 바로 그때의 사진인데...

채금; (사진을 함께 보며) 사진에도 그때의 제가 찍혀있군요.

숙정; 찍혀있다니?

채금; (사진을 짚어보이며)이 삼형제소나무뒤쪽에 있는 큰바위옆에 숨어앉아 찍힌게 바로 저였어요.

숙정; 아니 그래 이게 동무였던말ियो?

채금; 네

숙정; 그런걸 난 또 누가 우연히 그렇게 찍힌줄만... 왜 숨었었어요. 그렇게도 찾았는데...

채금; 저같은게... 용서하세요. 전 그냥 사진을 찍을수가 없었어요.

숙정; 아니 왜?

채금; 저야 지난날 빌어먹던 너사가 아니었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곳 사람들은 쪽바지를 차고 다니던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나요. 거지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구...(목이 메어 흐느낀다.) 저때문에 그토록 고결하신 너사의 인품을

훼손시킨다면 그보다 죄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나요. 그래서 전 걸음을 돌리고 그 바위뒤에 숨어앉아 자신의 지나온 처지가 너무도 야속하고 한스러워 울고 또 울었었어요. (목이 맨다.)

숙정; (역시 목갈린 소리로) 어찌면... 어찌면 동문 그처럼...

채금; 전 정말 바보예요. 그래도 전 분에 넘치게도 너사로부터 두번째로 또 한벌의 옷을 받아안게 되었는데 너무도 송구한 마음에 이제 공장으로 돌아가면 세상에 제일 좋고 고운 천으로 존경하는 너사께 꼭 옷을 지어 드리리라 마음먹었었는데 아직도 전 그때의 그 소원을...

연옥; 언니!...

채금; 연옥이, 이제 와서 무엇을 숨기겠어. 사실 난 내 손으로 직접 비단천을 짜서 존경하는 너사께 기쁨을 드리고싶었어. 그래서 밤이면 공장에 나가 비단짜는 법을 배우구, 익히구...

연옥; (채금의 가슴을 쥐어박으며) 언닌 나빠요 나빠!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나에겐 한마디도 흑흑흑...

진규; 채금동무, 미안하오. 그런줄도 모르고 난 도망을 쳤다구만...

채금; 교무부장선생님, 제가 그만 규률을 위반했어요

진규; 아니요. 동문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걸 가르쳤소. 글뒤풀이가 되지 말고 학과학습이 반드시 생산실천과 결부돼야 한다는결말ियो.

숙정; 옳아요. 그것이 바로 장군님의 교육방침이예요. 정말 기특해요. 존경하는 너사께서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채금동무, 어서 가서 옷이랑 갈아입구 오세요.

채금; 어딜 가시려구요?

숙정; (의미있게 웃으며) 어디 먼델 보내려구 그래요.

채금; (질색하며) 아이 싫어요! 난 아무데도 안가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숙정; 호호호, 진짜 먼델 보낼가봐 겁이 나는게군.

걱정 말구 어서 갔다와요.

연옥; 언니, 어서요.

△연옥이 채금의 팔을 끈다. 채금이 군복을 보자기에 싸들고 나간다.

숙정; 채금동무에 대한 사실을 보고해야겠어요.
존경하는 녀사께서 들으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진규; 네, 정말 기뻐하시겠습니다.

숙정; 여기 전화기가 어디 있는가요?

진규; 네, 저쪽 교장실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숙정; 바쁘실텐데 제가 찾아가지요. (나가려다 말고) 참, 교무부장선생님, 직업동맹 교원직맹에서 무슨 이야기가 없던가요?

진규; 있었습니다. 좀전에 전화가 있었는데 주로 채금동무에 대해서 많이 묻더니 오후에 그곳 부장동무가 직접 이리로 나오겠다더군요.

숙정; 그래요. 회의대표문제와 관련한 실무적인 사업때문에 그럴거예요. 잘 말씀을 올려주세요. 채금동무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가지도록 말이예요.

진규; 네, 알겠습니다.

△숙정이 교무실복도쪽으로 나간다.

진규; (숙정이 나가자 생각이 미친듯) 참, 직업동맹 부장동지가 오면 채금동무의 문건부터 료해하려고 할테지.

△진규 교무실 안방으로 사라진다.

△무대는 잠시 빈다.

△이윽고 연옥이 바깥복도쪽에서 원기를 안내하여 나온다.

연옥; (손질하며) 저, 여기가 교무부장선생님방입니다.

원기; 그렇소. 고맙소 지금 계시우?

연옥; 네, 계실거예요. (교무부장실문을 손기척했으나 웅대가 없자 문을 열어본다.) 안계시는군요. 찾아오겠습니다.

원기; 가만, 그보다도 이자 그 동무이름을 뭐라고 불렀소?

연옥; 누구말인가요?

원기; 방금 동무와 함께 합숙으로 들어가던 동무말이요,

연옥; 네! 채금언니말이지요. 이제 이리로 올거예요. 왜 그러시나요?

원기; 아니 그저 좀... (입속말로)응, 그동무였됐구만. 허허허, 학생이 그렇게 람루해서야 되나 차림이야 단정해야지.

연옥; 오늘, 언니가 좀 그럴 일이 있었어요.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연옥이 교무실 안방쪽으로 나가려는데 그쪽에서 진규 나온다.

연옥; (진규를 보자) 아 교무부장선생님, 직업동맹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진규; 직업동맹에서? 어디 계시우?

연옥; 지금 대기실에 계시요. (교무부장실 나들문을 열고) 저 교무부장선생님이 계십니다.

원기; (나들문을 들어서며) 교무부장선생님 안녕하시우.

진규; 아, 부장동무시군요. 그러지 않아도 채금동무를 만나보시겠다기에 지금... 연옥학생, 어서 가서 채금학생을 부르오.

연옥; 네 알았습니다.

원기; 허허허, 이거 콩밭에 서술을 치렵니까.

진규; 허허허, 서둘러야지요, 학생이 큰 회의 대표로 선출된것은 우리로서도 영광이니까요.

원기; 방금 지나가는걸 얼핏 보았소.

직접 만나서 담화를 해봅시다.

그 동무가 어느 학교를 나왔소.

진규; 학교를... 겨우 근로자학교를 나왔는가봅시다.

원기; 지식정도는 근로자학교라... 어찌겠소. 지난날 공부를 못했으면 그럴수도 있지.

진규; 그럼요. 교생도 많이 하구 좋은 동무입니다.

원기; 그런게 문제가 되지 않지요. 적어도 국가를 대표하는 회의대표인데 수준이 이래가지구서야...

△이때 연옥이 채금을 데리고 바깥복도쪽에서 나온다. 채금이는 새 옷을 단정히 갈아입고 있었다.

△연옥이 교무부장실 문을 두드린다.

진규; 네 들어오시오.

연옥; (나들문을 열고)저 채금언니가 왔습니다.

진규; 어서 이리로 들어오도록 하오.

△연옥이 채금을 밀어 들여보낸다.

△채금이 가볍게 허리굽혀 인사한다.

원기; 불러서 안됐소.

채금;

원기; 공부하기가 힘들지 않소?

채금; 네, 그저 좀...

원기; 허허허, 대답이 애매하구만, 힘들게요. 왜 안힘들겠소. 여긴 근로자학교와는 다르니

까. 고등수학을 풀어야 하거던 허허허.

채금; 저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요?

원기; 허허허, 고등수학을 풀수 있겠는지 좀 알아보려구 그러요.

채금;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지며) 그래요? 전 바로 그걸 모르기에 학교에 배우러 왔어요. 그런 일로 찾았다면 전 실례하겠습니다. (나간다.)

진규; 아, 채금동무!...

원기; (만류하며) 아, 그냥두시오...

△연옥이 대기실에 나선 채금을 의아한 눈길로 바라본다.

△나들문사이로 진규와 원기의 주고받는 말소리가 새어나온다.

원기; 그 동문, 안되겠소. 우의 지시도 있구 해서 일정하게 준비된 동문줄 알구 왔는데... 허참 뜻밖인걸. 그래 교무부장선생의 생각은 어떨소? 적어도 나라를 대표해야 할 인물인데 아무 사람이나 막 뽑을수야 없지 않소.

진규; 나라를 대표한다구요?

원기; 그렇소. 말하자면 국제회의에 참가할 대표인것만큼 연설개나 할줄도 알구 또 외국어도 어느정도 알고있어야 할게 아니겠소.

진규; 글썄요. 그렇다면 보다 중요한것은 지식보다 사상이 아닐가요? 저의 생각에는 채금동무야말로 국제회의대표로 참가할수 있는 준비된 동무라고...

원기; 허허허, 교무부장선생,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시오. 이 문제는 국가적립장에서 랑정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내회의라면 또 몰라도... 어쨌든 채금동무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일하는 우리들이 실패를 옹계 반영해야 우에서도 옹은 결심을 내릴수 있습니다. 다른 동무를 선발합시다. 개인 문건들은 다 가지고있을테지요?

진규; (덤덤히)네, 저쪽 안방에... 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원기; 허허허, 걱정 마오. 교무부장동무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니까. 들어가봅시다.

△원기 먼저 안방으로 앞선다. 진규 덩덤히 따라들어간다.

△묵묵히 앉아 방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듣고 있던 연옥이 자리를 차고 일어선다.

연옥; 언니, 내 당장 가서 당조직원동지에게 알려졌어요. 사람을 우습게 안다니까요.

채금; (만류하며)연옥이, 그만뒤.

연옥; (뿌리치며)놓으라요. 언닌 분하지도 않아요. 무식쟁이로 여기는게...(횡하니 나가버린다.)

△서글픈 음악이 흐른다.

△채금이 눈굽을 훔친다.

△사이

△이윽고 연옥이와 함께 숙정이 나오다가 울고있는 채금을 발견한다.

숙정;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들 그래요?

채금; (숙정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오열을 터뜨린다.) 조직원동지, 전 아무데도 안가겠어요.

전 배운것도 없구... 난 여기가 제일 좋아요.

숙정; (의아하여)아니 동무가 배우지 못한걸 누가 탓했기에 그래요?

채금; 전 다 알았어요. 어디에 보내려는지 다 들었어요. 나같은 천덕꾸러기 무식쟁이가 어떻게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큰 회의에 참가할수 있겠나요.

숙정; 아니 누가 뭐라구 했기에... 말을 해야 알게 아니예요.

연옥; 정말 옳지 않아요. 사람을 업신여긴다니까요. 전 뭐 배속에서부터 배워가지구 나왔는가?

숙정; 누가 누구를 업신여긴다는거예요.

연옥; 직업동맹에서 내려온분이 그러는데 채금언닌 무식해서 국제회의대표로 될수 없다는 거예요.

숙정; 직업동맹에서 내려온분이?...

연옥; 네, 지금 교무실에 있어요.

숙정; 그래요? 알겠어요... 내 알아볼테니 여기 좀 앉아있어요.

△숙정이 교무부장실에 들어선다.

△이때 방 안쪽에서 다툼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원기와 진규 나온다.

숙정; 부장동무...

원기; 아, 마침 당조직원동지가 오셨군요. 그러지 않아도 조직원동지가 여기 와 계신다기에 좀 의논하려고 지금...

숙정; 무슨 일인데요? 박채금동무를 만나보았는

가요?

원기; 네, 문건도 보고 또 본인과 직접 담화해보았는데 국제회의대표로서는 좀 곤란할것 같습니다.

숙정; 왜요? 수준이 낮아서요?

원기; 물론 그 점도 고려되구 또...

숙정; 또 뭐가요? 그래 부장동문 자신이 수준이 높아서 부장위치에서 사업한다고 생각하는가요?

원기; 네? 그건 어떻게 하시는 말씀인지?

숙정; 부장동문 사람을 잘못 보구있어요.

원기; 네?

숙정; 지금은 지난날 천대받구 못살던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그런 세상이예요.

원기; 그야 물론...

숙정; 그렇다면 지난날 돈냥이나 있어서 공부깨나 한 사람을 국제회의대표로 보내야 할가요?

원기; (당황하여)아니 전 결코 그런 의미에서 한말은... 큰 국제회의인것만큼 나라의 권위문제를 생각해서...

숙정; 나라의 권위문제를 그 어떤 지식높이에서 찾는다면 그건 잘못이예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채금동무가 지난날 어렵게 살아서 비록 배운것은 적지만 장군님의 품속에서 하나를 알아도 똑똑히 배우고 티없이 맑은것이 좋다고 하셨어요. 백을 알고 천을 안들 충성심이 없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원기;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하지만 그 동무의 현재 준비정도를 가지고는 우리 나라의 국제적권위를 지켜낼수 있겠는지 저로서는 책임을 질수 없습니다.

숙정; 그에 대해서는 걱정 마세요. 채금동무는 장군님의 위대한 품속에서, 당원으로, 새시대 주인으로 자라난 충실한 동무예요. 그러기에 바로 장군님의 사업을 직접 보좌하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채금동무를 국제회의대표로 추천하신거예요.

원기; 네? 김정숙동지께서요?!(몹시 놀란다.)

△일동 감격에 설레인다.

숙정; 그래요. 저도 방금 그 사실을 당에서 전화를 받구서야 알게 됐어요!

연옥; 언니! 존경하는 너사께서 언니를 국제회의

대표로 추천하셨대요!

채금; (걱정에 넘쳐) 연옥이! 내가, 내가 국제회의대표라니!...

△채금이 목메여 흐느끼는 소리에 숙정이 대기실로 나신다.

△모두 채금을 뜨거운 눈길로 바라본다.

원기만이 자책에 잠긴다.

△방창이 조용히 흐른다.

방창; 그 옛날 살아서도 죽은 몸으로 천대속에 눈물짓던 가난한 녀인 해방의 그날부터 베푸신 은정 가슴에 차고넘쳐 눈물집니다

△방창이 고조되는 속에 천천히 암전된다.

제 2 장

△전장으로부터 며칠후 같은 장소.

무대; 교직원청사앞 정원

오른편으로 교직원청사의 일부가 보이고 왼쪽에는 해묵은 큰 버드나무가 한그루 서있고 그밑에 나무의자가 놓여있다. 원경으로 대동강물결이 명주필처럼 흐르고 모란봉 을밀대가 그림처럼 바라보인다.

△무대 불이 밝아지면 해질무렵 서쪽하늘에 노을이 붉게 탄다.

△버드나무 우듬지에서 못새들이 우짖는다.

△무대는 잠시 빈다.

△이윽고 연옥이를 비롯한 녀학생들이 허리를 꼬듯 웃어대며 나온다.

그들은 저마다 꽃뭉음을 들었다.

연옥; 정말 채금언니가 또 도서관엘 간게 아닐가? 함숙에랑 정원에도 안보이니말이야?

학생1; 그러게말이야, 떠날 시간도 몇시간 남지 않았는데...

학생2; (무대밖에서 시선이 가더니) 얘, 저기 채금언니가 온다 와!

연옥; 애들아, 어서 준비하자!

△일동 서둘러 꽃뭉음을 들고 줄지어선다.

△이윽고 채금이 나온다.

△모두 달려가 채금에게 꽃뭉음을 안긴다.

채금; 호호호... 요즘은 똥똥 떠받들리올래기 통 정신을 못차리겠구나.

연옥; 언니, 오늘은 아침부터 어딜 갔었어요?

학생1; 도서관엘 갔었어요?

채금; 아니.

학생2; 그럼 재단사가 또 찾아왔던게군요.

채금; 저기도 아니야.

연옥; 아이 그럼 어딜 갔었어요? 꽃다발을 만들 어놓구 여태 찾았었는데...

채금; 우편국에 가서 축하전보를 치구 오는길이야.

일동; 우편국에요?

채금; 그래, 내가 있던 직장에서 김일성장군님의 현지교시를 받들구 상반년계획을 한달이나 앞당겼어!

연옥; 어찌면 언니 그저 떠나는 날까지...

학생1; 공장일밖에 모른다니까요.

채금; 그러니 어찌했니, 나야 노동자학생인걸.

연옥; 아이참, 우린 뭐 사무원학생인가?

△일동 즐겁게 웃는다.

학생2; 참 언니, 아까 미용사동무가 왔었는데 왜 아직 머리를 그냥두었어요? 머리를 하지 않구...

채금; 그런것보다 난 마른 근심이 산더미같다.

채금; 나같은게 글썄 국제회의대표로 갈줄을 꿈에나 생각했잖나!

연옥; 언니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채금; 어쩐지 난 요즘 잠도 제대로 오지 않는다. 나같은 천덕꾸러기가 가서 김일성장군님과 존경하는 너사의 높은 뜻을 잘 받들어내겠는지?...

연옥; 언니, 걱정 말아요. 언니의 그 마음이 언니를 굳세게 할거예요.

채금; 고마와! 연옥이, 내 돌아올 때까지 옷을 잘 간수해줘요.

연옥; 군복말이지요. 걱정 말아요. 그 군복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거울이기도 해요.

학생1; 언제 떠나게 되나요?

채금; 래일저녁 비행기편으루... 참 당조직원동지가 이리로 온다구 했어요.

연옥; 그럼 우리도 함께 민항역으로 나갈래요.

채금; 그만들둬. 복습과제들이 많겠는데 공연히 시간만... 참 연옥이, 가있는동안 짹짹

공부하게 내게도 복습과제를 줘. 연옥인나의 호조책임자가 아니야.

연옥; (감탄조로) 참 언니 빈틈이 없다니까! 드려요. 그대신 돌아오면 외상없이 받아낼테니 그리 아세요.

채금; 걱정 말어. 내 무슨 문제든 다 풀어가지구 와서 검열을 마칠테니!

연옥; (가방에서 책을 꺼내주며)자요. 이 책엔 비단짜는 법이 다 적혀있어요.

채금; 아니 이런 책을 어디서?...

연옥; 언니가 밤마다 나가 비단짜는 법을 익히던 그 공장 기능공양성소에 가서 구해왔어요. 언니의 소원대로 존경하는 너사께 어서 비단옷선물을 해야 할게 아니나요.

채금; (감동되어) 연옥이 고마와!

연옥; 고맙긴요. 나야 언니의 호조책임자인걸요.

△일동 즐겁게 웃는다.

△이때 진규 미용사를 데리고 나온다.

진규; 채금동무. 미용사동무가 또 나왔소. 미용사동무의 성의를 봐서도 어서 가서 머리를 하오.

미용사; 미안해요. 자꾸 찾아와서, 하지만 어찌겠나요. 우에서 말씀 있어와서...

채금; (난처하여) 머리하기를 싫어서 그러는게 아니라구 그만치 사정을 했는데두.

미용사. 그러니 어찌겠나요. 저도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보니... 더구나 외국으로 떠나는분의 머리를 하게 된 행운은 저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영광을 어떻게 놓쳐버릴수 있겠나요. 호호호.

연옥; 언니, 어서 가봐요.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학생1; 큰 국제회의인데 머리도 안하구 가겠나요?

채금; 참 딱하군요. 전 이 틀개머리가 제일 좋아요.

미용사; (어쩔수 없는듯)정 그렇다면 (손가방에서 종이와 연필을 꺼내주며)여기다 리유를 밝히구 수표라도 좀 해주세요.

채금; 네? 수표요?

미용사; 호호호... 어찌겠나요. 우에서 내려오신 분이 이미 대금까지 다 지불하고 신선 당 부하였었는데 우리가 말을 들을것 같아서 그래요.

채금; 우에서 내려오신분이요?

연옥; 언니 누굴가? 대금까지 지불했다니... 직총에서 일보신다나봐요.

진규; 아, 직업동맹 부장동무신가보군.

미용사; (무대밖에 시선이 닿더니) 아 저기 마침
그분이 오시는군요.

△이윽고 원기 러행용트렁크를 들고 들어
온다.

원기; 아, 여기 다들 모였군.

△일동 원기에게 인사한다.

원기; 채금동무, 준비가 어떻게 됐소? 이제 당조
직원동지가 나옴텐데 한번 보란듯이 옷이
랑 같이입구 화장도 좀 해야 할게 아니요.
(트렁크를 가리키며) 이속에 다 들어있소.
조선옷과 양복이 뒤벌씩 되구 화장품이랑
일체 소지품들도 빠짐없이...

채금; 부장동지, 공연히 저때문에!...(뜨거운 마
음에 진심에 차서 말한다.)

원기; 무슨 소릴... 다 내 사업인걸 허허허...채금
동무, 날 나무람 마오. 이번 일을 두고 난
자신을 많이 돌이켜보게 됐소.

채금; 아이 별말씀을...

미용사; 저 말씀중에 안됐습시다만...

원기; (그제사 미용사를 발견하고) 아, 미용사동
무도 와있었구만.

미용사; 전 어떻게 하랍니까?

원기; 어떻게 하다니?

미용사; 세번씩이나 찾아왔었는데 대표동무가 종
시 말을 듣지 않아서...

원기; 뭘말이요?

미용사; 틀개머리가 좋다면서 머리는 정 못하겠
다는군요.

원기; 그래? 본인이 못하겠다는걸 난들 어찌겠소.
그만둘수밖에...

미용사; 네?! 아니 아침까지만 해도 철석같은 부
탁이더니 그렇게 쉽게 물러서는 법도 있나
요?

원기; 미용사동무, 사실은 머리하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대표동무의 틀개머리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소.

미용사; 사연이라니요?

채금; 부장동지!...

원기; 채금동무, 내 당조직원동무한테서 다 들었
소. 어서 이야기하오.

미용사; 무슨 사연이길래 그토록... 어서 좀...

연옥; 언니!...

△모두의 시선이 채금에게 쏠린다.

△채금이 경건히 머리를 쓸어넘긴다.

채금; 이 머리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
서 몸소 틀어주신거예요.

일동; 김정숙동지께서요?

채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되던
해 초겨울 우리고장에 오셨을 때였어요.
그때 녀마같은 옷을 걸친 저를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여 단한벌 새 군복마저 저에게
입히시고는 나라가 해방되었는데 꽃같은
젊은 나이에 비너를 꽃고 다니면 사람들이
봉건이라고 흉을 볼수 있다시며 이렇게
몸소 틀개머리를 얹어 주셨어요. 녀사의
그 사랑어린 말씀에는 낡은 사회에서 물려
받은 모든 허물을 하루빨리 가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해발아래서 사람답게 살도록 이
끄시려는 크나큰 은정이 깃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은정을 저버리고
머리를 자를수 있겠나요. 전 이 틀개머리
를 영원히 간직하겠어요.

미용사; 어쩌면 그토록 고결한 말씀을...

원기; 나도 뒤늦게나마 존경하는 녀사의 그 고결
한 말씀에서 사람의 가치가 그 어떤 지식
의 높이나 차림새에 있는것이 아니라 마음
의 깊이, 충실성의 높이에 있다는것을 진
심으로 느낄수 있었소!

△모두 공감한다.

미용사; 전 그런줄도 모르구... 대표동무, 저의
소원이에요, 존경하는 녀사께서 몸소 틀어
주신 그 소중한 틀개머리를 제가 단장하도
록 허락해줄수 없겠어요.

채금; (감동)고마와요. 미용사동무!

진규; 부장동무, 준비를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요.
당조직원동지가 곧 나오겠는데...

원기; (그제사 손목시계를 보며)참, 채금동무,
이 트렁크를 받소. 옷이랑 신발이랑 필요
한건 이 속에 다 들어있소! 당조직원동무
가 일일이 명세를 대줘서 모두 특별주문을
한것들인데 걱정되는건 굵높은 신발이요.
발에 맞겠는지 어서 신어보오...

△이때 승용차가 와서 멧는 소리 난다.

△모두 소리나는쪽에 시선이 쏠린다.

연옥; 아이 저기 당조직원동지가 오세요.

△이윽고 숙정이 보자기에 작은 지함을 싸
들고 들어온다.

△모두 그에게 인사한다.

숙정; (가볍게 답례하고는 채금에게) 채금동무, 방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만나 뵈구 오는 길이에요.

채금; 네?!

△모두 숙정의 두리에 모여선다.

숙정; (원기에게) 부장동무, 준비는 어떻게 됐어요,

원기; 다 됐습니다. 이 트렁크에 모두...

숙정; 수고했어요. 다른것은 다 괜찮은데 신발만 좀 보여주세요.

원기; 네. (트렁크에서 굽높은 구두를 꺼내며) 여기 있습니다.

숙정; (신발을 보고는) 이렇게 굽이 높으니 심려하실 수밖에...

원기; 무슨 말씀이라요?...

숙정; 존경하는 녀사께서는 친히 저를 댁으로 부르시어 떠나실 때 대표단들의 준비정형을 하나하나 료해하셨어요.

채금; 녀사께서 친히요!

△모두 경모의 정에 잠긴다.

숙정; 녀사께서는 명세에 밝힌 특별주문품들에서 굽높은 신발을 보시자 잠시 낯색이 흐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채금동무는 어려서 고무신조차 제대로 신어보지 못한 동무인데 갑자기 굽높은 구두를 신으면 불편해 할수 있습니다. 내게 새구두가 한 켤레 있으니 꼭 이것을 신고 떠나도록 하세요.》라고 하셨어요. 전 며칠씩이나 채금동무의 떠날 준비를 말아보면서 미처 생각이 닿지 못했었는데 존경하는 녀사께서는 신발문제에 이르기까지 몸소 헤아리시구! (지함속에서 굽낮은 구두를 꺼내며) 어서 받으세요.

채금; (너무도 감격이 커서 말을 못한다.)

△채금의 격동된 심정을 담아 내면독백이 실화로 울린다.

△덕성음악이 조용히 흐른다.

설화; 그 옛날 쪽박을 들고다니던 이 몸에 연필을 쥐여주시고 누데기를 걸친 이 몸에 자신께서 입으실 단 한벌의 새 군복으로 포근히 감싸주시며 어서 나라의 주인이 되라고 이끌어주시더니 오늘은 또 세상 정사를 의논하는 영광의 길에 뿔뿔이 내세워주시려고 이토록 뜨겁고 위대한신 은정을 베푸

십니까!

숙정; 녀사께서는 지난날 우리 녀성들은 길을 걸어도 골목길을 걸었고 뺨을 맞아도 머리를 숙여야만 했지만 오늘은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 큰 국제회의대표로 큰걸음을 내디디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고 하시며 예로부터 우리 녀성들은 외적을 치러 귀한 사람들이 전장으로 떠날 때 머리태를 잘라 신발창을 만들어 신겼다시며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신발을 마련했는데 발에 맞겠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셨어요. (보자기 풀고 지함속에서 굽낮은 구두를 꺼낸다.) 어서 신어봐요.

채금; (눈물이 앞서 발을 옮기지 못한다.)

△숙정이 신발을 신겨준다. 그리고는 손을 잡아 이끈다.

△채금이 숙정이 이끄는대로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숙정; 앞볼이 좁지 않아요?

채금; 아니요.

숙정; 발꿈치가 조이지 않아요.

채금; 아니요.

숙정; 발들이 놀리우지 않아요.

채금; 아니요...(끝내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린다.) 김정숙어머니! 신발이 꼭 맞습니다! 흑흑흑...

△일동 걱정애 넘쳐 눈굽을 훔친다.

숙정; 채금동무, 어서, 차에 오르세요. 존경하는 녀사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옛날 천덕꾸러기 채금이가 오늘은 어엿한 나라의 역군으로 자란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시며 떠나기전에 대표단전원이 장군님을 만나뵈도록 친히 자리를 마련해주셨어요!

△숙정이 채금의 팔을 끼고 천천히 자리를 뜬다.

△원기 트렁크를 들고 따른다.

△방창이 조용히 흐른다.

방창; 햇빛아래 넘치는 크나큰 은정
그 언제나 가슴깊이 젖어옵니다
녀사께서 이끄시는 사랑의 길에
충성으로 그 영광을 빛내립니다

△모두 떠나는 채금을 손저어 배웅한다.

△저녁노을이 더욱 붉게 탄다.

교육테제 만세!

장윤길

열매익는 내 나라
들꽃 설레는 강산에
기쁨의 노래소리
행복의 글소리

흰구름 피어나는
9월의 하늘가에도
기쁨의 노래소리
행복의 글소리 울려 퍼져라

마을마다 거리마다
꽃대문을 세워
개학을 맞는 아이들을
명절속에 맞아주고

낮에는 해빛밝은 창가에서
새세대들 이 글을 배우고
밤에는 불빛밝은 창가에서
일하는 인민들이
배움을 즐기나니

위대한 수령님 펼치주신
교육테제해발아래
존엄을 떨치며 궁지에 넘쳐
사람마다 배움의 웃음꽃 피우는 내 나라

아 항일의 준엄한 싸움의 그 나날
폭풍세찬 백두의 밀영에서도
투사들 가슴마다
배움으로 혁명사상 익혀주시며
나어린 아동단원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하나하나 진리를 깨우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사랑속에
우리 조국은
연필문제로부터 정사를 의논했고
우리 인민의 새 삶도
문맹퇴치로부터 시작되었어라

운명을 판가리하는
혈전의 언덕에서
승리한 조국의 앞날을 그려보시며
싸우는 고지의 용사들을
대학으로 다시 불러주신 수령님
그 사랑으로
교육테제의 글발은 새겨졌나니

타버린 조국의 재무지빈터우에
아이들의 학교부터 세워주시던 그 사랑으로
교육테제의 조향조향을 엮으시고
책상에서 처음으로
온 사회 인테리화의 넓은 길 펼치시며
공산주의교육강령을 안겨 주신
위대한 수령님

자랑이여라
이름없는 두메
저 멀리 외진섬에 가도
떠가는 배
달리는 열차에 올라도
학교가 있고 대학이 있는 나라

행복이여라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아버이로
학부형으로 모시고
온 나라 인민이 학생이 되어
배우는 나라
교육을 받는 나라

80년대의 숨결로 내닫는 이 땅
온 사회의 인테리화로
문명의 높은 절정우에
온 나라 인민들을 세워주는
교육테제 만세,
사회주의교육테제 만만세!

산촌의 가을날에

리동후

층계우에 또 층계
끝마다 언덕마다
무거이 흐느적이는 강냉이바다
산이 온통 금파도에 떠실렸구나

오를수록 흐뭇한 마음
알찬 이삭의 무게를 느끼며
한가슴에 안아보는
풍요한 산촌의 가을이여

오를수록 후더운 가슴
오솔길 굽이굽이 다락밭 층계마다
수령님 다녀가신 사랑의 자욱
뜨겁게 어려있는 산언덕이여

한줌흙을 손에 드시고
산농사를 소리치며 지어보자고
호탕하게 웃으시던 인자하신 그 영상
하늘 한가득 어려오나니

아, 그 사랑 그 미소
해마다 행복의 열매로 무르익어
만풍의 환희로 끝없이 설레이는
다락밭 다락밭

강냉이농사에서 처음 보는
풍요한 산촌의 이 가을
아버이수령님께 아뢰고싶은
간절한 마음이여

아, 그 마음들이 어려서
노을은 저리도 아름다운것인가
그 마음들이 붉어서
노을은 저리도 불타는것인가

만풍의 탑으로 솟은
다락밭 저너머
피어나는 금노을 금노을은
멀리 수도의 하늘가로 비끼였구나

공화국기발

신병광

번창한 거리-
어느 아파트 창가에 날리는
기발이 아니다
북과 남, 락원과 지옥의
두 경계선에서 날리는
오-판문점 공화국기발!

낮에도 밤에도
쉽없이 펄럭이는 저 소리를
저기 북녘이 듣고...
저기 남녘이 듣고...

밤에도 낮에도
불길처럼 타번지는 저 기폭을
여기 북녘이 보고...
저기 남녘이 보고...

조국은 둘로 갈라졌어도
하나의 바람결에 날리는 저 펄럭임소리

남북 삼천리 어디서나 보이는 저 기폭-
미제는 그 무엇으로도 가를수 없는
아-5천만의 강렬한
이 통일의 열망!
이 통일의 지향!

태양을 그리는 그 마음이 물결쳐 파도쳐
형제를 그리는 그 마음이 파도쳐 물결쳐
기발이여 솟구치며 부둥켜안는 그 높이에
기발이여, 너는 5천만 겨레의 마음으로
분계선상공에 나뭇기나니-

백두산천지에서 휘날린 공화국기발
수령님 높이 모실 통일의 광장에 휘날릴 기발
내 여기에 서서 오래오래 바라보노라니
그날의 환희에 젖어 절로 뜨거워지는 눈곱...
어둡비긴 남녘의 저 한끝 어디선가
아- 통일의 환호성 메아리쳐온다.

출발점

김정

그것은 창평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풍호가 보낸 편지였다.

나는 결봉을 뜯지도 않고 책상한끝으로 편지를 밀어놓았다. 그 부위원장은 벌써 한달사이에 세 차례의 청원을 들이댄것이다.

청원?

그렇다, 나는 이 세번째편지의 사연도 틀림없는 청원일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첫번째 편지를 받은것이 한달전이다. 그 청원은 나를 무척 감동시켰었다.

그러나 감동은 5분도 지속되지 못하였다.

전화종소리가 울리자 나는 편지를 서랍속에 다급히 끌어넣었고 방금 익힌 주소를 헛갈릴 정도로 복잡다사한 실무에 파묻혀버리었다.

두번째 편지 역시 그렇게 처리되었다.

서랍속에는 다른 신소청원들이 무데기로 들어 쌓여있었다. 사흘이 지나가기도전에 나는 김풍호의 부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었다.

나는 첫 편지와 두번째 편지를 합친것보다는 부피가 더 큰 세번째 편지를 굵어보면서 눈살을 찌프리었다. 이 편지는 어쩐지 뚜껑을 헤치고싶은 흥심조차 나지 않았다. 신소장이나 청원편지를 읽는것말고도 나에게는 할 일이 수두룩한것이다.

나는 전화로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북방의 수암역을 찾았다. 래달 중순에 가지기로 예정된 방식상학준비정형을 료해하기 위해서였다. 정치국 집행위원회는 철도부적으로 진행되게 될 이 방식상학준비를 나에게 위임하였던것이다.

준비사업이 잘돼간다는 통보가 며칠전에 현지에서 날아왔지만 그것으로 마음을 놓을수는 없었다.

《여기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사에 능통한 수암역장 리만석은 이런 말로 나를 달래었다.

물론 나는 그의 말을 믿는다. 그는 내가 《타고난 일군》이라고 줄곧 칭찬하는 사람이며 또한 그런 리유와 근거로 하여 그가 일하는 수암역을 시범상학단위로 정하게까지 된것이다.

《수암역장 리만석이 전화를 받습니다.》

약간 석신듯하면서도 결결한 역장의 목소리가 지척에서처럼 들려왔다.

수화기의 감도는 오늘따라 별스레도 좋았다.

리만석의 활기에 찬 목소리를 김풍호의 편지와 또 아귀를 짓지 못한 몇가지 일로 하여 잔뜩 무

거워진 내 마음속에 생신한 바람을 불어넣은듯하였다.

나는 국수분들처럼 구멍이 송송 뚫린 송화구를 입으로 혹 불고나서 큰소리로 물었다.

《내 부국장이요. 역장동무, 방식상학준비가 어떻게 돼가요? 그새 얼마나 더 진척되었소?》

《부국장동지, 또 마음이 놓이지 않는게구만요.

급수탑건설은 어제 오전에 끝났습니다. 역사내 부정리와 대합실, 음료수설비설치도 기본적으로 마무리를 해놓은셈입니다. 이번에 군당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기쁜 일이요. 철도를 지원하는 바람이 온나라 방방곡곡에서 불고있소. 수암역을 잘 도와준 군당일군들에 대해 기사가 이제 곧 <로동신문>에 나가게 될거요.》

《국에서 걱정하던 요진통은 다 해제졌으니 이제는 마음을 꼭 놓으십시오.》

《그래, 마음을 놓겠소. 역장동무, 정말 수고가 많았소. 며칠후에 내 거기 가서 준비정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겠소.》

《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흡족한 기분으로 송수화기를 놓았다. 수암역장과 통화를 하고나면 매번 그렇게 이상스러울 정도로 마음이 흐트해지곤하는 나였다.

(역시 나무랄데없는 역장이야. 믿음이 가는 일군이거던. 그래 그의 말대로 이제는 마음을 꼭 놓자.)

조심스레 두드리는 손기척소리가 내 생각을 깨트리었다.

《들어오시오.》

나는 수면부족으로 깔깔해진 눈두덩을 문지르면서 사무적인 어조로 소리쳤다.

주머니가 밖에 달린 보위색 숨저고리를 입고 물이 좀 남은 씨루직털모자를 손에 움켜쥔 체소한 사나이가 모재비로 문가에 들어섰다. 그의 빈약한 몸집은 무릎언저리에까지 거의 닿을듯한 크고 후렁후렁한 숨저고리속에 꼭 파묻혀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보이였다. 그러나 이마에 잡힌 주름과 진지하고도 도고한 눈빛, 관자노리의 희끗희끗한 머리털들이 대번에 그런 인상을 지워버리게 하였다.

사나이는 왼쪽 손등우에 털모자를 씌우고 오른손으로 귀덮개를 매만지면서 잠시 내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렸다.

(언거퍼 들이닥치는군. 이거야 어디 숨을 쉴수

있어야지)

산더미처럼 쌓인 일감을 눈앞에 두고 출근후 벌써 세번째 방문객을 맞이하는 내 마음은 자꾸만 초조해졌다.

나는 단한번의 눈길로 상대방의 직업과 직무, 지어는 내 방에 찾아온 리유까지 알아맞히려고 애쓰면서 머리를 쳐들었다.

《아바이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순간 사나이의 한쪽 입가에는 알릴락말락한 웃음이 스쳐지나갔다.

《말씀을 낮추십시오. 난 아직 그런 대접을 받을만한 나이가 못되었습시다.》

당황한 나는 눈두덩을 문지르며 사나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아바이가 아니라고 단정할 표징은 찾아낼수 없었다. 세월은 이 자그마한 사나이의 얼굴에 너무나도 때이르게 로년의 딱지를 새겨놓은상싶었다.

나는 저렇게 곁눈은 사람들은 일평생 부모자식과 이웃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했을것이라는 제나름의 생각을 하면서 말투를 바꾸었다.

《이거 실례했소. 그래 동무, 무슨 일로 왔소?》

《방통때문에 왔습시다.》

《방통때문이면 배차사령에 들릴것이지 왜 여기까지 왔소?》

《거기 안들릴턱 있습니까? 배차사령은 물론 수송지휘국에도 들렸습지요.》

《거기서 동무더러 뭐라고 합니까?》

《이달중으로는 덮어놓고 안된다는거지요. 뭐 계획이 치차처럼 꼭 맞물려있다나요. 말을 들어보니 정말 방통사정이 딱하긴 합디다. 생각다못해 부국장동무를 찾아왔지요.》

체소한 사나이는 앉을 자리를 찾기도 하는듯 좌우랑옆을 두리번거리었다. 장기전을 벌릴 잡도리인것 같았다.

그가 짜장 《진드기전술》로 나오는 날에는 오늘 한것의 일도 진작 다 망쳐먹는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일부러 뻔뻔한 표정을 짓고 차갑게 사나이를 쳐다보았다.

《배차사령이나 수송지휘국에서 안된다고 했으면 부국장도 어쩔 재간이 없소. 여기에... 나한테 괜히 온것 같소.》

체소한 사나이는 그런 엄포쯤은 아무렇지도 않은듯 끄떡도 않고 빌붙는 웃음을 지어보이였다.

《그래도 부국장동무한테야 무슨 용수가 있겠지요.》

《거... 예비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동무는 부국장이 옆구리에 무슨 방통주머니라

도 차고 다닌다고 생각하는게 아니요? 이거 정말 썸판을 모르는구만.》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 《허허허...》하고 너털웃음을 웃었다.

체소한 사나이는 그래도 비양거리는 내 말본새를 탓하지 않고 질깃질깃하게 애걸을 하였다.

《부국장동무, 그러지 마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일을 전폐하고 불원천리 여기까지 찾아온 촌사람의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내 오죽하면 부국장실에까지 나타났겠습니까.》

《동무는 어느 기관에서 왔소?》

《창평군인민위원회에서 왔습시다.》

《그럼 김풍호부위원장이 보냈겠구만?》

《제가 바로 김풍호올시다.》

김풍호의 입가에는 빙싷 웃음이 떠올랐다. 상대방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있다는데서 오는 안도의 웃음일것이다.

나는 당황하여 서류철옆에 있는 김풍호의 편지를 얼핏 일별하였다. 아직 속지를 뽑아보지도 않았는데 편지의 입자가 제발로 찾아온것이다.

김풍호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였다.

《그러니까 저의 편지를 받으셨단말이지요?》

《받았소. 그것도 자그마치 석장이나...》

《아무리 곤난하다 곤난하다 해두 우리 군과 같이 곤난한데는 없을겁니다.》

김풍호는 떠보는듯이 내 눈치를 슬쩍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한숨을 깊이 몰아쉬였다. 그러자 그의 체소한 몸집은 더 작아지고 움츠러든것처럼 보였다.

나는 마음 한구석에서 치밀어오르는 동정을 억지로 눅잠히며 뻔뻔하게 이마를 문질렀다. 김풍호와 같은 진드기들한테는 애당초 결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나의 주장이였다.

《그렇지만 그런 사정을 가지고 나를 설복시키려고는 생각지 마오. 아무리 바쁘다 바쁘다 해두 그건 어디까지나 민수용석탄문제란말이요. 내가 민수용을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지금 민수용을 운운할 때가 됐소? 철도는 공업용석탄을 수송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하고있는 형편이요. 공장이 돌아가야 천도 나오고 신발도 나오고 전기도 나올게 아니요. 그런데 저마다 나라사정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실정만 내세우면서 방통을 달라고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하오? 부질없는 교섭은 그만두고 어서 군으로 돌아가시오.》

김풍호는 마침내 암담한 얼굴빛을 지었다. 그는 눈가에 어리는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내 사무탁앞으로 돌진하듯 다가들었다.

《부질없는 교섭이라구요? 허, 자기를 찾아온 사람의 심정은 안중에도 없구만요. 섭섭합니다. 정말 섭섭합니다. 우리 군인민위원회는 한달째 석탄때문에 계속 신소를 받고있습니다. 학교에서

도 려관에서 합숙에서도 신소전화가 오지요. 그 신소에 일일이 대답을 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할 지경이란말입니다. 창평려관에서 하루밤 묵어간 사람들이 뭐라고 한줄 압니까? 다시는 창평쪽을 돌아보지도 않겠다는겁니다. 무슨 비난인들 안들겠습니까, 석탄만 있다면 우리 군이 왜 이런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그것은 오래동안 참고참아온 격정의 분출인듯 하였다.

김풍호는 수염터가 터슬터슬한 턱을 신경질적으로 뺨 문대고나서 온곱지 않은 눈으로 방안을 휩 둘러보았다.

그의 당돌한 언행은 나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방통을 해결받으려고 철도부에 사람들은 대체로 능란한 수완가들이거나 친구렝이들이었다. 상대방이 자기를 랭대하고 모욕하는 경우에도 그들은 로골을 내거나 맞불질을 하지 않았다. 설사 교섭이 실패로 끝났다 해도 서둘러 분통을 터치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번 교섭을 위해 각뚱이 인사를 차리고 미소까지 지어보이는것이였다. 령리한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하였다.

그런데 체소한 이 사나이는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정도의 푸념이나 언행으로는 나를 놀래울수 없었다. 술한 사람들이 이 방에 찾아와서 그런 녀두리를 하였다. 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쿵쿵 두드리며 눈물까지 글썽해서 하소연을 하였다.

나는 어느덧 그런 하소연에도 인이 배겨버리었다. 별치않은 하소연에도 아프게 반응하던 내 심장은 흐르는 세월과 함께 돌처럼 굳어진것이다. 내 눈에는 군의 실정을 운운하는 김풍호가 마치 철부지처럼 보이였다.

《부위원장동무, 자기 군이 겪고있는 곤난을 너무 과장하지 마오. 우리도 창평군사람들이 석탄고생을 하는건 바라지 않소. 그렇지만 일에는 다 순차가 있는 법이 아니겠소. 려관방이 차서 몇몇 간부들이 욕을 듣고 군이 수모를 당하는것도 물론 가슴이 아프기야 한 일이지. 그러나 나나 동무나 공업을 선참 생각해야 할게 아니요. 공업이 하루훑으면 나라의 경제가 련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단말이요. 내가 부위원장동무의 처지에 있다면 산에 가서 검불을 굶든가 잡관목을 베다 때는 한이 있어도 동무처럼 우는 소리를 하지 않겠소. 옛날엔 다들 그렇게 밥도 해먹고 구들도 덥히지 않았소. 돌아가서 군내인민들에게 선전사업 일 하시오. 철도사정이 긴장해서 당분간 석탄이 가지 못하니 어려워도 극복하자구말이요. 그러면 사람들은 묵묵히 곤난을 참아낼거요.》

김풍호의 눈에서는 번개불이 번쩍 일었다.

《그래, 정치사업을 하란말이지요. …묵묵히 곤난을 참아낼거란말이지요. 부국장동무! 동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수 있소? 방이 더워 단추까지 터쳐놓고 일하는 부국장동무가…》

나는 무심결에 벽에 걸려있는 온습도계로 시선을 옮기였다.

방금전에도 그 온습도계의 수은주는 섭씨 25도 계선에 머무르고있었다. 화력발전소를 지척에 두고있는 우리 청사의 실내온도는 항상 표준치를 룡가하고있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나를 결코드는건 너무 야박하지 않은가.

《부위원장동무, 동무의 청원은 래달초에 풀여 주도록 노력할테니 그리 알고 내려가오. 그이상 은 양보할수가 없소. 자, 내가 할 말은 다 했소. 이제 는 나도 일을 시작해야겠소.》

나는 또다시 문서철을 끌어당기였다.

이제는 그 어떤 도전을 당해도 고개를 쳐들지 않을 심산이였다.

거칠게 툴아올리는 김풍호의 숨소리가 내 귀에 까지 들려왔다.

《동무는 그새 너무도 몰라보게 변했소. 나는 부국장동무가 이렇게까지 모진 일군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소. 15년전에… 동무가 배차사령으로 일할 때 나는 동무의 신세로 방통 10개를 해결받은적이 있소. 그 시절의 부국장동무는 아주 썩썩하고 불임성이 있는 일군이였소. 동무는 내 청원을 끝까지 귀담아들어주었구 또 지방실정을 이것저것 캐묻기까지 하였더랬소.》

나는 화끈 달아오르는 불을 두손으로 감싸쥐고 김풍호가 말하는 15년전의 일을 회상하려고 애썼다.

그런 일이 실지 있었던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같기도 하다. 아니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신세를 진 일은 기억에 오래 남아도 신세를 지운 일은 헛사리 잊어지는 법이다. 게다가 나는 그 15년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왔던가.

소리없이 열리는 출입문앞에 몸집이 강마르고 얼굴이 갱핏한 중키의 사나이가 들어섰다. 새로 부임된 정치국 비서 심태현이였다. 그는 문설주에 기대여서서 까딱 움직이지 않고 김풍호의 말에 귀를 기울이였다.

흥분된 김풍호는 그런줄도 모르고 어성을 높이었다.

《그런데 동무는 지금 손님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의자를 권하지도 않는 사람으로 되였소. 통성을 하고 의자를 권하면 면회시간이 길어지고 일에 지장 될가봐 동무는 그게 겁났겠지요. 피가 뛰지 않는 돌심장! 내가 동무를 그런데 비긴다고 섭섭히 생각지 마시오. 나는 그런 돌심장에 방통을 해결해달라고 두번다시 호소하지 않겠단말이요.》

그는 털모자를 움켜진체 출입문쪽으로 휙 돌아

쳤다.

그 순간 심태현이 조용히 그를 멈춰세웠다.

《잠깐만! 동무.》

김풍호는 마뜩지 않은 눈으로 비서를 힐끗 치며 보았다.

심태현은 응접탁앞에 놓인 의자 하나를 들어 그의 앞에 옮겨다놓았다.

《부국장이 의자를 권하지 못했으면 나라도 권합니다. 그러구 의자에 앉아서 오손도손 의논합시다.》

《의논이고 뭐고 다 필요없습니다. 이제는 다 쫓아내는 죽입니다.》

《무척 노하셨구만요. 그러지 마시고 진정하십시오. 무슨 일인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심태현은 의자 하나를 다시 들어다 김풍호의 맞은편에 내려놓았다.

김풍호는 피곤이 실린 표정으로 비서를 쳐다보았다.

《동무 역시 철도부식솔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제 여기 정치국 비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언성을 높여서 안됐습니다. 남의 기관에 와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느라면 더러 목청이 높아질 때도 있지요. 남의 기관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어서 허물없이 이야기하십시오.》

《아니 그만두겠습니다. 괜히 비서동무의 립장만 딱해질뿐입니다. 나는 이 이상 더 구걸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만나본 사람들은 다 돌심장들이었습니다.》

김풍호는 의자를 한옆으로 밀어놓고 찬바람을 일쿠며 방을 나섰다. 심태현이 일어나 《동무... 동무!》 하고 불렀으나 그는 들은체도 안했다.

비서동무, 내버려두십시오. 소용없는 노릇입니다.》

나는 온몸의 피가 얼굴로 몰려드는것을 느끼면서 신경질적으로 주머니를 뒤지었다. 그러나 며칠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기로 결심했던 사실을 상기하고는 슬며시 손을 뽑았다.

심태현은 의자들을 제자리에 들어다놓고 응접탁앞에 마주앉았다.

《부국장동무.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나는 문서철 옆에 있던 김풍호의 개봉하지 않은 편지를 비서앞으로 밀어보냈다.

《그 편지가 다 설명해줄겁니다.》

비서는 풀이 발린 봉합부위를 조심스레 뜯었다. 미간을 모으고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편지의 서두를 스쳐보던 그는 두번째 장을 펼치자 소리를 내어 김풍호의 청원을 랑독하였다.

《...우리 군에는 정말 없는게 없습니다. 굵돌도 있고 월장석도 있고 온천도 있고 파수원도 있고

승어도 있지요. 그런데 석탄만은 없단말입니다.

늘 다른 고장에 가서 석탄을 받아오곤하지요. 조런치 않은 일입니다.

금년에도 각 기관기업소들과 농장들에서 청장년로력 몇사람씩을 떼어 8군의 중소탄광들에 보냈습니다. 군내 주민용으로 쓸 석탄을 캐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탄을 자그만치 2천톤이나 캐놓았습니다.

나는 철도국에 찾아가서 설달중순까지 런 10일 동안 매일 석탄을 수송할수 있는 방통 5개씩 해결받기로 교섭을 해놓았습니다.

첫 이틀동안은 교섭한대로 일이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되는 날부터 갑자기 방통을 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무까닭도 없이말입니다.

철도국에 문의하니 국가적으로 긴급한 화물수송이 제기되어 당분간 우리 군에는 방통을 배정하기 곤란하게 되었다는겁니다. 우리는 <국가적>이라는 말에 기가 죽어서 물러섰습니다. 국가적인 리익은 항상 신성불가침이니까요. 철도국이 약속한 그<당분간>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한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달이 지나도 국에서는 함구무언입니다. 그저 기다리라는 대답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국에 두번이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회신을 기다리다 못해 세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사연은 하나도 달라진것이 없었다.

《이건 그 사람이 쓴 편지입니까?》

심태현은 속지를 접어 봉투속에 넣고 나에게 물었다.

《네.》

《편지를 보면 아주 분열이 있고 온전한 사람이라는것이 알리는구만요. 그런데 좁전에는 왜 그렇게 격노하였습니까? 혹시 그 사람을 노엽히지는 않았습니까?》

《노엽혔지요. 아니 노엽힐수밖에 없었지요. 그 사람은 이달중으로 방통을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래달에 가서 보자고 했으니까요.》

나는 또다시 이전날 담배갑을 넣고다니던 왼쪽 주머니에 습관적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심태현은 두손을 깎지껴 응접탁가생이에 놓고 혼자말처럼 뇌이였다.

《돌심장! ... 돌심장! ... 부국장동무, 그런 말을 이전에도 들은적이 있습니까?》

《아니 처음입니다.》

《몹시 아프게 들리겠지요?》

《심상합니다. 그보다 더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욕을 일일이 타내다간 이 철도부에서 일을 못합니다. 여기서는 정말 심장이 든든해야 됩니다.》

심태현은 놀란듯이 내 얼굴을 훑음 살피보았다. 그리고는 눈길을 옆으로 피해버리었다.

《나는 부국장동무하고 론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꼭 말하고 싶습니다. 돌심장이란 수치스러운 락인입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아프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그런 타격에 습관된 사람입니다. 비서동무 명심하십시오. 신소청원자들의 우는 소리에 장단을 맞추다가는 철도를 망칩니다. 그들중 대부분은 업살쟁이들이니까요. 그 업살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인민을 위한 업살인데 나쁠것이야 없지요.》

《나도 처음엔 그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당에는 이런 돌심장이 돼버리고말았습니다. 철도를 운영하자면 별 재간이 없습니다.》

심태현은 고개를 기웃하고 나를 피긋 바라보았다.

《그걸 합법칙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고보십시오오만 이제 비서동무도...》

《글쎄 내가 그런 돌심장이 되겠는지 안되겠는지 그건 아직 장담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무슨 말인지 하려다가 그만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였다.

나는 새 비서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내가 알고 있다는것은 그가 오랜 당사업경험을 가진 로숙한 일꾼이며 인정에 무른 사람이라는것밖에 없었다. 비공식적인 석상에서 떠도는 풍문들은 대체로 그를 좋게 평가하고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치게 예리화하여 대하는 비서의 리상주의적인 태도나 사고방식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요구하는 철도에서 랑만주의나 리상주의는 금물인것이다. 사업규범이나 실정을 떠난 인정이 철도를 말아먹는 실례를 나는 한두번만 목격하지 않았다.

(지금은 비서동무가 김풍호를 두둔하고있지만 때가 되면 이제 나를 두둔하게 될것이다.)

심태현은 문득 창문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오래도록 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응접탁을 등진채 나직이 입을 열었다.

《부국장동무, 솔직히 말한다면 나는 김풍호부위원장에게 동감이 갑니다. 창밖을 좀 보십시오.

찬눈, 찬바람... 찬날씨... 오늘아침 일기예보를 들으니 창평지구에서는 온도가 령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였습니다. 김풍호동무가 지금 저 눈을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것 같습니까?》

《아마 나를 욕하고있을테지요.》

《그럴수도 있지요. 그러나 내 짐작에는 어떤지

그가 이 겨울에 석탄이 없어서 고생하는 자기 군사사람들을 걱정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얼음장같이 차거운 랑돌방, 창유리에 들어붙은 성에, 입김으로 팬촉의 잉크를 녹이는 아이들... 부국장동무는 이런 광경을 상상해봤습니까?》

나는 상상해보았다고 대답할수 없었다.

비서가 려거한 그 모든 광경은 이미 오래전에 내가 체험한것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떤지 그 광경들이 먼 기억의 한끝에서 안개속에 싸여 몽롱하게 보일뿐이었다. 지난날 고향집의 피창가에 불리던 성에와 천정밑에 떠돌던 겨울날의 그 선풍선풍한 랑기를 왜 그런지 도저히 감각속에서 되살려낼수가 없다. 나는 오래전에 벌써 그런 화폭과 결별하고 줄달음치는 세월의 려차에 실려 오늘에로 이른 사람이다. 계절의 변화나 온도의 높낮음은 내 생활에서 별로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나에게는 추위를 느낄수 있는 기회가 없다. 집에서는 온수난방이, 직장에서는 따듯한 방열기가 내 방을 덥혀준다. 타고다니는 승용차에는 온풍장치가 있다. 강연이나 회의나 영화구경을 위하여 내가 다니는 모든곳, 문화회관도, 학습당도, 정무원의 회의실도 죄다 중앙열난방의 혜택을 입고 있으니 어느 시간에 내가 추위를 감촉할수 있겠는가.

내가 이런 상념에 잠겨있는 사이 심태현은 창문앞에서 돌아섰다.

《부국장동무, 내 오늘밤차로 수암에 내려가겠습니다. 가던길에 창평에 좀 들려볼가 하는데... 부국장동무는 언제 떠나겠습니까?》

나는 그가 뜻밖에도 새 화제를 꺼내는바람에 어깨를 쭉 폈다.

《열흘후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5일아침에 수암역에서 만납시다. 도착시간이 아마 여덟시 사십칠분이지요?》

《그렇습니다.》

《홈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심태현은 이런 약속을 남기고 방에서 나갔다.

×

사령에서는 나에게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전해 주었다. 심태현비서가 독감에 걸려 며칠째 창평리관에 머무르고있다는것이였다. 이 소식은 나로 하여금 출장조정을 변경시키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나는 약속된 수암역이 아니라 그보다 다섯정거장앞에 있는 창평역에서 차를 내리었다.

신소편지와 문서장과 려차운행표를 통해서만 이름을 익혀온 창평땅이다.

나에게는 이고장에 대한 살뜰한 추억이 있을수 없었다. 화차방통과 김풍호로 하여 맺어진 서먹서먹한 인연만이 있을뿐이다.

나는 이 낯설은 산천에 빗을 진 사람의 심정으로 푸덕푸덕 역구내를 나눴다.

(비서동무의 체온이 39도까지 올랐다고 했는데 지금쯤은 어떤지?)

먼 기적의 메아리만 은은히 들려오는 산촌의 새벽은 적막속에서 회색회색 밝아오고있었다.

바람은 없지만 날씨는 차고 매웠다. 짜늘한 랭기가 대번에 써속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외투깃을 세우고 목을 움츠려뜨리었다. 불시에 파스한 온돌방이 그리워났다. 스프링장치가 되어있는 폭신평신했던 침대와 파스한 포단에 습관된 나였다. 출장지에서는 언제나 아늑한 구석호실의 비단이불이 나를 기다리곤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이 창평땅에서는 지금 나를 맞아주는 사람조차 없다.

나는 역장실에 들려 몸을 녹이지 못한것을 후회하였다. 피창가에 불빛이 환한 저기 저 집문을 좀 두드려볼가?

《평양서 오는 나그네인데 몸을 좀 녹이다가 갑시다.》

내 입에서는 하마트면 이런 말이 튀어나올번하였다.

(럼치없는놈! 평생 밟아보지 않을것처럼 외면하던 창평땅에 와서 감히 그런 생각을 해?)

나는 누구인가 내 따귀를 후려친것 같은 환각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눈언저리에서 시퍼런 번개불이 번쩍인것 같기도 하였다. 창평려관은 읍의 우측에 자리잡고있는 아담한 2층 석조건물이었다.

아래층현관앞에 외등이 하나 켜져있을뿐 방들엔 아직도 불이 꺼져있었다.

나는 외투주머니에 두손을 찌른채 한동안 텅빈 현관을 오락가락하면서 심태현비서가 거쳐하는 방이 어느쯤에 있는지 가늠해보려고 애썼다.

어디서인지 매캐한 탄연기내가 날아왔다. 쇠불이로 아궁이를 굽는것 같은 금속성이 들려온것은 그 다음순간이었다.

나는 급히 현관을 지나 복도에 나섰다. 인적기가 들려오는쪽으로 내쳐 걸어가다가 모퉁이를 하나 돌아 맨 끝방 화구앞에 앉아있는 웬 사나이의 모습이 연기속에 바라보였다.

사나이는 턱에 손을 고이고 물끄러미 아궁이안을 들여다보고있었다.

물이 좀 날은 씨루직털모자와 후렁후렁한 보위색솜저고리... 몹시도 눈에 익은 차림새이다. 옆모습도 눈에 익었다.

나는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예감에 사로잡혀 그이상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김풍호다. 김풍호부위원장이다! 네가 것처럼 만나게 될가봐 우려했던 그 사람...》

하고 그 예감은 나에게 속삭였다.

김풍호는 인적기를 느끼자 내 쪽으로 얼굴을 돌리었다. 미간을 잔뜩 찌프린 가늘쭉한 근시안이 푸릿한 연기속에서 나를 바라본다.

《부위원장동무!》

나는 마음속에서 착잡하게 소용돌이치는 온갖 사사로운 생각을 뒤전으로 밀어던지고 성큼성큼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김풍호의 입가에 웃음이 비끼었다. 그는 아궁이앞에서 움쭉 일어나 내 손을 마주잡았다.

《이거 부국장동무가 아니십니까! ... 반갑습니다! ... 반갑습니다!》

부위원장은 이전날 나에게 《돌심장》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노기등등해서 사라지던 사람답지 않게 험험한 기색으로 인사를 하였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백팔십도의 급전이다.

부위원장의 예상치 않았던 친절은 나를 혼돈속에 몰아넣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친구나 친지라도 만난것처럼 반가와하는군. 그처럼 맵싸게 나를 후려치던 사람이 오늘은 갑자기 웬일일까?)

김풍호는 즐거운 회상에라도 잠긴듯이 빙그레 웃는다.

《부국장동무, 요전번에는 참 인사가 안됐습니다.》

《아니 도리어 내가 안됐소. 정말 부위원장동무를 볼 면목이 없소! 그런데 부위원장동무, 이 새벽에 자지 않고 왜 려관에 나와있소? 왜 아궁이앞에 앉아있느냐말이요!》

나는 손에 석탄검댕이가 잔뜩 게발려있는 김풍호를 의혹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김풍호는 아궁이문을 닫고 복도에 올라섰다.

《심태현비서가 이 방에서 앓고있습니다. 집에서 자다가 암만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이리로 나왔지요.》

《!!》

나는 아무말도 없이 김풍호의 까무잡잡한 얼굴을 정겹게 바라보았다. 내 가슴속 깊은곳으로는 불시에 훈훈한 그 무엇이 흘러들었다. 몸에 맞지 않은 솜저고리를 우장처럼 걸치고 귀에 설은 지방사투리를 양념처럼 섞어가며 말을 하는 자그마한 이사나이가 내 눈에는 마치 거인처럼 보이였다.

《내가 여기서 만나본 사람들은 다같은 돌심장들이었습니다.》

의자를 권하던 심태현의 면전에서 이런 선고를 내리고 바람같이 사라진 사나이, 그처럼 뱅뱅하게 끝나버린 대결의 주인공이 이 새벽에는 어떻게 되어 심태현의 후원자로 나타났을까?

《방에 들어가지시 않겠습니까?》

김풍호가 조용히 귀속말로 나에게 물었다.

불안개와도 같이 혼미한 상념의 세계에서 홀로 헤메던 내 귀에는 그것이 흡사 판 세계에서 울리는 음악처럼 들리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좀 있다가… 새벽잠을 깨우기가 미안합니다.》

우리는 무언중 약속이라도 한듯이 현관쪽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김풍호는 나를 출입문결에 세워두고 밖으로 나갔다.

눈에 손을 문지르는 그의 모습이 창유리너머로 내다보이였다.

나는 이 담찬 사나이가 지금껏 방통이야기를 꺼내지 않는것이 이상스럽게 생각되였다. 엄혹한 새벽벽기가 떠도는 이 러관지붕밑에서 그가 차라리 방통문제를 화제에 올리고 《차다》, 《박하다》, 《몰인정하다》라는 말로 나를 꾸짖는다면 오히려 내마음이 편할것 같았다. 혹시 이 사람이 그동안 우리 비서에게 떼를 떼서 《방통을 해결해준다》는 확답이라도 받은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야 그가 나를 보고 이처럼 입을 봉할수가 없지 않은가.

김풍호는 내 속을 뻔히 들여다보기라도 한듯이 입가에 느슨한 웃음을 지었다.

《부국장동무, 기뻐하십시오. 이제는 부국장동무가 내성화를 영원히 받지 않게 됐습니다.》

나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여 부위원장쪽으로 상체를 숙이였다.

《성화를 받지 않게 되었다니… 그건 무슨 소리요?》

《이제는 부국장한테 방통구결을 안해도 되게 됐단말입니다.》

《그럼 없던 방통이 하늘에서 떨어졌단말이요?》

《행운이 떨어졌습지요. 한주일사이에 창평군이 팔자를 고쳤습니다.》

김풍호의 입에서는 점점 더 피이한 소리만 흘러 나왔다. 내가 얼떠름해하는것을 보자 그는 신바람이 나서 말을 이었다.

《일인즉 이렇게 된거지요. 몇해전부터 우리 군에서는 八군의 탄전으로부터 창평경내로 철도인입선을 뽑는 공사를 해오더랬습니다. 생산지에서부터 소비지로 석탄을 직송하자는것이였지요. 그런데 금년봄에 와서 공사를 쫓아버렸답니다. 소철레루가 모자랐거든요. 난 철도부에 갔다온 다음 다시금 인입선공사에 달라붙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다지 않습니까. 군내에 있는 유탄자재를 총동원했지요. 정말 온 군이 밤잠을 안자고 아득바득했습니다. 마지막 2키로메터의 구간에 깔 소철레루가 모자라 공사가 또 덜컥 멎었을 때엔… 정말… 안타까와 눈물이 다 납

니다.》

김풍호는 그때의 안타깝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지 마른침을 삼키었다.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꺾으로 번져갔다.

《사람들은 모두 손뻘을 놓고 가슴들을 앓았습니다. 이런 때에 글썽 심태현비서가 우리고장에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나한테서 공사형편을 들은 비서동무는 며칠동안 여러 역들을 뛰어다니면서 철도일군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철길대로동자들이 레루를 싣고 사망에서 공사장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은 다시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비서동무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출창 내결에서 일을 했습니다. 함께 침목을 깔고 레루를 놓고 함마질을 했지요. 그제 신바람이 나더군요. 석탄을 실은 첫 화차가 이틀전에 탄전으로부터 창평으로 떠났습니다. 개통식이랄가요. 우리는 무개차우에 석탄을 깔고 함께 앓았었습니다. 나하구 비서동무였지요. 몸은 땀에 흠뻑 젖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친바람이 불어치더니 난데없는 비가 짹짹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진눈이 섞인 비말입니다. 비는 등골과 허벅다리를 거쳐 구두속에까지 흘러드는것 같았습니다. 참 오라질놈의 날씨였지요.》

울씨년스러운 회상에 잠긴 김풍호는 몸에 눈비가 와닿기라도 한것처럼 어깨를 떨며 오만상을 켜그리었다.

그의 그런 표정이 나에게는 보통때의 인상보다 더 정답게 안겨왔다. 이 순간에는 몸에 맞지 않는 숨저고리조차 그에게 더 잘 어울려보이였다.

(보기도문 랑만가로군!)

나는 자기도 모르게 그의 다감한 정서에 이끌려 들어갔다.

《그래도 나는 좋았습니다. 석탄을 깔고앓았으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나는 주인이 아닙니까. 걱정되는건 비서동무였습니다. 손님이니까요. 사실이야 목마라도 태워서 읍까지 모셔다주고싶은 심정이였지요. <비서동무, 날씨가 궂은데 기관차로 자리를 옮기시다.> 내가 말했지요. 비서동무 머리를 흔들더구만요. <부위원장동무, 나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창평으로 첫 석탄차가 가는데 얼마나 흐뭇합니까. 나는 지금 금방석을 깔고앓은것보다도 더 기분이 좋습니다!> 나는 더 청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정이 리해되였거든요. 비서동무의 심정이자 내 심정이였으니까요. 나는 차가 밤에 창평으로 들어서는것이 못내 서운했습니다. 낮이라면 그들이 자기 군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않은 심태현비서가 어떤 사람인지 다들 눈요기라도 할수 있을게 아닙니까. 그렇지만 설사 낮이였다 해도 창평사람들은 비서동무의 얼굴을 알아보지못했을겁니다. 얼굴이 온통 검댕이투성이였으니까요. 그런데 비서동무 도리어 나보고

를 할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동무, 얼굴이 그게 뭐요. 마치 적도에서 온 사람같구만.>, <비서동문 어떤줄아십니까.>, <나도 김동이냐 됐소?>, <여부가 있습니까>, <하하하>, <하하하> 우리는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실컷 웃어댔지요. 그런데 어깨를 껴박으며 꺾꺾거리는 비서가 꼭 허물없는 친구같이 생각되더라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사과했지요. <비서동무, 전번에 돌싱장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취소합니다.> 비서동문 웃으면서 내 손을 잡았지요. <그런 루명을 벗겨주어 고맙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창평땅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큰 비밀이라도 터놓듯이 내 귀전에 입술을 바짝 갖다대고 <이제 부국장동무도 심장이 물렁물렁해질겁니다.>라고 속삭이지 않겠습니까. 비서동무는 그날밤부터서관에서 감기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에이크, 다섯시가 넘었구만요. 이제 들어가보실까요?》

우리는 곧 심태현비서의 호실로 향하였다.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비서는 방에 없었다. 《비서동무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습니까?》 손기척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젊은 출장원(그도 감기에 걸려 이 방에 격리되었다.)에게 김풍호가 물었다.

《한시간전에 가방을 들고 역으로 나갔습시다.》

《아니, 그 몸으로?... 어제밤까지만 해도 체온이 38도 5부였는데...》

《그래서 저도 만류했지요. 감가가 도진다구요. 그런데 무슨 사람인지 병이니, 약이니, 체온이니하는건 꿈만해한단말입니다. 이것 보시오. 자기가 쓰던 약을 나한테 몽땅 털어주고간걸. 어이쿠. 이것 보지 폐독산까지...》

출장원은 자리에 누운채 머리맡에 있는 약봉지 하나를 톡 건드리었다.

김풍호는 랑패한듯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평양으로 돌아갔구만요. 부국장동무, 이거 야단났습시다. 역에 가서 비서동무를 빨리 데려와야겠습시다. 도저히 바깥출입을 할수 없는 몸이었는데... 에이참 고집두... 하루나 이틀만 안정하면 끝장을 볼걸가지구... 어서 갑시다!》

그는 성급하게 내 팔을 잡아끌었다.

나는 역까지 동행하겠다고 자청하여나서는 김풍호를 간신히 집으로 돌려보내고나서 황황히서관을 나섰다.

비서는 분명 수암역에서 만나기로 한 나와 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고서관을 떠났을것이다. 내가서관으로 오는 사이 아마 지름길로 해서역으로 나간 모양이었다.

(성미가 불갈다더니... 과연 사람두!)

그러니 결국 심태현은 김풍호에게 진 철도부의

빛을 갇아주려고 창평땅에 온것이다. 채무자인 나를 대신하여 이고장 사람들의 면전에 나타난 심태현비서, 불꽃튀는 인입선공사, 거적때기를 깔고 앉은 비서의 머리우에 물방으로 쏟아져내리던 눈비, 석탄가루와 눈비로 매탁질을 한 거뭇거뭇한 얼굴... 김풍호앞에서 내 심장을 두둔해주던 속삭임소리...

내 마음속에서는 갑자기 심태현에 대한 뜨거운 생각이 왈칵 끓어올랐다.

(비서동무, 고맙습니다!)

나는 눈물겨운 생각에 잠겨 마음속으로 뇌이였다.

창평역대합실에서는 여러문명 되는 사람들이 난로를 예워싸고 금골로 가는 급행열차를 기다리고있었다.

한사람만이 유독 그속에 끼이지 않고 난로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맨구석쪽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추켜올린 외투깃과 아래로 드리운 방한모자의 귀가리개사이에서 조막만큼밖에 보이지 않는 낯익은 얼굴!

그가 바로 심태현비서였다. 비서는 몸을 우들우들 떨면서 허공을 쳐다보다가 나를 발견하자 환성을 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부국장동무가 어떻게 우리는 수암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그렇지만 비서동무가 창평에서 감기를 앓는다는 조항은 그 약속에 없었지요.》

내가 룡으로 이렇게 받아넘기자 심태현은 알겠다는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러니까 내 문병 왔단말이지요? 고맙습시다.》

그는 내 손을 잡아 의자로 끌어당기였다.

비서의 작은 손에서는 불덩어리같은 열기가 훅훅 내뿜기고있었다. 손이 아니라 불에 달군 쇠불이가 와닿는것 같았다. 열기설기 피발이 번진 눈에서도 불길같은것이 이글거려였다. 그러나 얼굴빛만은 무섭게 해쓱하였다.

나는 머칠사이에 탄 사람처럼 살이 빠지고 윤기가 없어진 심태현의 파리한 얼굴을 우울하게 바라보았다.

《비서동무, 약속도 약속이지만 이런 몸으로서관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서 돌아가십시다!》

《괜찮습시다. 감기란 원래 이렇게 나돌아다니면서 앓아야 코구멍도 항-열리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심태현은 허세를 부리지 않고 진지하게 이 말을 하였다.

그래서 나는 웃지도 못하였다.

《모를소리입니다. 비서동무, 정서관에 돌아가

기 싫으면 역장실이라도 들어가십시다.》

《고리타분하게 거긴 뭣하러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서 차를 기다립시다. 여기가 사무실보다 더 좋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의 때에 절어 반질반질해진 대합실의자에서 김풍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동무가 내 방에 불을 때고 있더라말이지요?》

비서는 내 말을 다 듣고나서 혼자소리처럼 뇌이었다.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은 그는 거기서 아스피린 두알을 꺼내어 입안에 던져넣고 물도 없이 강짜로 삼키었다.

《내 이번에 풍호동무의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 사람이 풍채는 없어도 마음만은 여간 굵지 않습니다. 그저 앉으나서나 사람들을 위해 뇌를 쓰더라말입니다. 사실 우리 철도부사람들이야 창평땅에 와서 대접을 받을 체면이 뻤습니까. 배정받은 방통까지 잘라내서 원망을 사는 형편이 아닙니까. 이번에 료해해보니 그 방통들은 수암역장에 방식상학에 필요한 물자들을 받는 대가로 화학공장에 넘겨주었습니다. 김풍호부위원장도 이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철도에 대한 창평사람들의 감정이 어떠하리란걸 짐작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군 사람들은 그런 침해를 당하면서도 철도영업소에만은 제일 좋은 알란을 보내주어 려행하는 손님들에게 팔아줄 팍밥을 만들어내고 있단말입니다.》

나는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내가 말끝마다 모범역장이라 칭찬했고 지어는 수암역을 시범상학단위로까지 선정했는데 사람이 어찌면...

나는 나자신도 그런 협잡의 공모자가 된듯한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사뭇 언짢아졌다.

(이 일로 하여 모처럼 마련된 방식상학의 분위기가 흐려지지는 않을까? 심태현은 새로 온 비서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할가?)

대합실을 나서서 흙으로 나가는 순간에도 나는 줄곧 불안스럽게 이런 생각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심태현의 얼굴표정이나 어조를 보아서는 그가 방통문제에 그다지 큰 심각성을 부여하고있는것 같지는 않았다.

해뜰무렵이 지나서 우리를 태운 금골행렬차는 수암역에 도착하였다.

반년만에 보는 역의 풍경은 나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역사도, 울타리도, 간이대도, 화물창고도 죄다 면모를 일신하였다. 어느 구석에서나 낡은것을 없애버리고 새것을 일떠세우려는 창조적 숨결, 문명의 지향, 갱생의 열정이 느껴졌다.

나는 새 도시를 발견한것 같은 황홀한 눈길로 변모된 역구내를 둘러보았다. 조금전까지만 해도

내마음을 을씨년스럽게 해주던 역장의 비행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덧 관심밖으로 사라져버렸다. 심태현이도 흙에서 떠날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역구내를 불러보았다.

《저것이 새로 세웠다는 급수탑입니까?》

그는 마지막 구내선열에 서있는 새 급수탑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렇습니다.》

《내 기억에 의하면 이곳 역사는 창풍역만큼했던것 같은데.》

《네, 방식상학은 앞두고 낡은 역사는 허물었다고 합니다. 한달사이에서 역사를 저렇게 번듯하게 지어놨지요.》

《저 울타리는 원래 목책이 아니였습니까?》

《네, 그렇던걸 이번에 철책으로 교체했지요.》

《하긴 목책보다 철책이 보기는 더 좋구만.》

심태현은 이런 말을 하고나서 방금 섰던 그자리를 떠나 흙의 다른쪽 끝으로 걸어갔다.

비서가 역구내를 세심하게 돌아보면 볼수록 나는 마음이 안정되고 홀가분해지는것을 느끼었다.

그가 호기심을 가지고 수암역의 변화를 속속들이 관찰한다는것은 리만석역장의 비행에 대한 참담한 인상이 그만큼 가세될수 있는 징조로 되겠기때문이었다.

잠시후 나는 심태현을 역장실로 안내하였다.

키가 크고 몸이 실한 리만석역장이 문서철을 뒤적이다가 벌떡 일어서서 나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 우람진 몸집이나 틀거지에 비해서 행동은 몹시도 민첩하고 레절스러워보였다.

나는 뒤에 서있는 심태현을 얼핏 돌아보고나서 역장에게 《새로 오신 정치국 비서동지요.》라고 소개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 비서가 황급히 내앞에 나서며 눈짓과 손짓으로 나를 제지시키었다. 그의 눈길에서 심상치 않은 그 무엇을 읽은 나는 가슴을 조이며 벽앞에 놓인 긴의자에 주저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번개처럼 의식의 한끝에서 평곳 피어올랐다가 사라졌다.

《역장동무, 동무네는 왜 방통문제를 그렇게 처리했소?》

잠시 방안을 둘러보던 심태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다지 높지 않은 목소리였으나 그의 말은 자못 엄하고 예리하였다.

(마침내 그 문제를 터치고말았구나.)

나는 그만 치명상을 입은 사람처럼 의자우에서 굳어졌다.

《무슨 방통말인가요?》

역장은 얼떠름해서 내쪽을 바라보다가 연기에 싸인것 같이 뿌연 눈을 비서에게로 돌리었다. 어떤 난처한 정황에서나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능구렁이의 본색이 그 연기에 가리워 보일듯말듯

그물거리었다.

심태현은 두다리를 어깨넓이만큼 벌리고 서서 역장의 높다란 코마루를 침착하게 쳐다보았다.

《방통이 방통이지 방통이겠소. 동무들이 철도국과 짜고들어 창평역에 배당된 화차방통을 다른 데 빼돌렸다면서?…누가 동무더러 그런 전횡을 부리라고 하였소?》

리만석은 바지주머니에 두손을 찌른채 거만하게 상대방을 쏘아보았다. 공손하고 레절스럽던 그의 말투는 거치른 《하오》조로 바뀌어졌다.

《미안하지만 동무, 짐작컨대 동문 창평군에서는 사람같은데 남의 기관 내정에 무슨 간참이요? 영?》

《그게 왜 내정간섭이겠소. 협잡행위를 비판하는것은 내정간섭이 아니요.》

《동무, 말조심하오. 그건 우리가 단독으로 한 일도 아니고 철도국과의 충분한 합의를 거친 문제란 말이요.》

《합의가 아니라 공모였겠지.》

심태현은 서두르지 않고 웃으면서 나직이 역장의 말을 정정하였다.

《동무네는 세상이 모르게 공모하느라고 했지만 벌써 그 비밀이 창평군사람들이 일하는 탄발에 까지 퍼져갔더군요. 철도국에서도 그런 공모가 있었다는걸 인정하였소. 사람들이 철도를 뒤손가락질하는게 우연한 일이 아니요.》

나는 리만석이 볼수 있게 맞서지 말라고 눈짓하였다.

하지만 흥분된 역장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입을 삐죽거리며 코웃음을 쳤다.

《그럼 공모라고 해둡시다. 그래 방통을 다루는 철도가 필요에 의해서 그 방통을 좀 빼돌렸는데는 어쨌단말요.》

리만석의 비양거리는 목소리는 그 마디마디가 내살점을 도려내는것 같았다. 바늘방석에 앉은것처럼 안정을 못하고 허둥거리는 내 잔등에서는 대번에 진땀이 쭈르르 흘러내리었다. 나는 몇번이고 일어나서 역장의 팔을 잡아채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비서가 눈짓으로 그 시도를 눌러버리었다.

심태현이만은 그저 변함없이 태연하였다.

《그건 그렇소. 그러나 당이 준 직권과 직분을 악용하여 철도운영을 혼란에 빠뜨리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웅당한 법적제재를 가한다는것은 그보다 더 잘 알려진 세상리치가 아니겠소.》

나는 또다시 언쟁을 그치라고 손세를 썼다.

하지만 역장의 눈에는 그 손세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자만심이 강한 이 매부리코의 거인은 술개처럼 눈을 곤두세우고 심태현을 노려보다가 주먹으로 책상을 째 쳤다.

《뭐, 법적제재?… 그따위소리는 걷어치우오! 동문 누굴 위협하는게요?》

나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떨어뜨리었다. 애당초 내가 심태현을 정치국 비서라고 소개하지 못한것이 잘못이었다. 그런 소개만 한마디 했어도 두사람의 대결은 이처럼 첨예해지지 않았을것이다.

심태현은 조용히 가방을 헤치고 창평에서 가지고 떠난 껍밥을 꺼냈다. 그 껍밥을 책상우에 올려 놓은 다음 넋지시 역장을 바라보았다.

《역장동무, 동무와 같은 사람들은 철도국을 구슬려서 창평사람들에게 차례진 방통을 상업적거래에 써먹었지만 그고장사람들은 그런 피해를 입으면서도 철도에 이런 껍밥을 만들어주고있소. 보시오. 얼마나 정성껏 만든 껍밥인가!》

비서의 손은 날래게 껍밥뚜껑을 한옆으로 열어 제끼었다.

《흥, 동무는 나한테 상품광고를 하고있구만. 여기가 어디라고 이따위걸 함부로 내놓는거요!》

리만석은 보지도 않고 그 껍밥을 비서앞으로 탁 밀쳐버리었다.

껍속에서 튀겨나온 명태자반 한토막이 책상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아뿔싸, 저 사람이 오늘 무슨 망동을 저렇게 하는가.)

내 등골에서는 다시금 진땀이 흘러내리었다. 얼굴에 모닥불같은것이 화끈 피어오르고 아득히 높은 발판에라도 오른것처럼 두다리가 후들거리었다.

당장이라도 뛰쳐일어나서 주먹으로 역장의 귀뺨을 한대 후려갈기고싶은 심정이다.

심태현은 터쳐진 껍밥을 한동안 서글프게 내려다보다가 울기가 오른 눈으로 리만석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서늘하고 위압적인 어조로 역장을 꾸짖었다.

《그래… 동무는 이런 인간이었구만, 동무가 그 이상 높은 직책에서 일하지 않는것이 다행이요.》

그가 그렇게 분노를 다잡고 자제력을 발휘하는것이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 나는 숨이 차서 씨근거리는 역장의 앞에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아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동무, 정신있소? 새로 오신 정치국 비서 심태현동지요!》

리만석은 그말을 듣자 고개를 쳐들고 얼빠진 사람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터갈라진 입술이 경련이라도 인듯이 푸르르 떨리었다.

(분별없는 사람, 죄를 지었으면, 잠자코나 있을것이지.)

나는 얼굴색이 파랗게 질리고 기가 죽은 역장을 돌아보면서 민망스러운 생각에 잠기었다.

우리는 힘겨운 싸움이라도 한바탕 치르고난듯이 제가끔 입을 다물고서서 숨을 가라앉히었다. 방안에는 잠시 어수선한 정적이 깃들었다.

그러나 심태현의 격한 목소리가 우뢰처럼 그 정적을 깨뜨리었다.

《부국장동무, 여기서 그런 소개가 무엇때문에 필요합니까? 비서가 큰 벼슬인줄 압니까? 부국장이 큰 벼슬인줄 압니까? 비서도, 부국장도, 역장도 다 벼슬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같이 인민의 총복이고 인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심태현은 모멸스런 시선으로 흘깃 나를 돌아보고 나서 성큼성큼 문밖으로 나갔다. 방안의 공기가 몹시도 답답해나는 모양이었다.

죽은듯이 서있던 역장이 마침내 고개를 쳐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피줄이 지렁이처럼 굽다랗게 일어선 관자노리에서 땀이 번들거려졌다.

《부국장동지, 저 때문에... 안됐습니다.》

역장의 입에서는 휘파람소리와도 같은 새된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음성으로써가 아니라 표정을 보고 그가 무엇을 말하고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웬일인지 한마디도 대꾸할수가 없었다. 아니 말을 하기가 싫었다. 나무라기도 싫었고 위안하기도 싫었고 추궁하기도 싫었다. 내가 도대체 그에게 무슨 말을 할수 있단말인가.

나는 이 순간 나를 역장과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였다. 리만석은 수암역에 비끼는 나의 그림자, 내녘의 그림자일뿐이다.

심태현은 바로 그 그림자에 일격을 가한것이다.

나는 거울속에 비친 때문은 내 얼굴을 보는것 같은 피로움에 못이겨 얼른 역장을 외면하고 밖으로 나섰다.

리만석은 그냥 방안복판에 어깨죽지를 늘어뜨리고 맥없이 서있었다. 목에 피대를 세우며 길길이 뛰던 그 무엄한 기상은 어디로 숨새어들었는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심태현은 팔짱을 찌르고 한동안 역사앞을 오락가락하였다. 아마도 가슴속에서 치밀어오르는 혐오와 분노를 묵새길수 없는 모양이었다.

《부국장동무, 우리는 방식상학단위를 잘못 선정한것 같습니다. 수암역사람들이 일떠세운 이 건물이나 콩크리트구조물에는 나쁜 때가 묻어있습니다. 인민의 리익도 안중에 없고 인민의 불편도 안중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술한 군중앞에 내세워서 무엇하겠습니까.》

비서는 발길을 멈추고 외투깃을 추켜올리었다.

그의 낮빛은 아까보다 별로 침착해보이였다.

나는 아무 응대도 못하고 덤덤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였다.

《부국장동무는 리만석역장한테서 무엇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말끝마다 그를 모범역장이라고 칭찬해왔습니까? 수완? 언변? 외교술?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것을 보기전에 먼저 일꾼들이 사람을 얼마나 위하고 인민을 얼마나 위하는지하는것부터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실무에 밝고 능력이 높은 사람도 인민의 리해관계와 감정으로부터 멀어지면 결국 썩고맙니다. 나는 내 눈앞에서 그렇게 변질되는 간부들을 한둘만 보아

오지 않았습시다. 인민의 총복이 되기전에는 수령님의 전사이라고 우리 감히 말하지 맙시다. 왜냐 하면 우리 수령님께서 가장 아끼시는것이 인민이고 가장 바라시는것이 인민의 복리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리속에 수령님의 기쁨, 수령님의 행복, 수령님의 념원, 수령님의 리상, 수십년세월 포연탄우와 가시덤불길을 헤쳐오신 수령님의 한생이 비껴있기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고의 출발점, 우리 활동의 출발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자기를 잊은 사람처럼 그냥 잠자코 서있었다. 오래동안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있던 이끼진 성벽이 일시에 와르르 허물어져내리었다. 그것은 십년나만의 세월 깨끗하던 내 량심속에 침습하여 응고된 낡은 사상, 낡은 관념의 종말이었다. 나는 두번다시 15년전의 때묻지 않은 심장을 되찾고 아버지수령님께서 한평생 위하시고 보살펴오시는 그 인민의 결으로 되돌아온것이다.

심태현은 손으로 두눈을 지그시 누르다가 땅을 벌디디고 서서 허공을 쳐다보았다. 비서의 얼굴은 창백해지다 못해 종이장처럼 해쓱해졌다. 나를 등지고 돌아선 그의 상체에 가벼운 경련이 지나갔다.

그가 환자라는것을 얼마동안 망각했던 나는 불길한 예감에 이끌려 그의 결으로 총총히 다가갔다.

손은 말그대로 불덩어리였다.

열에 떠서 고통받는 그의 모습은 악성감모라는 무서운 병명을 나에게 다시한번 상기시켜주었다.

그렇다, 심태현은 지금 악성감모와 싸우느라고 모진 고비를 겪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나한테는 그것이 악성감모와의 싸움이라고만 생각되지 않았다.

내 눈에는 어쩐지 그가 감기보다도 더 고달프고 격렬한것, 나나 역장과 같은 인간들때문에 체협하는 모진 정신적진통을 겪고있는것처럼 보이였다. 그리고 그가 지금껏 나와 역장에게 말한것보다도 더 많은것을 마음속으로 묵새기며 그렇게 피로와하는것이라고 생각되였다.

나는 마음속 깊은곳에서 비서에게로 끌리는 정이 저도 모르게 북받쳐오르는것을 느끼며 그의 팔을 부축하였다.

《비서동무, 내 이제 머리속의 때를 말끔히 씻겠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혹하게 처벌해주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우선 병원에 가서야 하겠습니다. 몸이 말이 아닙니다.》

심태현은 고개를 쳐들고 정답게 나를 바라보다가 웃으면서 그 말에 동의하였다.

《부국장동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멀리서 기적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우리는 병원을 향해 나란히 걸어갔다.

휴양소 5호실

신용선

휴양소는 호수가에 자리잡고있었다.

호수에는 고기가 많았다. 그래서 이곳을 찾아 오는 휴양생들이 먼 후날에도 잊지 못해하는 가장 즐거운 인상은 낚시질이였다.

과장기가 있는 어떤 《대포군》들은 그 언젠가 자기는 2층 창문턱에서 낚시를 던져 팔뚝잉어를 다섯마리나 낚았다고 하지만 그것을 타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만큼 휴양의 나날에 있었던 낚시질추억은 소중한것이다.

아침노을이 휴양소 창문들을 불그레 물들일 때면 2층 5호실은 벌써 텅- 비어있었다.

직일관리원처녀의 고운 눈이 둥그래지고 휴양소 창문들이 승벽으로 활짝 열린것도 바로 이때였다.

함께 잠옷바람인 젊은측들은 창밖으로 몸을 솟구며 저마다 목청을 돋군다.

《<대가가아바이>고기를 많이 잡으랴요.》

존경과 신뢰의 정으로 흠뻑 젖은 목소리들은 휴양소 프락에 울려퍼졌다.

《문제없어...용광로에서 쇠물을 녹이던 사람이야. 허 빨리 잡자리나 거두고 뒤따르라고, 아침고기 회맛을 보여줄테니...》

채양이 넓은 밀짚모자를 비스듬히 눌러쓴 50대 아바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가의 젊은이들을 향해 손을 젖는다.

쩍 벌어진 가슴팍과 허우대가 큰 긴장한 로인이였다. 유표한것은 검은빛 얼굴에 승승 패운 땀구멍과 같은 눈섭 그리고 주먹코였다.

낚시도구가방을 어깨에 걸친 그의 두툼한 입언저리엔 웃음이 병글썩 비껴있었다. 입소식이 끝난 다음날에야 도착한 그는 가을철 이번 휴양생들중에서 제일 좌상인 제철소 로장이였다.

휴양소에서는 로장을 《낚시군대가아아바이》라고 불렀다.

누가 먼저 또 무슨 리유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는 딱히 몰라도 휴양생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동기휴양생들의 자랑으로 그 이름을 불렀던것이다.

휴양소를 찾아오는 뻘스길에서 낚시질이 사람들의 건강과 휴식에 주는 유익성을 그토록 요란하게 선전한것때문인지 아니면 로장이 가지고있

는 낚시도구들에 현혹된 나머지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이것은 아직 누구도 몰랐다.

하여튼 로장아바이의 줄낚시며 편뱅낚시를 그리고 대낚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것들은 보는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래지게 하는 최상급들이였다.

호수의 잔물결에서도 예민하게 울리는 낚시를 방울조차 금빛으로 도금한 정도이니 다른것들은 독자들의 상사에 맡긴다. 《대가가아바이》 뒤로는 몸이 뚱뚱하고 언제 보나 말수가 적은 정무원 처장이 가을철 풍경화전람회에 내놓을 작품창작을 위해 이곳에 왔다는 30대의 젊은 화가의 열정적인 이야기에 고개를 주억거리며 걸어갔다.

4명으로 구성된 《대오》의 맨꼬리에선 목이 긴 식초병과 고추장단지를 담은 비닐소랭이를 부둥켜안은 먼거리차사업소 총각운전사가 들썩들썩 뒤따르며 이따금씩 잘 맞지도 않은 노래를 외마디소리로 뿜아 새벽공기를 휘저어놓았다.

이들이 《대가가아바이》와 함께 생활하고있는 5호실 성원들이였다.

휴양소 앞마당을 지나 비릿한 물냄새가 확- 가슴에 끼쳐오자 그들의 발걸음은 활기에 넘치고 빨랐다.

낚시군 특유의 감정인 그 야릇한 긴장감과 짜릿한 흥분이 온몸과 마음에 감각되면서 가슴을 뛰게 하는 모양이였다.

고기가 많고 낚시질하기에 편리한 너럭바위 코숭이 낚시터는 로장에게 양보되군하였다.

정무원 처장은 별로 신통치 못한 누구도 탐내지 않은 개버들숲언저리에... 그리고 화가는 색조와 빛 반사광을 따라 자주 자리를 옮겨가며 낚시를 던지군하였다.

이른아침의 호수는 산뜻하고 축축하였다. 사위는 고요하였다.

연분홍빛노을은 유리같이 반반한 수면우에 곱게 어리고 푸릿한 새벽안개는 명주필처럼 피여올라 호수가에 낮게 떠돌며 흘렀다.

깜빡 조을듯한 정적이 호수가에 깃들었다.

한가닥의 바람결도 태양빛도 그늘도 움직임도 소음도 없었다.

이따금씩 잠을 깬 새들이 날개를 퍼덕이고... 호수에 낚시를 던지는 소리가 둥근 파문과 함께 들려오긴 하어도 그것은 정적을 깨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보태주는듯싶었다.

《대가아바이》도 뽕뽕뽕뽕 두들이나 물속에 던지고 담배를 붙여물었다.

일상생활에서는 《용광로》를 제일 애용하며 그것만 늘쌈 태우더니 낚시터에 나온 그의 호수머니에서는 은지로 포장한 러과담배가 어김없이 나왔다.

로의 막내라고 불리우는 경훈이가 개찰구에서 굳이 넣어준 파아란색의 가스라이타이도 낚시터에서 처음 뚜껑을 열었다.

담배연기는 깊이 꽤운 주름발들이 그물코처럼 얽힌 그의 얼굴을 덮으며 서서히 피어올랐다.

가슴을 조이는 분분초초가 흘렀다.

온몸이 그대로 귀가 되고 눈이 되어 방울을 지켜보는 긴장한 순간과 순간의 흐름이었다.

호수에는 노을빛이 더욱 붉게 퍼져갔다.

푸릿한 대기는 밝아지고 연회색 하늘은 맑아지고 우중충한 구름은 점차 희어지고 안개흐르는 호수의 원경은 뚜렷하게 자태를 드러냈다.

가슴을 찡 열리게 하는 부드러운 공기속에는 가을의 향기가 녹아 퍼져있었다.

뽕뽕 먹이를 찾아 물위에 뛰어오른 잉어가 잔잔한 수면에 쌀함박같은 잔주름을 입혀놓고는 다시 정적을 몰아왔다.

머들썩하고 웃기를 좋아하는 고수머리총각운전사도 이때만은 축축히 젖은 모래불우에 비스듬히 누워서 신선한 들국화꽃잎을 뜯으며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운전사는 고기잡이를 하지 않았다.

언제나 늘쌈 들썩거리는 그 성미에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방울을 지켜본다는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호실에서 처장이 예비로 가지고있던 낚시도구를 주면서 고기잡이를 함께 하자고 권하였을 때 어찌나 펄쩍 뛰며 손을 뻗-뻗-저었던지 호실에서는 폭소가 터졌었다.

《대가아바이》는 여전히 낚시틀앞에 쭈그리고 앉아 줄곧 방울만 지켜보고있었다. 도토리알만한 방울들에 그의 생활의 모든것들이 담겨져있는듯 그렇게 심각하게 지켜보고있었다.

하지만 로장의 눈길은 실상 초점을 잃고있었다.

물위에 어린 노을빛을 바라보며 입속으로 무엇이라 중얼거리기도 하고 혼자 빙긋이 웃기도 하였다.

낚시를 방울과 함께 싹트고 자라던 흥분과 야릇한 불안은 점차 없어지고 흠뻑 익은 용광로의 쇠물빛과 그것을 쇠장대로 휘젓고있는 작업반원들의 그리운 얼굴모습들이 자꾸만 어려와 마음을 뒹뒹 뜨게 하였다.

(지금쯤은 또 한차지 쇠물을 쏟았겠군, 경훈이 녀석은 또 덤벼치면서 전번처럼 손등을 데지나 않았는지 떠나올때 단단히 오금을 박아놓고 와야 하는걸 깜빡 잊었거든...)

로장의 잔걱정은 끝없었다.

꼭 먼곳에 어린 자식들을 두고 온 아버지의 그 심정이였다.

하기에 용광로와 함께 30년을 살아온 아바이였다.

로장에게 있어서 용광로는 생활의 전부였으며 작업반원들은 혈육이였다.

인제 한번 지금처럼 용광로와 헤어져 있어본적도 또 있으리라고는 티끌만치도 생각해본적이 없는 아바이였다.

작업반원들은 물론 제철소 당비서까지 등을 밀며 너무나도 성화를 먹이기에 휴양길을 떠난 로장이였다.

절절한 부탁과 간곡한 당부가 많은 휴양길이었다. 모두가 로장의 휴식과 관련한 부탁이었으며 당부였다.

《걸렸다!!》

환희에 넘친 처장의 웅글진 목소리가 호수의 《피로운 침묵》과 함께 로장의 사색을 대변에 깨뜨려버렸다. 순간 로장의 낚시줄 방울도 세차게 흔들렸다.

《이- 이것봐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로장은 낚시줄을 힘껏 나꾸어챘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술한 낚시군들의 성화에 령리해질대로 령리해진 고기들은 미끼만 뜯어먹고는 달아났던것이다.

로장은 가슴속에서 부끄부끄 피어오르는 아쉬움을 애써 녹잠하며 다시 눈길을 낚시를 방울에 모았다.

(큰일났군. 이렇게 빈낚시질만 하다가는 작업반원들앞에 면목이 서나.)

로장의 가슴속에 어느덧 불안스러운 조바심이 안개처럼 차오르기 시작하였다.

엉덩이는 안절부절못하며 들썩거리고... 호실 《계수원》이며 《료리사》인 운전사는 환성을 지르며 처장한테로 뛰어가고 등근해는 더 높이 솟아올랐다. 물은 눈부시게 반짝이였다.

빨강게 단풍든 나무잎사기와 연보라빛 들국화꽃잎들은 구슬같은 이슬방울을 털며 열정적인 빛과 향기를 날리였다.

호수가의 다양하고 선명한 색깔과 반사광에 젊은 화가는 불현듯 고동치는 심장을 억제 못하며 화판을 펼쳤다.

그토록 모색하던 빛과 색조가 튕겨주는 작품의 종자가 눈앞에 뚜렷이 펼쳐지면서 젊은 화가의

넋을 창조의 희열로 불타게 하였던것이다.

납시를 방울이 벌써 두번씩이나 울려도 화가의 붓은 계속 달리였다.

그의 붓끝이 화판우에 언뜻언뜻 스쳐지날 때면 신기하리만치 주위의 세계-푸른호수며 단풍든 물황철나무잎사귀들 또한 맑고 신선한 대기며 이름모를 가을철 들꽃들이 생기를 뿜으며 살아 움직이는것이였다.

거침새없이 활달하게 달리던 화가의 붓이 문득 굳어졌다.

로장아바이의 얼굴에 실린 어두운 그늘이 화가의 눈을 아프게 찔렀던것이다.

새아침의 기쁨에 충만된 호수가의 풍경과는 전혀 뜻밖의 모습이었다.

로장은 곰처럼 웅크리고 앉아 찌프린 얼굴로 연신 줄담배만 태우고있었던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로장은 자신을 위해 납시질을 하지 않았다.

작업반원들과 휴양생들을 위해 호수가에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그의 휴식과 기쁨이 곧 용광로 물길앞에서 일하고있는 작업반원들의 휴식과 기쁨으로 된다는 것을 로장은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게다가 오늘은 래달초에 60돛 생일상을 받게 되는 로기중기운전공 성실의 아버지를 위해 팔뚝 잉어 두마리는 꼭 낚으리라고 으벼르면서 납시터에 나왔던것이다.

다음엔 산후탈로 고생하고있는 2교대장안해를 위해 메사구를 낚고... 쇠물생산실적을 적어넣는 로장의 손바닥만한 수첩뒤면엔 고기잡이 계획이 이렇게 빼곡이 차있었다.

아마 푸른 수첩에 적혀있는대로 어김없이 고기를 잡는다면 휴양소를 떠날 때면 적어도 가마니 몇짝은 수하물로 부쳐야 할것이였다.

로장의 얼굴에 실린 불안과 그들은 휴양소 젊은측들의 부름소리로 하여 더욱 짙어갔다.

《<대가아바이> 몇마리를 낚았나요?》

한무리의 젊은이들이 떠들썩거리면서 납시터로 밀려오며 저만치서부터 소리치는것이였다.

《.....》

로장은 덩덤한 표정으로 담배만 세판게 빨았다. 《아이구! 종개 몇마리밖에 잡지 못했나요?!》 손가락 기장만한 종개가 서너마리 들어있는 다래끼를 실망과 의혹에 찬 눈길로 바라보며 젊은 휴양생들은 웅얼거렸다.

《음...》

피로운 군기침과 함께 로장은 호수건너편 대안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로장은 피로하고 안타까웠다.

욕망대로 되지 않는것이 납시질이라는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로장의 마음은 불안하였다. 꼭 송곳방석에 앉은듯이 엉덩이가 쭈서났다.

휴양이 아니라 고역처럼 느껴졌다. 어쩐지 꼭 죄를 짓고있는 사람의 심정이였다.

그래서인지 것처럼 거창하고 사나운 용광로와 쇠물도 마음대로 드다루던 로장이 납시터에서는 찢찢 매면서 마음의 안정을 잃고있었던것이다.

로장의 납시틀방울도 때없이 울리긴 하였다. 그러나 로장은 정무원 처장처럼 호기있게 고기를 기습에까지 끌어내지 못하였던것이다.

방울이 울릴 때면 탕빙봉을 휘두르던 힘으로 납시줄을 나누어줬으나 매번 빈납시만 끌려나왔었다.

로장은 좀처럼 납시질 묘리를 터득할수 없었다.

고기를 빨리 잡아야겠다는 건잡을수 없는 욕망과 조바심이 실패의 쓴맛을 보게 하였던것이다.

납시를 방울이 울린다고 하여 무턱대고 나누어채는것이 고기를 잡는 비결이 아니였으며 더우기 납시질이 아니였던것이다.

...희떠운 젊은이들은 심중한 얼굴빛으로 한동안 서로 마주보다 소리없이 물러갔다. 멀어져가는 그들의 발자국소리가 가슴을 허비는지 로장은 얼굴을 찡겼다.

자기가 잡은 고기로 회를 쳐서 그들에게 맛보이지 못하였던것이다.

멀어져가는 젊은이들의 뒤를 이어 또다시 울려오는 발자국소리에 아바이는 《후유-》 한숨을 토했다. 이와 함께 비자루같은 담배연기가 입과 코로 세차게 뿜겨져나왔다.

회를 칠 고기를 《인수》하러 뛰어오는 먼거리 자동차운전사의 귀에 익은 발자국소리였던것이다.

《로장아바이...》

운전사의 성급한 부름소리는 예상외로 그 어떤 기쁨에 젖어있었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할줄 몰랐다. 언제나 목청이 높았다.

아마 자동차 발동속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하는 운전사의 《직업》이 가져다준 《선물》인 모양이였다.

《...?》

로장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운전사의 고수머리를 흘깃 쳐다보았다. 운전사는 빙글거렸다.

《성실이란 처녀가 얼굴도 곱게 생겼나요?》

전혀 왕청같은 물음이였다.

《뭘?》

로장의 눈이 삼시에 등그래졌다.

《그렇게 놀라실건 없어요. 방금전에 관리원동무가 호실장에게 보낸 성실이란 처녀의 편지를

가지고 달려왔더군요.》

운전사의 엷은 입술이 귀밑까지 커졌다.

《우리 성실이가 편지를 보내왔다구, 좀 보여주게나?》

땀구멍이 승승한 로장의 거뭇한 얼굴에 드리운 인정과 함께 그 어떤 간절한것이 가득 배여 흘러넘쳤다. 무겁고 틀진 성미에 어울리지 않게 어찌도 헤덤비는지 꼭 헤어진지 몇해나 되는 자식의 편지를 받아보는 그런 표정이었다.

《나한테 온 편지는 안돼요. 아바이 편지나 보세요.》

운전사는 결봉투를 뜯지 않은 편지를 아바이한테 주었다.

편지를 읽어가는 로장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비졌다. 그리고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빙글썩 웃었다.

로장의 어깨너머로 편지를 훑쳐보는 운전사의 실눈에도 기쁨이 어려있었다.

편지의 매 글줄마다에 처녀의 기특하고 따듯한 마음이 빼곡이 차있었던것이다.

어제저녁에 있는 기업소 월생산총화에서 작업반이 영예의 1등을 쟁취하였다는 자랑과 함께 용광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라는 부탁의 편지였다.

또한 편지에는 호수가의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고기를 많이 잡아 맛좋은 생선회를 싫도록 잡수고 돌아와야 한다는 처녀의 귀여운 《엄포》도 있었다.

하지만 호실장인 운전사한테 보낸 편지에서처럼 로장아바이의 즐거운 휴식은 곧 우리 전체 작업반원들의 기쁨이며 휴식이라는 말은 없었다. 아마 로장이 휴양소를 떠날 때 수삼차 강조하여서인듯싶었다.

편지를 다 읽고난 로장은 썩썩한 손으로 구레나룻 볼편을 어루쓸며 물었다.

《허-허-참 녀석두... 호실장 자네한테는 뭐라고 써보냈나?》

《로장아바이 휴식을 우리 호실에서 구체적으로는 내가 책임져달라고 했어요.》

고수머리운전사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였다.

《내 휴식을 자네가 책임져...허 허.》 호탕하게 웃던 로장의 웃음소리가 뭉청 허리 부러졌다.

기슭에 밀려나온 빈 다래끼가 방금전 그의 밝은 마음을 흐려놓았던것이다.

집작컨데 얼굴모습도 꼭 아름다운 처녀를 두고 로장과 긴 이야기를 나누고싶었던 운전사의 말문도 막혀버렸다.

로장의 얼굴에 다시 주름발이 깊이 패우자 운

전사는 쭈뼛거리며 맥없이 되돌아갔다.

하지만 호실장인 운전사는 너럭바위 두리상에 《대가아바이》를 맨먼저 모시는것을 잊지 않았다.

혈떡이며 달려와 무겁게 일으키는 로장의 몸을 살뜰하게 부축하며 이끌었다.

그리고는 잉어며 쏘가리의 깊고 만만한 등어리 살점들을 로장쪽으로 밀어놓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로장아바이. 많이 잡수세요. 회맛은 전적으로 아바이<공로>예요, 아바이 고추장과 식초가 회맛을 돋구었거든요.》

《.....》

로장은 말이 없었다. 입을 꼭 다물고있었다.

너럭바위 두리반은 맛좋은 생선회로 하여 들썩거렸다.

주변의 낚시군들은 물론 멀리 길손들까지 두리반에 불러들이느라고 저마다 목청을 돋구었다.

로장은 담배연기를 풀썩풀썩 날리며 먼산만 쳐다보았다. 너럭바위 두리반 흥취속에 도저히 몸과 마음을 잠글수 없었던것이다.

(남은 속이 상해 그러는데 뭐가 좋아 이렇게 들 흥청이나- 꼭 한대포 한 사람들 같군. 허참-) 로장은 흐아흐아 웃고있는 사람들을 끝지 못한 눈길로 찰 흘려보며 군기침을 낚았다.

하지만 로장아바이 앞에는 고기점들이 자꾸만 덧쌓여 덩실한 《봉우리》를 이루었다.

지긋게 권하는 못사람들의 성화에 못이겨 아바이는 고기점 몇개를 입에 넣었다.

아직도 살아 푸들푸들 뛰는듯한 생신한 고기점들이 달콤하면서도 얼얼한 고추장과 식초맛에 한데 어울리면서 독특한 별미로 허끝에서 술술 녹았다.

그 유혹적인 맛이 오히려 로장의 얼굴에 발고랑같은 주름발들을 깊이 돋구었다. 용광로앞에서 땀을 흘리고있을 작업반들의 얼굴모습이 그러지면서 고기점들이 목에 걸렸던것이다.

로장은 저가락질을 몇번 하다 말고는 자리에서 움쭉 일어섰다. 몸이 천근처럼 무거워보였다.

운전사도 화가도 처장도 그리고 생선회에 정신이 팔려있던 옆의 사람들도두가 황급히 로장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로장을 다시 두리반에 놀려 앉히지는 못하였다.

《많이들 들라구.》

애써 웃음을 지으며 하는 로장의 말소리는 어찌보면 서글프게 들리는듯 싶었다.

××

어제도 오늘도 5호실은 새벽이면 어김없이 비

였다. 휴양소 창문들도 어김없이 열리었다.

그러나 감기에 젖은 젊은이들의 정다운 부름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로장의 얼굴에는 나날이 그들이 질어갔다. 두툼한 입술은 해종일 꼭 닫혀있었다.

남시터로 나가는 발걸음도 활기를 잃어갔다.

《대오》의 맨 앞자리를 정무원 처장에게 양보하고 이젠 뒤꼬리에서 끌려가고있었다.

그런 까닭에 웃음소리가 높기로 휴양소에서 소문났던 5호실은 어설픈 침묵과 함께 생활의 단증을 잃어가고있었다.

유쾌하고 즐겁기만 하던 그래서 그들이라고는 한점도 찾아볼수 없었던 5호실의 옛 풍경을 되살려보려고 모두 무척 애를 썼으나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다.

로장아바이뿐만아니라 요즈음은 젊은 화가의 얼굴에까지 알지 못할 수심이 비껴있어 5호실 문제는 더욱 《심각》하였다.

그것이 모두 《대가아바이》의 《어획고》와 관련되어있다는것을 어렵듯이 깨달은 호실에서는 간단한 협의회가 열렸다.

로장이 잠간 외출한 사이에 진행된 협의회는 사림성이 좋고 마음씨 부드러운 화가가 로장아바이에게 남시질 묘리를 터득시켜주는 분공으로 끝났다.

젊은 화가의 기쁨은 컸었다. 하면서도 어깨는 무거웠다.

그래서 정무원 처장에게 남시질 보충강의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정무원 처장은 조용한 어조로 손세까지 섞어가면서 화가가 아직 미처 터득하지 못한 남시질 묘리를 가르쳐주었다.

전국의 석탄공업을 책임진 생산처장의 강의로서는 너무나도 섬세하고 기발하였으며 구체적이였다.

화가는 다음날아침에 로장아바이옆에 남시터를 잡았다.

로장은 반기는 기색도 없이 말없이 《땀뽕》미끼를 반죽하였다.

《로장아바이, 오늘은 나와 함께 고기를 잡읍시다.》

화가는 어깨에 메였던 화판과 남시도구들을 모래불우에 펼쳐놓으며 말을 건넸다.

《뭘?! 고기를 함께 잡아?》

의아쩍은 목소리는 끊지 못하였다.

《네, 이를테면 제가 오늘부터 로장아바이의 남시질 <고문>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문노릇을? 그림은 언제 그리구?!》

한평생 불길에 그을린 로장의 철색얼굴은 퍼렇

게 질렸다.

그리고는 그 어떤 피로움때문인지 두눈을 지그시 감고 오래동안 말이 없었다.

《에이, 저렇게 머리가 돌지 않는다구야.》

못가에 자란 아름답리 버드나무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말을 엿듣고있던 운전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주먹으로 나무를 때렸다.

그 소리에 화가는 《아차》머리를 싸쥐었다. 돌이킬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던것이다. 때는 이미 늦었다.

《아 아바이, 그런것 아니라...》

화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말을 더듬었다.

《화가선생, 내 걱정은 말구 해빛을 따라 저기 돌이굽이에나 가슈, 해떨어지기전에 빨리 그림을 그려야지.》

로장은 아직도 푸른 성장의 일부를 뚜렷이 보존하고있는 나무잎사귀들이 해빛에 번쩍거리는 호수건너편을 턱으로 가리키며 서글픈 어조로 말하였다.

젊은화가는 뒤더수기를 굵적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로장아바이, 실상은 호실분공이 돼와서...》

《걱정 말게. 그런 분공은 집행하지 않아도 별일없을테니까. 그림분공이나 빨리 끝내게.》

미끼샤안에서 자갈돌 뒤섞이는것 같은 투박한 목소리가 화가의 귀전을 얼얼하게 때렸다.

로장의 굵은 눈썹이 무들쩍하였다.

화가는 자라목이 되어 공공 갑자르기만 하였다. 운전사는 맥이 풀려 잔디밭우에 팔베개하고 별령 누워버렸다.

높디높은 파아란 하늘에선 흰구름송이들이 한가로이 흐르고 있었다.

결국 첫번째 호실협의회는 실패로 끝난셈이였다.

다감하고 열정적이던 젊은 화가의 어깨는 부러진 새죽지처럼 축- 처졌다.

어느날 먼거리자동차운전사가 화가에게 물었다.

《화가선생, 거 방법이 괜찮더군요. 그건 그림구. 요즈음엔 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림을요? 허 차차 그리지요.》

화가는 허구프게 웃으며 한숨을 토했다.

그 한숨소리에 신문을 뒤적이던 처장의 눈이 크게 떠졌다.

《아니 화가선생은 또 어찌된 영문이요?》

뜨직하면서도 웅글은 처장의 목소리에 화가의 목덜미는 별경게 달아올랐다.

실상 화가의 고민은 컸다.

호수가에서 붓을 멈춘이후에 오늘까지 닷새가

넘도록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있었다.

그토록 투명하고 산뜻하고 그윽한 호수의 아름다운 가을풍경을 화가는 심장으로 감수할수 없었던것이다.

로장아바이의 어두운 얼굴빛이 주위세계의 그 모든 빛과 색조 설레임과 음향을 흐리게 하였던 것이다.

더우기 어제는 로장이 제철소로 돌아가겠다는 바람에 호실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

《로장아바이, 정말 떠나겠어요.》

운전사는 로장의 손을 부여잡으며 물었다.

《떠나겠네, 나때문에 화가가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있지 않나! 그리고 용광로사람에게 죄를 짓고있네. 그들은 내가 고기를 많이 잡으면서 즐겁게 휴식하길 간절히 바라고있네. 그것이 곧 불앞에서 땀을 흘리고있는 그들의 기쁨으로 되고 휴식이 되거든... 그런데 고기가 잡혀야 내 마음도 뚝뚝하고 편안하지 않겠나? 아무리 애써도 내 성미로써는 고기를 잡질 못할것 같네. 그럴바치고는 하루빨리 제철소로 돌아가는것이 더 좋을상실네 ...》

로장은 막무가내로 트렁크를 꾸리었다.

《로장아바이, 그럼 함께 휴양을 온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호실사람들의 실정도 생각해주어야지요.

아با이를 떠나보내면 어버이수령님의 배려로 휴양소에 온 우리들이 즐거움이 아니라 가슴에 무거운 그늘이 저서 돌아가게 될것입니다. 더우기 화가선생도 좋은 그림을 그리지 못할게구...》

먼거리자동차운전사총각은 글썽해진 눈물로 절절하게 만류하였다.

처장과 화가는 우격다짐으로 트렁크를 빼앗으며 로장을 침대에 눌러앉히었다.

...두번째 협의회는 심각한 분위기속에서 열렸다.

단순히 로장의 기본전환뿐만아니라 화가의 창작문제까지 겹쳤던것이다.

《문제는 심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장아바이의 얼굴에 비낀 무거운 그늘이 화가선생의 그림까지 망쳐놓고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호실장인 운전사는 말문이 막혀 한동안 갑자르다가 문득 손벽을 치며 환성을 올렸다.

《됐습니다. 휴양소 뒤개울을 막읍시다.》

《뒤개울을 막다니?》

처장과 화가는 뜻밖의 소리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그마한 호수를 만듭시다. 공사는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처장동지와 화가선생은 고기를 잡아놓아주시시오. 그리고 아با이를 데려다가 낚시를

던지게 하세요. 그러면 미끼없는 낚시에도 고기가 물릴게 아닙니까? 그다음엔...》

흥분으로 하여 청뿔던 호실장의 목소리는 손가락도 없이 나들문이 열리는 바람에 문득 끊기었다.

뜻밖에도 로장이 방안에 들어서고있던것이다.

세사람은 흠칫 놀랐다. 나쁜 장난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들킨 아이들처럼...

방안엔 긴장하면서도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호실장, 미끼없는 낚시를 고기가 어떻게 문다고 그러나?》

로장의 의아한 물음이었다. 문밖에서 호실장의 마지막 말을 들은 모양이었다.

《아 아닙니다. 그런 고기가 어데 있겠습니까?》

그저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운전사는 어찌나 당황하였던지 말을 더듬었다 하면서도 막 울상이었다.

처장과 화가도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긁적이었다.

로장은 영문을 알수 없다는듯이 고개를 가로젓다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머리를 돌렸다.

《호실장, 우리 성실이한테 회답을 했나?》

《아니요.》

운전사는 멋지게 웃으며 심드렁하게 대답하였다.

《편지를 받았으면 회답을 해야지.》

로장의 얼굴에 어딘가 모르게 서운한 기색이 어려있었다.

《.....》

먼거리차운전사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하면서도 로장에 대한 안타깝고 야속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처녀가 회답을 기다리고있으리리는것을 그는 잘알고있었다.

뜨거운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릴수록 운전사는 단한줄의 편지도 쓰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로장은 어설피게 쪼프린 정겨운 눈길로 운전사를 지켜보며 버축이 웃었다.

《호실장, 얼굴도 정말 고운 처녀야. 어디 한번 사진을 보겠나?》

《사진을요?!》

세사람의 얼굴이 대뜸 밝아졌다. 그리하여 호기심이 어린 눈길로 아바이결에 바투 다가앉았다.

로장의 말에는 보탬이 없었다. 정말 처녀는 아름답다왔다.

작업복차림의 드센 사나이들속에 끼워 방긋 웃는 처녀의 모습은 무성한 수림속 한그루의 하얀 봄나뭇를 련상시켰다.

로장은 가운데 좌석에 점잖게 앉아있었다. 작

업반 영예사진이었다.

《어때, 마음에 드나?》

로장은 두눈을 꿈뻑이며 운전사를 던지시 쳐다 보았다.

《…………》

《우리 로의 기증기운전공이라네, 공장대학 3학년생이구.》

희맑은 두볼에 샘우물을 지으며 웃고있는 처녀, 성실이에 대한 로장의 자랑은 끝이 없었다.

처장도 화가도 함께 맞장구를 치며 처녀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근경에 빠진것은 운전사였다. 입심종고 반죽종던 평시의 그 성격은 어데 갔는지 별경게 달아오른 얼굴을 주체못하며 몸둘바를 몰라 찢찢 매었다.

《생각이 있으면 중매를 서줄 용기도 있네. 허-》

《로장아바이, 그것참 멋있는 생각입니다.》

처장과 화가는 로장의 말에 키질하였다.

한동안 5호실은 웃고 떠들며 흥청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웃음소리와 함께 마음속 그늘까지도 전부 지워버리지는 못하였다.

먼거리차운전사는 끝없이 펼쳐지고 달리는 그 어떤 충동과 고요하면서도 그들먹이 차오르는 가슴속 흥분을 애써 녹잠치며 책상우에 편지용지를 펼쳐놓았으나 끝내는 편지를 쓰지 못하였다.

처녀의 간절한 부탁을 아직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에 만년필방아만 찼었다.

새벽하늘에 별들이 돌기 시작하였다.

휴양소는 고요하였다. 귀전을 간지럽히는 자그마한 소음들이 유난히 뚜렷할뿐이었다. 낮이나 밤이나 휴양소는 언제나 고요하였다.

전야의 프락토르의 동음도 밤렬차의 먼 기적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인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숲속의 고요속에 휴양소는 묻혀있었던것이다.

외관상으로 보면 인간생활과 멀리 유폐되어있는 듯한 고독하고 서글픈 인상까지 주는듯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생활은 변함없이 들끓고있었다.

이곳에서 생활은 변화한 도시나 산기슭 농촌마을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자기의 독특한 향취와 리듬, 진폭을 가지고있었다.

레사로운 이야기과정에 몇년동안 고심탐구하던 과학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온 로학자의 탄성과 휴양의 나날에 통성을 나눈 방직공처녀와 먼바다 어로공총각의 밝은 미소와 정다운 속삭임, 호실장인 교수머리총각운전사의 한숨소리, 깊은 사색에 잠겨 락엽이 구르는 프락을 거니는 중년 소설

가의 발자국소리, 끝없이 펼쳐지면서 재현되고 또 이어지는 들끓는 조국의 생동한 화풍과 성실하고 근면한 우리 시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 모든것들은 휴양소에서만 찾아볼수 있고 또 누릴수 있는 독특하고 이채로운 생활이었던것이다.

...밤은 깊어가고있었다.

로장도 화가도 처장도 이젠 깊은 잠에 들었다.

창밖의 하현달을 바라보며 침대우에서 궁싯거리던 운전사의 야릇한 마음도 꿈속으로 찾아들무렵 로장의 잠꼬대가 호실전체를 깨웠다.

《걸렸다. 이크 10키로는 문제없군. 공정기사처녀, 자, 빨리 대상이나 얻어야 큰상에 척 올려놓지? 허허.》

은하수가 기우는 밤 사위는 고요하고 여물어가는 풀벌레소리만 유난한 가을밤에 그들은 잠자리에 다시 들지 못하였다.

다만 로장의 코소리만 풀벌레 우짚음과 승벽내기를 하며 방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세번째 호실협의회는 침대우에서 잠옷바람으로 열렸다.

세사람은 깊은 잠에 들어있는 로장을 지켜보며 오래동안 말이 없었다.

담배를 두대째 갈아대던 처장이 천천히 말꼭지를 뺐다.

《래일부터 밤주낙을 놓읍시다.》

《밤주낙을요?!》

성급한 운전사가 처장의 말을 동강냈다.

《쉬-쉬-가만...》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있던 화가가 로장을 가리키며 눈을 꿈뻑이었다.

처장이 담배연기를 가슴 후련히 빨아삼키면서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서야 그들은 무릎을 쳤다.

이번엔 처장이 입언저리에 손가락 빗장을 지르며 《쉬-쉬-》하였다.

로장이 《꿈-》하며 옆으로 돌아누웠던것이다.

세사람은 눈이 휘둥그래져 로장을 지켜보았다. 방안에 침묵이 흘렀다.

어느덧 로장의 숨소리는 고르로왔다.

그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입대신 손가락시늉 《말》을 주고받았다.

아무리 훌륭한 손가락시늉도 그들의 뚫어오르는 가슴속 생각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였다.

특히 안타까와한것은 먼거리차운전사였다.

하지만 성미급한것만큼 기발한 생각이 앞서는 운전사였다.

그는 세사람이 마주앉은 가운데에 종이장과 연필을 펼쳐놓더니 제가 먼저 이렇게 썼다.

《처장동지- 이젠 대단한 <발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처장동지-》

처장- 《호실장, 비행길 태우지 말라구, 그게 무슨 <발견>이겠나, 진짜 비행길 모레아침에 로장아바일 태우자구...》

화가는 뒤장에 커다란 잉어를 가슴에 부둥켜안고 비행기에 앉아 제철소 하늘을 날고있는 로장의 흐뭇한 모습을 빠른 숨씨로 속사하였다.

.....

휴양소의 가을밤은 이렇게 깊어가고있었다.

부드럽고 교묘한 달빛은 창가로 엇가로 흘러들며 방안에 은근한 빛을 던지고있었다.

커다란 흥분과 은근한 불안속에서 보낸 새날도 다 가고 하루해가 저물자 5호실모두는 주낙을 놓았다.

불타던 락조의 마지막 잔광이 호수에 연하게 비끼며 어둠이 자리를 넓혀갔다.

주낙을 두들이나 놓은 로장도 흥겨운 기분에 잠겨 휴양소의 저녁길을 걸었다.

운전사는 코노래를 흥얼거렸고 화가는 감상적인 눈길로 파릿한 별들이 돌기 시작한 둥근하늘을 쳐다보았다.

...창가에 희뽇한 빛이 어리기 시작한 새벽녘에 로장은 운전사의 요란한 재채기에 잠을 깨었다.

운전사는 연방 터져나오는 기침과 함께 코물을 들여마시느라고 《흠-흠》거렸다.

로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운전사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운전사의 머리는 뜨끈하였다.

《어이쿠, 된 감기에 걸렸군 호실장이...》

로장은 다급한 마음으로 자기의 트렁크 밑바닥에 간수한 비상약봉투를 터치였다. 그리고는 운전사를 깨웠다.

고열속에서도 운전사는 깊은 《잠》에 들어있었다.

로장은 벌겋게 달아오른 운전사의 얼굴을 근심 어린 눈길로 지켜보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박을 나섰다.

휴양소는 호수에서 피어오르는 새벽안개를 허리에 감은채 아직도 잠들고있었다.

랭기가 느껴지는 바람이 가벼운 물결처럼 밀려와 트락의 락엽들을 굴리었다.

검푸른 하늘은 희속하게 바래지면서 어둠에 묻혔던 삼라만상을 새날의 새 모습으로 눈을 띄워주고있었다.

버릇처럼 어김없이 지켜오던 간단한 아침체조도 까맣게 잊은 로장은 호수가로 바삐 걸어갔다.

감기에 걸린 운전사에게 어서 빨리 뜨끈하고 푸짐한 잉어 납비탕을 끓여주어야겠다는 조바심

이 마음을 들볶았던것이다.

《원, 무쇠같은 사람이 감기에 걸리다니 찌뜨...》

근심은 가슴속에 안개처럼 차올랐다. 숨이 막아왔다.

《원 무쇠같은 사람이 감기에...찌뜨》

로장은 연신 같은 말을 곱씹으면서 바삐 걸음을 옮겼다.

5호실 세명도 아바이뒤를 따랐다. 그들은 호수가 숲속에 몸에 던졌다.

밤이슬이 내린 풀숲에 엎드린 운전사는 터져나오는 재채기를 참느라고 무진 애를 썼다.

어느덧 로장이 줄담시를 걸기 시작하였다.

첫 순간에 벌써 세키로는 훨씬 넘을 잉어가 물장구를 치며 호수의 새벽정적을 깨뜨려놓았다.

《걸렸다-!》

로장의 함성이 호수뿐만아니라 휴양소전체를 잠에서 깨웠다. 창문들이 열렸다.

《또 걸렸다-!!》

《또-또 걸렸다-!!!》

로장은 어찌나 흥분하였던지 자신도 미처 견잡지 못하고있었다.

담시에 걸린 고기들은 연방 기슭에 끌려나오며 세차게 요동을 쳤다.

로장아바이의 탄성은 그칠줄 몰랐다.

아침이슬이 반짝이는 풀송구리속에 몸을 감춘 처장과 운전사, 화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어려있었다. 그리고는 저마다 깊은 숨을 내그었다. 가슴속에 멎었던 그 어떤 웅어리가 풀려내려가듯-

화가는 화판과 붓을 호실에 두고나온것을 못내 아쉬워하며 안절부절 못하였다.

팔따시같은 고기를 가슴에 부둥켜안고 기빠어쩔줄 모르는 로장의 그 모습과 주위의 풍경을 속사해두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였다.

그러나 짧은 화가의 심장은 일찌기 체험해보지 못한 커다란 창작적 흥분과 충동으로 하여 높뛰었다.

철색의 얼굴에 땀구멍이 승승한 로인, 한평생을 용광로 불길앞에서 살아온 로장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공기는 맑아지고 호수는 설레이며 고기떼가 옥실대는 우리 시대 자연의 참다운 아름다움과 풍요함을 깊이 체득하였던것이다.

《대가아바이》는 무거운 고기다래끼를 어깨에 둘러메고 휴양소 앞마당을 씨영-씨영 걸었다.

휴양생들은 열어젖힌 창문으로 저마다 몸을 솟구었다.

《야- <대가아바이>모두 몇마리나요?!》

놀람과 경탄에 찬 물음들이였다.

하지만 로장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들이 비낀 얼굴로 안개를 휘저으며 식당쪽을 향해 바삐 걸었다.

호실에서는 운전사가 앓고있었던것이다.

...어느덧 안개는 건너편 산정으로 입김처럼 피어오르고 하늘과 호수의 수면에 장미색 줄무늬가 비끼기 시작하였다.

호수가의 이른아침 대기는 황금빛 해살의 줄기찬 빛과 무수한 반짝임, 투명한 공기의 상쾌함과 단풍은 수림과 들꽃들의 향기로 가득차있었다.

멀어져가는 로장의 뒤모습을 쏘프린 눈길로 바라보며 고수머리운전사는 꺾어진 들국화꽃송이를 입술에 대고 알싸한 향기를 가슴깊이 마셨다.

정무원 처장이 운전사의 팔꿈치를 툭-건드리며 히죽이 웃었다.

《처녀한테 써보낼 편지 명문장을 고르나?》

총각은 와뜰 놀라며 얼굴을 붉혔다.

처장이 그의 심중을 너무나도 정통으로 찢렸던 것이다.

《허허, 빨리 쓰게나. 얼마나 좋은가, 모든것이 정답고 살뜰하고 밝고...》

끝없이 중얼거리며 처장은 또다시 재채기를 시작한 운전사의 어깨에 손을 얹고 화가는 화구통을 두고온 호실로 꺾충꺾충 뛰어갔다.

.....

이른아침-5호실이 텅 비는 그무렵이면 휴양소의 창문들은 또다시 승벽으로 열렸다.

《<대가아바이> 오늘은 몇두릅이나요?》

더없는 존경과 신뢰가 담긴 목소리들이 머리우에서 소낙비처럼 쏟아져내렸다.

《문제없어-잠자리나 거두고 빨리 뒤따르라우-》

《대오》의 맨앞장에 선 로장은 밀짚모자를 벗

어 흔들며 호기있게 걸어갔다.

처장과 화가 그리고 운전사는 말없이 그뒤를 따르고...

휴양소의 젊은이들은 물론 기회가 생길 때면 당직관리원처녀까지 호수가에 나왔다.

그리하여 《대가아바이》의 푸짐한 생선회로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속눈썹이 축축한 관리원처녀의 고운 눈길은 도무지 감기가 떨어질줄 모르는 운전사와 어제부터 재채기를 시작한 화가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오래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

오늘도 용해장의 설참이면 자기네 로장의 낙시질습씨를 두고 용해공들은 웃음꽃을 피웠다.

로장의 놀라운 낙시질에 그들모두의 정성과 노력도 깃들어있는것으로 하여 용해장의 웃음소리는 더욱 높았다.

그때면 로장의 얼굴엔 더없이 만족한 미소가 어리고...천정기중기의 창가에선 두볼이 딸기빛으로 물든 성실이가 방금전에 날아든 편지의 글줄을 반짝이는 눈길로 더듬었다.

그러나 휴양소 5호실의 처장과 운전사, 젊은 화가가 매일같이 호수의 찬물속에서 헤엄을 치며 로장의 줄낚시에 산고기를 꿰놓은줄을... 그리고 그밤에 호수가 물역에 빨강계 타오르던 모닥불의 따스함과 젖은 옷을 말리우면서 그들이 나눈 별 많은 밤의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미소를 그 누구도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것이다. 오늘까지도-

하루 세끼 어김없이 잉어 남비탕을 끓인 로장도 지어 부피 두터운 편지로 하여 남몰래 가슴 불태우고있는 처녀 성실이까지도...

가사

피끓는 세대여 청춘은 불타라

송찬응

이 땅에 부모들이 락원을 세울 때
요람의 창가에서 웃으며 자랐네
행복한 세대여 청춘을 불타라
은혜론 조국 위해 바칠 때 왔다네
아 이 한몸 바치리

불구름 폐허속에 용맹을 날리던
아버지 젊은 시절 내 어이 잇으랴
피끓는 세대여 청춘을 불타라

혁명의 대를 이어 우리는 나섰네
아 위훈을 떨치리

보람찬 로동으로 당의 뜻 꽃피워
영광의 80년대 찬란히 빛내네
꿈많은 세대여 청춘은 불타라
미래는 우리의것 내려쳐오르리
아 더 높이 오르리

은혜로운 품속에서

김형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신 다함없는 영광속에 공화국창건 35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나의 가슴은 끝없는 감격속에 설레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세워주시고 빛내여가시는 공화국의 품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행복의 요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혁명의 발전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였습니다.》

서른다섯해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시였을때 그것이 우리 혁명의 발전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이처럼 거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인줄을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알수도 없었다. 나는 그때 겨우 열살 소년이였다.

다만 그때 내가 알수 있었던것은 어머니와 형님들이 땅을 분여받았을 때처럼 길길이 뛰여오르며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기도 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도 덩실덩실 춤을 추는것으로 보아 아주 커다란 경사가 났다는것을 어렵듯이 짐작하였을따름이다.

그러나 세월과 더불어 나는 그것이 경사중에서도 세상에 더없는 대경사였으며 나의 운명도 결정지은 거대한 사변이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장군님의 은덕으로 지주놈의 꼴을 안보고 제 소로 제 땅을 갈아 먹을 걱정 모르게 되었다는 어머니의 눈물겨운 말을 통하여 나는 열살때 머슴을 살았는데 너는 중학교에 가게 되었다면서 책가방을 사다주던 형님의 밝은 얼굴빛을 통하여 나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공화국정권이 없었더라면 벽동에서 심심산골인 두암리의 《감자바우》인 내가 어찌 고급중학교를 거쳐 과학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마음껏 배울수 있었단말인가! 그것도 수업료를 바칠 대신 오히려 다달이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나는 나라의 혜택을 끝없이 받는 나날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진정한 조국이며 그것 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는 더없이 소중한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내 형님이, 내삼촌이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덤벼든 미제침략자들을 쳐물리치는 성스러운 싸움에 한몸바쳤다는것을 나는 알았다. 아니 이 나라의 귀중한 아들딸들이 피흘리며 목숨을 바쳐가며 미제

침략자들을 쳐물리쳤기에 방공호안에서도 공부를 계속할수 있었음을 나는 사무치게 깨달았다.

선렬들이 피로 찾은 조국을 위해, 그 조국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선렬들앞에 부끄럼이 없이 살자면 나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창작에 뜻을 두게 된것은 바로 그때문이였고 처녀작의 소설제목을 《조선사람》이라고 단것도 바로 그때문이였다.

조선사람! 이제는 나라잃고 식민지노예의 슬픔을 골수에 사무치도록 맛본 인민, 오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찾아주신 조국에서 참다운 행복을 마음껏 누려온 인민, 그런 인민은 그 어떤 침략자도 용서하지 않을것이며 그 어떤 원수도 조선사람을 정복할수 없다는것을 나는 《개총쇠》라는 한 머슴군이 미제침략자들과 맞서 용감하게 싸우면서 권수복이라는 새 인간으로 성장한 모습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확인하려 하였다.

물론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워낙 창작적재능이 어린데다가 경험도 없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자라난 새 조선의 새로운 인민, 어떤 원수의 침략도 용서하지 않은 조선사람의 새로운 성격적 특질을 밝혀내고싶은 충동을 누를수가 없었다.

내가 그후 장편소설 《적후의 별들》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도 바로 그때문이다.

조선사람중에서도 선진적인 투사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인 조선로동당원들이 공화국을 삼키려고 덤벼든 미제원수놈들을 반대하여 어떻게 싸워이키며 그 힘이 어데 있는가를 예술적으로 해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장편소설 《적후의 별들》도 독자들의 기대에 만족을 주지 못하였다.

조국이 어려운 시련을 겪던 시기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랑의 해발을 언제나 그 어디서나 받고있기에 조선로동당원들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소설에서는 조선로동당원들을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던 시기 적후의 캄캄한 밤하늘에 밝게 비치는 《별》들로 형상하려 하였다. 조국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이 나라의 참된 아들딸들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다. 욕망은 컸으나 아직 형상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하기에 나는 더욱 분발할것이며 더 억세게 전

진할것이다. 나를 소설가로 키워준 은혜로운 조국에, 영광스러운 당에 보답을 드리기 위해 부족한 재능은 땀을 흘리며 탁마하고 모르는것은 지혜로운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 허심하게 배우면서 소설가의 구실을 온전히 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다.

이것은 은혜로운 공화국의 품속에서 자라난 당원-작가의 영예롭고도 숭고한 의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 숭고한 의무를 지켜 공화국을 받드는 믿음직한 초병이 될것이다.

락원의 맹세를 안고

한원희

락원의 구내길을 나는 걷는다
쇠내를 머금은 바람도
그날의 맹세가 어려 뜨거웁고
무쇠지붕에 비껴가는 붉은 노을도
그날의 신념이 어려 저리도 불타는가

용선로에 사품치는 쇠물도
그날의 당원들이 남겨놓은 마음인듯
백광을 뿌리고
송풍압의 거센 흐름도
그날의 숨결인듯 내 가슴 흔든다

조국이 어려웠던 그 나날에
복구건설은 넘려마시라고
아버이수령님앞에 말씀올린
락원의 10명 당원들

세월은 멀리 흘러갔어도
그날의 그 맹세
그날의 그 세포결정은
우리의 가슴속에 불타오르거니

그날의 당원들이 섰던 그자리에
오늘은 새 당원들이 들어서고
달과 달을 이어
해와 해를 이어
쌓이고 쌓이는 수많은 결정속에
그 하나의 맹세를 안고사는 락원땅

우뢰를 몰아 줄달음치는
천정기중기운전공의 마음도
그날의 맹세를 지켜 불이 되고
방금 무어낸 굴착기를 시운전하는
조립공의 눈빛도 그 마음이 어려
엄엄히 불란다

아, 수령님의 뜻이라면
눈보라치는 하늘땅 끝에 가서라도
용선로를 실어오던 그 길을 이어

오로지 그이 바라시는 그 모든것을
이 땅우에 안아오는 사람들

우리 수령님 계시기에
어려운 날의 고통도 한순간뿐이고
안아올 승리는 천만년 영원할것임을
스스로 자각한 그 마음
대를 이어 불태워가는 그 맹세

부어낸 주물폼에 실금이 가도
마음속으로 그날의 결정을 잃고
심장으로 그 대답을 찾으며
그 하나의 맹세로 들끓는 땅
내 눈시울 뜨거이 젖어든다

아, 세대는 바뀌고 산천은 변해도
영원한 하나의 결정속에
위대한 수령님 우러러모시고
우리 당을 우러러 따르는 한마음
준엄한 나날에도
행복한 나날에도 변함있으랴

세월의 언덕을 넘어
불꽃튀는 기대와 기대를 넘어
조국땅에 울려가는
그날의 그 목소리

그 부름에 온 나라가 화답하며 일어선다
두줄기 철길우에 질풍처럼 달리는
꼬리 긴 기관차의 드높은 기적소리
천길 지하막장에 터져오르는
대발파의 메아리
전변의 력사가 태동하는 소리

아, 락원땅 락원땅!
조국의 맹세가 타오른 땅
자욱마다 뜨거웁에 목메여 나는 걷는다
당을 따라 영원히 안고갈
그날의 결정으로 이 가슴 불태우며-

탐구되고 세련된 대사형상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의 대사형상을 두고-

럼희래

최근에 나온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을 창조한 특출한 성과작이다. 영화는 당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당사업독본으로, 참된 생활의 교과서로, 힘있는 투쟁의 무기로 되고있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가 커다란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며 충성의 한길을 드림없이 걷도록 고무추동하는 성과작으로 될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대사가 높은 사상예술적견지에서 탐구적으로 세련되게 구사된데 있다.

영화의 대사의 높은 사상예술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담고있는 사상의 철학적심오성에 있다.

영화가 제기하는 기본문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다. 바로 주인공 차석빈의 대사들은 이것을 밝혀내는데 이바지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다시말하여 당성은 무엇보다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 차석빈은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이다. 그의 성격적특질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즉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관철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다.

대사는 이 숭고한 혁명정신이야말로 영화의 주인공의 신념화되고 체질화된 성격적특질을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부각하고있다.

《원철이, 당에선... 옥천강발전소에서 전력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데 대해 대단히 걱정하고있네.》

.....

《원철이, 우린 당원이지? 당원이 어떻게 당에서 준 과업을 수행 못하구 단 한순간이라도 마음편하게 살수 있겠나?》

.....

《밥을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것 같구... 자리

에 누워도 잠을 못자네.》

이것은 영화의 첫머리에서 앞으로 자기의 외동딸인 수영이와 일생을 같이 하게 될 제대군인청년인 원철이와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그가 당의 부름따라 탄광으로 갈 결심이 확고하다는것을 알았을 때 당의 방침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는것을 못내 안타까와하던 차석빈이 은근한 기쁨과 남다른 기대를 걸고 원철에게 터놓고 하는 말이다.

이 대사에는 주인공의 사상정신적특질이 간결하게 집약적으로 담겨있다. 《밥을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것 같구... 자리에 누워도 잠을 못자네.》이 짙막한 말은 앞의 대사문장과 밀접한 의미적련관을 가지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이 의도하는대로 사업하지 못하는 차석빈의 마음의 괴로움을 백마디의 말을 대신하여 의미깊게 나타내고있다.

당의 방침대로 옥천강발전소에서 전력을 제대로 생산할수 있도록 통산탄광이 매달 2천톤의 석탄을 더 대주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안타까와하고 괴로와하며 모대기는 군당책임비서의 진정이 얼마나 뜨겁고도 진실하게 안겨오는것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과 당의 방침을 진심으로 받들고 끝까지 관철하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이것이 이 대사의 핵이다. 다시말하여 이 대사는 당이 맡겨준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서는 단 한순간도 마음편히 살수 없고 설사 산다고 해도 사는 보람이 없다는 주인공의 고결한 사상정신세계를 생활적이면서도 형상적인 언어를 통하여 감동적으로 밝혀내고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대사 하나만을 가지고도 영화의 주인공 차석빈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당일군인가를 잘 알고도 남음이 있는것이다. 영화의 첫머리에서 차석빈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군당책임비서임을 간결하게 함축된 생활적인 언어로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는데 바로 이 대사의 사상예술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이 대사가 그렇듯 진실하고 설득력있게 안겨오는것은 영화의 주요대목들에서 차석빈의 충성심의 사상정신적바탕과 생활적전제를 깔아주는 대

사들이 함께 주어져있는것과도 관련되어있다.

《당신도 알고있지만...난 열두살때까지 철다리 밑에서 거적때기를 쓰고살았소. 나의 부모는 전염병으로 한시에 세상을 떠나구 나 혼자 남았댔소.》

《낮에는 거지떼들을 따라다니면서 큰 거지들이 주는 밥궤기를 하나씩 얻어먹구, 밤에는 철다리 밑에 와서 나를 혼자 두고 가버린 부모를 원망하면서 쉼게 울다가는... 제풀에 잠이 들곤했소...》

《그래서 늘 고아라는 설움이 나의 어린 가슴 한구석에 차있었소. ... 그게 없어진게 아마 내가 입당하는 날일게야. 그때 당위원장이 <석빈동무, 당은 진정 어머니품이요. 이제부터 오직 당을 믿고사시오.> 하더군, 정말 ...당은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였구, 아버지였구 또 친형제였소. 내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이 더욱 깊어지면서 어버이수령님을 더 잘 모시고, 당을 더잘 받들어야겠다고 늘 마음속으로 다짐하곤하오...》

이것은 당의 뜻을 받들고 탄광을 지원한 원철이를 따라 딸 수영이를 탄광마을 학교교원으로 보내려는 자기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안해 정심에게 자신의 어릴적 생활과 입당하던 날을 회상하면서 하는 차석빈의 대사이다.

류랑걸식하던 거지신세로부터 존엄있고 행복넘친 보람찬 삶으로 차석빈의 운명을 전변시켜준 당은 그에게 있어서 혈육보다도 더 따사로운 품이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더 잘 받들어 모시고싶은 오직 그 충성의 한마음으로 살며 일하는것이다. 결국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덕속에 자신의 행복만을 찾을수 없었으며 당의 의도를 관철하지 못하고서는 순간도 마음편할수 없었고 자리에 들어도 잠들수 없었다. 그의 쓰라린 과거에 대한 회상과 당의 은정에 대한 굶어오르는 고마움에 대한 대사가 극발전의 주요 계기에 주어짐으로서 《밥을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것 같구... 자리에 누워도 잠을 못자네.》라는 대사가 영화의 종자와 주인공의 성격의 핵을 체현한 의의있는 대사로서 이처럼 진실하고 절절하게 느껴지는것이다.

또한 이 대사에 숨배여있는 차석빈의 당에 대한 충성심의 뜨거움과 진실함은 영화의 마감장면에서 2천톤의 탄을 실은 차량이 들이닥치고 수입원료를 대신하게 될 점화로의 시험이 성공되었을 때 《이제는 당에서 한시를 놓게 됐구나. 당에서...》라고 기쁨에 목메여 하는 그의 말에 의하여 더욱 감동깊게 안겨오며 힘있게 확증되는것이

다.

이처럼 이 대사는 대사자체의 심오한 사상적내용과 함께 그것을 밑받침해주고 부각해주는 다른 대사들에 의하여 더욱 빛을 내고있다.

다음으로 영화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것이 사람의 참된 도리라는것을 깨우쳐주는 뜻깊은 대사들이 있다.

《임자의 친어머니는 박우필이를 돌덩이처럼 버렸지만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자넬 안아 먹여주시구, 입혀주시구, 대학교를 졸업시켜 오늘은 나라의 큰간부로 내세워주셨어.》

.....

《자넬 친구의 신세값은 잊지 않으면서두 제 운명을 건져주구 인생을 키워준 당의 은덕은 당초에 잊었거던! 정말 의리가 없는 녀석이 됐어!》

이것은 영화에서 발전소기사장 박우필이 리기주의와 공명심에 사로잡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은덕을 저버린 행위를 두고 비판하는 최관배로인의 말이다. 이 대사는 사람들의 크나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지울수 없는 여운을 오래오래 남겨준다. 그것은 이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피눈물나는 쓰라린 과거와 오늘의 끝없는 행복의 근원에 대하여 깊이 되새겨보게 하며 생활의 심각한 교훈을 안겨주면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켜나가는 참된 길을 변함없이 견도록 깨우쳐주기때문이다.

아버지는 일찌기 왜놈공사관에서 돌에 치워 돌아가고 어미는 혼자 살수 없어 아들인 박우필이를 돌덩이처럼 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부모없는 그를 따사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대학까지 졸업시켜 오늘은 큰 발전소 기사장의 중책을 맡겨주시었다. 그런데 박우필은 친구의 신세값은 할줄 알면서도 그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한생을 세심히 보살피시며 참된 삶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은 저버리고 수령님과 당의 뜻을 진심으로 받들지 못하는것이다.

이 말은 개인리기주의와 공명심에 들떠 당조직이 주는 충고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도 당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는 박우필의 비당적, 비도덕적행위에 대한 얼마나 예리하고 뼈아픈 비판인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은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혁명적의리이다. 이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순간이라도

저버리는것은 최종에서도 가장 큰 죄악으로 된다.

그러기에 이 대사는 박우필이 내 진짜 배은망덕했수다 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심각히 뉘우치는 성격개변의 결정적계기를 지어주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한생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은덕과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참된 생활의 진리를 감동적으로 밝혀주고 있는것이다.

이 대사가 것처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것은 또한 그것이 비판하는 최관배로인의 성격과 생활의 론리 그리고 정황에 알맞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최관배로인은 해방후부터 근 40여년을 단 하루의 드림도 없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간직하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온 로당원이다. 그것은 박우필의 그릇된 처사로 본의아니게 년로보장을 받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를 찾아가간 차석빈을 보고 《내, 죽는 날까지 보이랴앞에서 우리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다가 숨지게 해주게 영?!...》라고 간절하게 청하는 대사하나만을 가지고도 명백히 알수 있다.

바로 이처럼 뜨거운 충성심을 지닌 로인의 말이기에 이 대사가 이처럼 진실하고 감동적으로 안겨오는것이다.

영화에는 다음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당일군들이 당과 혁명이 요구하는 한길을 드림없이 걸어나가는데서 귀중한 일깨움이 되고 교훈이 되는 뜻깊은 대사들이 있다.

《난 언제인가 이런 경우를 목격한적이 있소, 어떤 어린애 어머니가 속이 타는지 제 아이를 막 때려더란말이요. 그런데 그 애는 달아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 치마폭으로 기여들거던!...》

이 대사는 《점화로》전으로 하여 발전소 기사장 박우필의 눈밖에 나고 말썽군이라고 돌림을 받던 열직장 로동자 태성묵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오던길에 차안에서 하는 차석빈의 말이다.

이 대사는 뜨거운 사랑으로 이어진 부모와 자식과의 혈연적인 관계를 인정세태적인 생활화쪽으로 뜻깊고 인상깊게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주는 참으로 생활적이며 형상적인 대사이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는 어머니가 때려도 매를 피해 달아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품으로 기여드는것이다. 그것은 자식이 진심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그 아이는 알기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아픈 비판일지라도 거기에 뜨거운 사랑과 진정이 담겼을 때 사람들은 그

것을 고맙게 받아들이게 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 대사의 사상예술적의의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교양개조할 때 사람들은 진심으로 당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것을 메마르고 딱딱한 설교로써가 아니라 한쪽의 생동한 인정세태적인 화폭에 담아 형상적으로 감명깊게 보여준데 있다.

이 대사는 그 계기와 정황이 옳게 설정되고 알맞게 주어짐으로써 그 뜻이 더욱 뚜렷이 살아날수있었다.

태성묵의 집에 찾아가 그를 만난 차석빈은 지난날 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하였음을 직감하고 돌아오는길에 차안에서 정색해서가 아니라 언뜻 머리에 떠오른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그것도 담당지도원 안명준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3대혁명소조원에게 이야기해줌으로써 그것을 듣는 안명준이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 하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이 말을 곁에서 들은 안명준은 말없는 가운데서 자책감에 잠겨 지난날의 자기 사업을 심각히 돌이켜보게 되며 소조원처녀는 처녀대로 스쳐보낼수 없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가슴깊이 새겨듣는것이다. 이렇듯 이 말은 일군들이 어떤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도와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자연스럽고도 로숙하게 깨우침을 주는 참으로 의의있는 대사이다.

이밖에도 《...자신보다 먼저 당을 생각하구, 일을 할 때두 길을 걸을 때두 아버지수령님의 은덕을 가슴에 새길줄 아는 사람만이 새시대의 청년이고 참된 인간이다.》, 《...당은 바로 우리의 량심이니까요!》, 《당위원회에 앉아서 문고리나 먼저 쥐는 사람의 말만 듣고는 사람들의 정치생활을 옳은길로 인도할수 없소.》, 《진실한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한뼘으로 흐르기 마련이야...》, 《당일군이 한입으로 두 소리를 하면 군중은 당을 믿지 않아!》, 《...병사의 맹세는 조국과 한 맹세구... 혁명에 바친 숭고한 맹세야!》, 《사람이 점잖으면 어디 가서나 존대를 받소...》 등 적지 않은 대사들이 간결하고 세련된 언어속에 사업과 생활에서 사람들의 좌우명으로 될 깊은 뜻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되며 그들의 커다란 공감을 자아내고있다.

다음으로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의 대사의 높은 사상예술성은 생활적이며 형상적인 언어에 의하여 담보되고있으며 여러가지 언어표현수법이 능숙하게 구사됨으로써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생활적이며 형상적인 대사언어의 특징은 영화 전반에서 뚜렷이 나타나있다.

생활적인 언어, 소박하면서도 텅텅하고 감칠맛

이 있는 대사의 언어적특징은 최관배로인이 박우필이를 아프게 타이르는 말을 비롯한 일련의 대사들에서 특히 눈에 띄게 알린다.

최관배로인이 박우필을 준절히 질책하는 대사는 한생을 로동으로 늙어온 사람의 꾸밈없는 텅텅한 말로 되어있다. 《임자의 친어머니》,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자넬 먹여주시구, 입혀주시구 대학교를 졸업시켜 오늘은 나라의 큰 간부로 내세워주셨어》, 《친구의 신세값음》, 《제 운명을 건져주시구》, 《당의 은덕은 당초에 잊었거든》, 《정말 의리가 없는 녀석이 됐어!》 등은 모두 소박하고 알기 쉬우며 사람들의 입에 오른 구수한 말들이다. 더우기 이 대사의 《돌덩이처럼 버렸지만》은 깊이 탐구된 형상적인 표현으로서 다음에 오는 《먹여주시구, 입혀주시구 대학교를 졸업시켜 오늘은 나라의 큰 간부로 내세워주셨어》와 대조되면서 아버지수령님과 당의 은덕을 두드러지게 강조해주고있으며 대사전반의 형상성과 감칠맛을 한층 높여주고있다.

군당책임비서 차석빈이 태성목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길에 차안에서 소조원에게 한 대사 또한 그러하다. 이 대사는 그대로 인정세태적인 생활화폭을 방불하게 그려낸 생활적이며 형상적인 대사언어의 전형적인 레이다. 이 대사를 이루고있는 낱말들은 어느 하나도 생활적이지 아니것이 없으며 한폭의 그림처럼 생동한 표상으로 인상 깊게 안겨오는 형상적인 언어표현들로 되어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스쳐지날수 있는 인정세태적인 이야기속에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교양개조할데 대한 심오한 사상을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생활적이며 형상적인 언어로 표현한 바로 여기에 이 대사의 독창적인 발견과 가치가 있는것이다.

영화의 대사에서는 이밖에도 여러 대목들에서 형상적으로 탐구된 언어표현들이 능숙하게 씌여짐으로써 대사의 높은 형상성을 보장할수 있었다.

《잔등이나 굽어주는 로친을 하나 얻자 하다가...》, 《아들 하나 벌었소.》, 《령감이 불집을 일켰지요?》, 《이 지배인실에서야 패배자의 한숨소리뿐인걸요!》, 《내가 돈을 벌어서 묘지에 굶어지고 갈텐가?》, 《...도깨비로에서 한와트의 전기라도 나왔단말입니까?》, 《사람금새로 치면 그 량반은 금값이구 자넬 쇠걱지밖에 안돼!》 등은 모두 생활적인 언어로 표현된 매우 형상적인 대사들이다.

대사구사에서 여러가지 언어표현수법을 탐구적으로 세련되게 구사하는것은 대사의 뜻을 두드러지게 밝혀내고 그 형상성을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에서는 여러가지 표현수법을 적극 구사하기 위한 탐구적노력이 뚜렷이 엿보이며 그것으로 하여 병사의 높은 사상에 숭성이 보장되어있음을 알수 있다.

영화의 대사에서는 대조, 대구, 반복, 비유 등 여러가지 언어표현수법들이 효과적으로 세련되게 구사되어있다. 우선 대조의 수법이 숨씨있게 씌여져있다. 앞에서 레로 든 박우필기사장의 비당적인 행동을 비판하는 최관배로인의 대사 하나만을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이 대사에서는 앞부분에서 친어머니의 사랑과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대조시키고 뒤부분에서 친구의 신세값음과 당의 은정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대조시킴으로써 아버지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은덕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지키는것이 사람으로서의 응당한 도리이라는 대사의 깊은 뜻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있다. 《사람금새로 치면 그 량반은 금값이구 자넬 쇠걱지밖에 안돼!》

《책임비서가 인민에게 하는 소리가 다르고 체집안에서 히는 소리가 달라서는 안된다.》 《그까짓 자동차야 건지기 힘들겠습니까? 구멍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가 힘들지요.》 등도 대조의 수법으로 씌여진 대사들이다.

영화의 대사구사에서는 대구의 수법도 탐구적으로 숨씨있게 쓰이고있다.

《당앞에 할수 없는것을 하겠다고 하는것은 비당적이지요?》

.....

《예. 그러나... 할수 있는것을 못하겠다고 하는건... 반당적이지요.》

이것은 룡산탄광에서의 석탄 2천톤증산문제와 관련하여 신심을 잃은 탄광지배인과 당의 지령을 무조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립장에 선 군당책임비서가 서로 주고받는 대사이다.

공명심에 사로잡혀 할수 없는것을 하겠다는것은 허풍을 치는 당적인 량심이 없는 옳지 못한 행위이지만 능히 할수 있는것을 못하겠다고 하는것은 오히려 더 엄중한 반당적인 파오로 된다는 심각한 정치사상적내용을 《비당》과 《반당》의 대구의 형식에 담아 간결하고도 예리하게 표현한 명구적인 대사이다.

비당적인것과 반당인것을 다 같이 경계하며 비판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당의 방침관철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심어주는 이 대사야말로 피타는 탐구심이 낳은 참으로 뜻깊고 값있는 대사들중의 하나이다.

이 대사와 함께 영화에는 《밥을 입에 넣어두 모래를 씹는것 같구 잠자리에 누워도 잠을 못자네.》 《...동무는 충신과 배신이 배속에서부터 타고나오는줄 아는가! 충신도 우리 곁에 있구, 간신도 우리 곁에 있소!》 등 대구의 수법이 능숙하게 구사된 뜻이 깊고 세련되게 다듬어진 대사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영화에서는 깊은 뜻을 담은 대사를 의도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작품의 주제사상을 강조하는 수법도 리용되고있음을 볼수 있다.

즉 영화의 대사구사에서 효과적으로 씌여지고 있는것은 반복의 수법이다. 딸 수영이에게 원철이가 가있는 탄광마을 학교 교원으로 가도록 간곡히 바라는 아버지의 권고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는 차석빈의 대사 《뭐?! 좋다! 넌 내 딸이 아니다! 당의 은덕속에 자신의 행복만을 찾으려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은 필요없어!》와

안해 정심에게 하는 차석빈의 대사 《당에선 룡산탄광때문에 그토록 심려하고있는 때 내 한몫 바쳐 그걸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당의 은덕속에 자신의 행복만을 찾아야 옳겠소?》에서 《당의 은덕속에 자신의 행복만을 찾으려는》이 거듭 씌여진 실례가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여기에는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은덕속에 행복만을 찾으려 할것이 아니라 그 크나큰 은정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두드러지게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당에 끝없이 충실한 주인공 차석빈의 성격을 더욱 뚜렷이 부각해주고있는것이다.

특히 반복의 수법이 탐구적으로 의의있게 씌여지고있는 대사의 례는 피로울 때 우는건 속물이고 기쁠 때 우는게 진짜 사내라는 뜻의 말을 처음장면과 마감장면에서 두번 반복하여준데서 찾아볼수 있다. 발전소 기사가장이 룡산탄광에서 석탄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면서도 미안해함이 없이 어찌 그렇게도 태연할수 있는가고 말하는데 대하여 지배인 엄광준은 《난, 피로울 때 우는것은 속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यो. 기쁠 때 우는게 진짜 사내지!》라고 말해준다. 그런데 영화의 마감대목에서 당의 방침대로 룡산탄광에서 증산한 석탄을 싣고 발전소로 왔을 때 발전소 사람들

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감격의 눈물을 짓는 탄광지배인에게 차석빈이 하는 대사 《지배인동무는 언제가 피로울 때 우는건 속물이고 기쁠 때 우는 사람만이 진짜 사내라구 하더니, 오늘은 한번 실컷 물어보시오.》라고 하는데서 다시 반복되고있는것이 비유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반복은 난관앞에서 무너져도 끝까지 관철해야 하며 그때 흘리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야말로 참으로 고결하고 값있는 눈물이라고 보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참된 인생관과 그들의 성격적특질을 깊이있고 여운있게 강조해준다.

이 대사 역시 영화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한 성공한 대사들중의 하나인것이다.

비유는 언어의 형상성을 높이는 기본수법의 하나이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에서는 비유의 수법이 능숙하게 구사되고있다.

영화에서 《구새먹은 고목인데 무슨 쓸모가 있겠다구...》의 《구새먹은 고목》, 《왜 밤토끼처럼 놀라나?》의 《밤토끼》, 《내가 뭐, 지배인동지가 마음대로 옮겨놓는 장기쪽인줄 압니까?》의 《장기쪽》 《우필기사장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두구두구 으르렁거리네. 요즘은 완전히 개와 고양이세!》의 《개와 고양이》 등은 다 같이 문맥에 알맞는 적중한 비유로서 인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침투되어있는 매우 형상성이 높은 언어표현들이다.

이밖에도 영화의 대사에서는 성구와 속담이 적절하게 리용되고있다. 특히 《말끝에 묘안이 ...나온다구》, 《말이 실속이 없으면 화밖에 가져오는게 없습니다.》 등 새롭게 창조된 속담들이 숨씨있게 구사됨으로써 대사형상의 사상예술성이 훨씬 높아질수 있었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의 대사의 높은 사상예술성은 당중앙이 제시한 명대사창작방침을 높이 받들고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피타는 탐구적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작가들은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의 대사구사에서의 귀중한 경험을 창작실천에 구현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다.